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STRATEGIES FOR A WHOLISTIC PASTORAL CA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MANUEL CHURCH OF GANGHWA

written by

EUN CHUL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January 6, 2006

**STRATEGIES FOR A WHOLISTIC PASTORAL CA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MANUEL
CHURCH OF GANGHW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EUN CHUL LEE

JANUARY 2006

전인적 돌봄을 통한 효과적인 목회전략:
임마누엘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 종 기 교수

이 은 철

2006년 1월

Abstract
Strategies for a Wholistic Pastoral Ca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manuel Church of Ganghwa
Eun Chul Lee
Doctor of Ministry
200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 is important for the ministers to lead the church members with a mind of whole personal care in this post-modern society which is characteristic with individualism and relativism. Many people today have experienced such a loss of personality and the distortion of human characters that ministers have to take care of them with a special pastoral care.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analyze and introduce my pastoral works in the Immanuel Church as a senior pastor and a pastoral carer.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five parts:

In the first part, I explored the development and definition of whole personal pastoral care from the age of the early church to the 20th century. The concept of whole personal pastoral care was originated from the model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early church paradigm of shepherd and sheep and has a firm biblical foundation. Based on the biblical model, the pastoral care in 20th century was developed with the study of psycholog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whole personal care, we can define that whole personal care is to care the laity and make them mature in the spiritual, heartfelt, physical, familial, and social shapes.

In the second part, I intensively analyzed the paradigm of whole personal care in the Bible. The mai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personal care in the Bible are savior, healer, teacher, and good carer. The Lord Christ, the apostle Paul, and Peter were the good models for the paradigm of whole personal care. Their main focus was to take care of each person with the pastoral mind.

In the third part, I examin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 order to apply appropriately the paradigm of whole personal care to my ministerial context. The Korean has the peculiar personalities such as 'sympathy,' 'feeling of sorrow and regret,' 'honor,' 'inferiority complex,' etc. They also consider family as a high honor. The pastors with a perspective of whole personal care should focus on helping them recover their negative traits.

In the fourth part, I introduced two cases of the principle and application of the whole personal care: Jeja Church(Rev. Samji Jung) and Wonju Segyero Church(Rev. Choonggu Byun). These two churches are good models in relation to the whole personal care as far as I know.

In the last part, I dealt with my ministry in the Immanuel Church in terms of the whole personal care and made the efficient strategie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ministry. The pastoral vision of the Immanuel Church is to glorify the name of God by recovering the distorted image of God in the each life of the church members.

Keeping the concept of whole personal care in my mind, I will continue my ministry in order to achieve my vision through the way of the whole personal, individual, and systematic care.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해 전인치유, 전인적 돌봄 목회를 꿈꾸며 달려 온 21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귀한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박사 과정을 연구하는 동안 성경을 깊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새 관점을 열어 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가정 사역의 귀중함을 깨닫게 해 주신 엄예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논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민종기 박사님과 김태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은 리처드 피스(Richard Peace) 교수의 Pilgrimage와 소그룹 전도와 목회 강의에 많은 감동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이현수 목사님, 이석환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섬기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해 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후원해 준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 만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에서 다룬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목회 패러다임을 본받아 더욱 성육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한 없이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과분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06년 1월 이 은 철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발달과 개념	5
제 1 절 전인적 목회 돌봄과 발달	5
1. 초대교회의 목회적 돌봄	5
2. 종교개혁 이전의 목회적 돌봄	9
3. 종교개혁 이후의 목회적 돌봄	12
4. 20세기의 목회적 돌봄	13
제 2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	17
1. 목회적 돌봄의 어원적 개념	18
2. 목회적 돌봄의 목양적 개념	20
3. 전인적 돌봄의 개념	23
제 3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목적	27
제 3 장 전인적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	30
제 1 절 목회적 돌봄의 패러다임	30
1.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	30
2. 베드로의 목회 패러다임	34
3. 사도 바울의 목회 패러다임	36
제 2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정신	39
1. 성육신	40
2. 한 사람의 철학	44
3. 성령의 사람	45

제 4 장 한국인의 문화와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방향	47
제 1 절 한국인의 사상	47
1. 한민족 사상	47
2. 홍익사상	48
3. 하나주의 사상	49
제 2 절 한국인의 가족문화	50
1. 한국인의 가족 개념	50
2. 현대 가족의 특성	51
3. 현대 가족의 위험들	52
제 3 절 한국인의 종교 문화	53
1. 전통적인 신인식	54
2. 대표적인 3대 종교	56
3. 전통종교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58
제 4 절 한국인의 의식	59
1. 정(情)과 한(恨)	59
2. 체면과 눈치	62
3.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62
4. 소극적이며 부정적	63
제 5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방향	63
제 5 장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의 원리와 그 적용 사례	65
제 1 절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의 원리	65
1. 전인 기능	65
2. 전인적 장애	70
3. 전인적 성장과 발달 과업	71
제 2 절 전인적 돌봄의 사례 교회 연구	84
1. 원주 세계로교회	84
2. 서울 목동 제자교회	91

제 6 장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 사역과 21세기 효과적인 목회전략	97
제 1 절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	97
1. 임마누엘교회의 성장 역사	97
2. 전인적 돌봄 목회로의 전환	102
3. 임마누엘교회의 목회 철학 정립	106
4. 전인적 목회 돌봄의 적용	109
5. 전인적 돌봄의 효과성	120
제 2 절 21세기 효과적인 목회전략	131
1. 21세기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의 패러다임	134
2. 전인적 돌봄을 위한 실제(방법)	140
3. 21세기 성도들의 욕구와 돌봄의 중요성	147
제 7 장 결론	149
참고 문헌	152
Vita	162

표 목 차

<표 1> 목회적 돌봄의 관계	9
<표 2> 예수사관학교의 프로그램체계	89
<표 3> 제자교회 목회비전	92
<표 4> 두 가지 유형의 직분	104

그림 목차

<그림 1> 전인 기능	69
<그림 2> 성령의 다스림	72
<그림 3> 영혼육의 축복	8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1세기 교회의 화두는 건강한 교회이다. 한국교회선교 120년 동안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이제 성장은 정체되고 쇠퇴해 가고 있다. 교회 외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주일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내적으로는 교회의 분열과 다름, 목회자의 세습, 목회자 자녀들의 조기유학, 교회의 대형화, 기업화, 기복신앙, 목회자들의 교권 경쟁,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회법정다툼의 만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 갤럽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는 6.1퍼센트가 증가해서 최대 성장 종교가 되었으며 불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경우는 34.4퍼센트였으나,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한 경우는 45.5퍼센트이다. 또한 비종교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분석한 결과도 불교가 37.4퍼센트인 반면 기독교는 12.3퍼센트에 불과했다.¹⁾ 이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로 현재 한국교회는 일 년에 약 5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²⁾

이처럼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채 병들고 쇠퇴해 가고 죽어져 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목회자의 문제이다.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목회자들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설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³⁾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

1) 김배경, “한국인의 종교생활,” *기독신문*, 2005년 6월 8일자, 7.

2)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경기: NCD, 2004), 35.

3) 정필도, “목사는 자기를 보고 목회를 해야,” *국민일보*, 2005년 6월 22일자, 33.

이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 위주와 대형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양적 팽창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불신자들로부터 비판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목회자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한다.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 평신도를 깨우는 것보다 먼저 목회자가 깨어나야 한다. 목회자의 의식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우선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목회자와 목회의 방법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목회자는 여전히 권위적으로 군림하며 독재적 지도력으로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옥한흠은 변화되지 않는 목회자와 목회방법은 전통적인 농사 방식만을 고집하는 자들에 비유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전통적인 목회 방식의 노예로 지내며 교회의 수적 성장에 대한 세미나만 찾고 성장 방법론에만 빠져있어서 교회가 병들고 쇠퇴해가고 있다고 했다.⁴⁾ 또한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과 패러다임을 중시하지 않고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 병에 걸려 외적으로 성공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무조건 벤치마킹하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다가 이제는 마치 증병에 걸려 버린 것과도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를 제시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tz)는 이것을 '방법 지향적 교회성장', '모델 주의적 교회성장'에 빠진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성장 방법론은 유행처럼 되어 은사운동, 제자훈련,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알파코스 등이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은 셀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고 너도나도 도입하고 있다. 셀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교회가 대형화, 기업화 되면서 목회자는 목양을 잃어버렸고, 목사는 목회자가 아닌 설교자로서만 역할을 한다. 그러나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이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목회 패러다임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

4)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5.

한 목회자 곧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목사”⁵⁾라고 했다. 시카고 주향한 교회 목사 김기영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열한 가지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로 목사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⁶⁾

이런 배경과 목회적 흐름에 근거해서 본 논문에서는 성경에 제시된 초대교회의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인적 돌봄의 목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자 한다. 목회자의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그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여 돌보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양떼 같이 돌보신다. 목회적 돌봄이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체험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도록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⁷⁾ 전인적 돌봄이란 인간의 구조적 기능에 따라 영적 기능인 신앙적인 면과 내적 기능인 심리적인 면, 그리고 육적 기능인 행위적인 면을 돌보는 것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12절 말씀대로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곧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이란 영, 혼, 육의 영역을 돌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성도의 전인격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찰스 솔로몬(Charles R. Solomon)의 *종성한 삶*과 탐 마샬(Tom Marshall)의 *자유케 된 자*를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며 후에는 최영기가 쓴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와 리처드 피스(Richard Peace)의 ‘소그룹 전도와 목회’ 과목의 강의와 개릿 복음주의 신학교 최초의 목회 신학교수인 캐롤 와이즈(Carroll A. Wise)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와 에모리 대학 목회신학교수인 찰스 거킨(Charles V. Gerkin)이 쓴 *목회적 돌봄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5) Peter C. Wagner, *건강한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The Healthy Church)*, 홍목표 역 (서울: 서로사랑, 1997), 27.

6) 김기영, *교회 현실화를 위한 교회 관리 세미나 중*.

7) Carroll A. Wise, John E. Hinkle, Jr, *영혼을 돌보는 목자(The Meaning of Pastoral Care)*, 이기승 역 (서울: 세북, 1998), 27-28.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교회와 목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또한 교회 성장학의 이론서들도 교회성장 방법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작 교회성장의 근본적인 열쇠가 되는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본 교회공동체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적 돌봄의 삶으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목양적 돌봄의 사역들을 모델로 하여 목회의 본질인 전인적 돌봄의 사역을 통해 효과적인 목회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이 원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2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면서 체험했던 전인적 돌봄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된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전인적 돌봄의 개념을 정리하고 초대교회부터 20세기까지 전인적 돌봄의 목회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3장에서는 전인적 돌봄의 사역자로서의 목회자는 누구이며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적 돌봄의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전인적 돌봄 사역이 한국인에게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한국인의 문화와 의식, 그리고 종교성을 살핀다. 이로서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과 원리 및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전인적 돌봄 사역의 원리와 그 적용 사례를 다룬다. 현재 전인적 목회 돌봄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원주 세계로교회와 목동 제자교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예로 제시한다. 6장에서는 임마누엘 교회의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 목회사역과 결과들을 제시하고 21세기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건강하고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 목회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발달과 개념

목회의 영역에서 전인적 목회 돌봄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21세기가 되면서 교계는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때보다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교계를 대표하는 지도급 목회자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더 교회 안팎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비난들의 대부분은 목회자의 인격과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이다. 목회 세습, 목회 성공병, 목회자 자녀들의 조기 유학 붐, 목회자들의 폐쇄성 등이 많이 지적되어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자신이 기독교인 것과 목회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졌다.⁸⁾ 목회자들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과 목적과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의 목적이 성도들의 양적 팽창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전도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돌봄에는 실패하였다.⁹⁾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목회적 돌봄 사역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전인적 목회 돌봄과 발달

1. 초대교회의 목회적 돌봄

8) 윤정국, "일간지 종교 담당기자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 *크리스천 신문*, 2005년 7월 18일자, 9. "목회자 성도 함께 타락한다," *크리스천 신문*, 2005년 7월 4일자, 14.

9) Ibid.

가. 개인적 돌봄 사역

누군가를 돌보는 사역은 인간이 창조된 이래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의 돌봄 아래 성장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아담에게 땅과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창 1:28).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주 선한 목자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양같이 돌보셨다(시 24:1; 80:1).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양떼들을 돌보셨다(요 10:1-18).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은 개개인의 돌보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개개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를 도와 주셨다. 그리고 점차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돌보며 또한 회당에서 말씀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돌보시며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돌보셨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 중심이었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히브리-기독교 전통에 존재해 왔다.¹⁰⁾ 목회의 돌봄이 개인적이어야 하는 것은 목회적 돌봄은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돌봄이어야 하고 영혼의 돌봄이란 개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은 개인 구원에 있었다. 제자들 또한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복음을 전했다. 목회적 돌봄이 개인적이어야 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의 구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대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황제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인해 핍박이 심했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며 순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속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동요와 배교가 있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먼저 된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성도들을 말씀과 소망으로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초대교회는 또한 전쟁과 핍박 등으로 나그네 되고 고아 되고 과부 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 이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것도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돌봄의 사역이었다. 초대교회의 목회적 돌봄은 사도,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로 불리는 자

10) Franklin M. Segler, *목회학 개론(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이정희 역 (서울: 요한출판사, 2001), 219.

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엡 4:11-12). 그 외에도 사도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돌보고 섬기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고전 12:4-11). 이처럼 초대교회의 목회적 돌봄은 개개인의 전인을 돌보는 것이다. 육체가 병든 자들의 병을 치유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 받은 자들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며 마음의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한 사람의 전인격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나. 가정 중심의 돌봄 사역

초대교회의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공식적인 회당 모임은 많지 않았다. 공적으로 회당에 모여 예배하며 목회적 돌봄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가정별 모임이 많았고 가정에서의 돌봄 사역이 많았다. 이 또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의 목회적 돌봄 사역은 여러 가정을 심방하며 돌보신 것이다. 혼인예식이 있던 집, 야이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 삭개오의 집, 베드로의 장모의 집 등 많은 가정들을 돌보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며 돌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시면서 가정 중심의 예배와 돌봄을 인정하셨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되고 기독교가 공적인 종교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뚜렷한 교회의 형태가 없었다. 대부분의 목회적 돌봄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거실운동으로 인간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거실종교로 인정되었다.¹¹⁾

이러한 가정에서의 모임이 3세기, 어떤 곳은 4세기까지 초대교회의 표준 형태였다.¹²⁾ 가정들의 많은 돌봄이 있었고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모임,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고넬료의 집, 스테바나의 집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서

11) Mike & Susan Dowgiewicz, *새 밀레니엄교회 (Restoring the Early Church)*, 이성희 역 (인천: 바울, 1999), 223-227.

12) Robert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IVP, 2003), 73-74.

16장에 언급된 바울의 신실한 여러 동역자들은 대부분 지도자들이며 가정교회의 목자들이었다. 초대교회의 가정적 돌봄 사역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나그네와 손님을 많이 대접했다. 가정에서 예배가 시행되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며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가 있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행 12:5-12). 초대교회 돌봄 역시 전인적 돌봄이었다.

다. 회당 중심의 돌봄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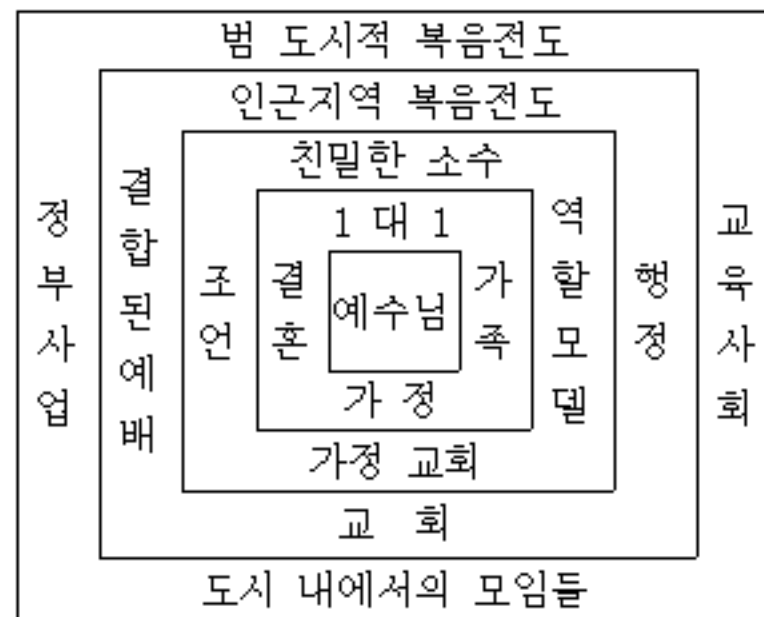
초대교회의 돌봄 사역이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서 점차 회당 중심의 목회적 돌봄으로 확장된 것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컸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가정에서 은밀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던 목회적 활동은 점점 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동체의 신앙을 지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점점 빈번해지는 박해로 인해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의 황제숭배에 타협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 아래서 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기독교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로 인하여 곳곳에 기독교의 회당이 세워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핍박을 피해 로마의 카타콤 안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유지하기도 했다.¹³⁾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로 묶여진 깊은 관계성과 정체성 안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개인과 가족과 부족과 지파로 조직되었다. 개인적 돌봄은 가정을 통한 돌봄과 회당을 통한 돌봄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뢰하면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가족이 구원되고 가족은 다른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독교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돌봄의 관계를 마이크 수산 도기비치(Mike and Susan Dow Giewicz)는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이 모델화 했다.

13) Charles V.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서울: 은성, 1998), 34.

2. 종교개혁 이전의 목회적 돌봄

신약교회 시대를 지나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목회적 돌봄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았다. 이 시기의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은 성도들을 위한 것보다 목회자의 목회적 권위와 지배권에 더 관심이 많았다. 2-3세기 말까지 교회는 점차적으로 정돈되며 조직화, 제도화 되어 갔다. 이 시기의 돌봄은 주로 성례전이였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성례전은 당시 교회 예배의 핵심이였다. 성례전을 통한 목회적 돌봄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음을 당하게 된 자들도 있었다. 성찬식이 공평하지 않은 체 건강하고 부한 자들이 주도함으로써 힘담이 있고 불평이 있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먼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며 죽게 된 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요구한다(고전 11:17-34).

이와 같이 2-3세기의 목회적 돌봄은 성례전을 통한 것이 중심이 되어 한 지역의 감독은 지방 교회에 있던 장로들에게 성례전을 거행할 권한을 주었고 지방 교회 장로들은 사제(Sacerdus), 감독 사제단(Sacerdotium), 클레리쿠스(Clericus)라고 불리는 조직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해 목사직은 카리스마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직업적인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정신을 가진 돌봄이 상실되었다.¹⁴⁾



<표 1> 목회적 돌봄의 관계¹⁵⁾

14)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 (서울: 쿤란 출판사, 2004), 79.

15) Mike and Susan Dowgiewicz, *새 밀레니엄 교회*, 237.

공동체 안에서 성례전을 통한 돌봄을 행할 때 또 하나의 목회적 돌봄이 있었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충성된 많은 일꾼들처럼 여러 지방이나 도시,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전도자의 일을 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했다. 이런 시기에 감독직과 선지자직, 목회직의 권위가 강조되었으며 이그나티우스는 “예수가 아버지를 따르듯 너희는 감독을 따르라”고 목회적 직무의 권위를 강조했다.¹⁶⁾

2-3세기 목회적 돌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강림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고넬료의 집과 여러 집회 장소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남성 목회자 중심의 돌봄 사역이 여성들도 성령 능력을 받고 목회 사역을 분담하고 동역하게 된 것이다.¹⁷⁾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언급된 동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여자 일꾼들이 언급되어 있다.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뵤뵤, 율법에 능통한 아블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브리스가, 로마교회의 마리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등이다(롬 16:1-12).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자 지도자들이었다(빌 4:2).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아주 세심하게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 주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전인격을 돌보는 일과 가정을 돌보는데 힘썼다.

4세기가 되면서 목회적 돌봄 사역은 교회가 로마제국에 공인 받아 영향력이 점차로 강력해져서 감독은 일반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 황제의 고문이 되기도 했다.¹⁸⁾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적 돌봄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치리와 권징이 강하게 시행되었다. 로마가 부흥한 중세시대 초기에는 로마의 길을 따라 유럽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때의 목회적 돌봄의 대표적이 양상은 어거스틴과 그레고리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어거스틴은 중세 신학의 기초를 놓았으며 그레고리는 대주교가 되면서 시실리 및 로마 등에 많은 수도원을 세웠다. 그레고리가 대주교에서 교황이 되면서 목회적 돌봄에 관심을 두었는데 목회적 돌봄을 두 가지 면에서 중심을 두었다. 하나는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개인적인 지도를 강조한 것이며, 다른

16) Carl A. volz, *초대교회와 목회 (Pastoral Life and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박일영 역 (서울: 컨콜리아사, 1997), 26-28.

17) Howard Rice, *영성목회와 영적 지도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 최대성 역 (서울: 은성, 2003), 25

18)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80.

하나는 기도, 묵상,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조절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찰스 거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레고리는 삶 속에서 각 사람들과 그들의 특정한 상황은 개인적이며 상황을 고려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그레고리는 성직자들이 개인의 영혼을 지도하는데 이용하도록 많은 지침서를 남겼다. 그리고 자신이 저술한 목회적 돌봄을 널리 보급 시켰는데 중세의 목회를 위한 지침서로 가장 널리 익히는 책이 되었다.¹⁹⁾

초대교회 돌봄 사역 가운데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에 은혜를 끼치는 가장 중심적인 목회적 돌봄은 여전히 성례전이었다. 이런 목회적 돌봄이 중세시대에도 중심적인 목회적 돌봄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목회적 돌봄은 치유목회, 임상목회였다. 중세시대 초기에 목회적 돌봄은 영적인 죄의식이나 신앙에 낙심한 자들이나 여러 가지 의문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의식용 기름이나 연고를 바름으로서 이런 문제나 질병이 치료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당시의 치유목회는 목회적 돌봄 사역의 최우선적인 중요한 역할이었다.²⁰⁾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 이르러 목회적 돌봄의 핵심은 영혼을 돌보는 개인구원, 성례전을 통한 은혜 베품, 수도원 운동, 치유 등이다. 이런 목회적 돌봄 사역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계속되어 교회는 제도화, 형식화 되어 가고 성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 있는 영성을 잃어 버렸고 성직자들은 목회직의 권위를 내세워 지배적이며 강압적인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저항해서 수도원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되었다. 수도원은 형제애로 뭉쳐진 단체로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개개인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연합된 공동체이다. 이 수도원 공동체는 확장된 그리스도인 가족이었으며 12세기에 들어 이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 생활을 벗어나 도시와 마을에 대한 설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로서 이들은 정기적인 예배와 진정한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상호 돌봄을 귀하게 여겼다. 이때로부터 제2 수도원 운동의 물결이 시작되었다.²¹⁾

19) Gerkin, *목회적 돌봄의 쟁론*, 45.

20) Ibid., 46.

21)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76.

3. 종교개혁 이후의 목회적 돌봄

중세 교회는 교황권의 강화를 통해서 국가 위에 군림하고 미사와 고해제도, 권징, 종교재판 등을 통해 성도들을 통제했다. 또한 예배의식에 치우쳐 설교가 제한되었고 복음은 스킴라 철학의 영향으로 본질을 잃었고 성경에는 이교철학과 지식이 추가되어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목회의 주된 이미지는 설교자의 목사였다. 사제라는 음어 대신 목회자(minister)들을 목사(pastor)라고 불렀다. 그리고 목사들의 주된 사역은 설교였다. 그래서 목사들을 설교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파격적인 목회자의 변화, 새로운 이미지가 바로 설교였다. 예배의 중심이 성례전이었던 중세 시대의 성례전을 약화시키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²²⁾ 마틴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령만을 주장하며 목회적 돌봄의 핵심을 말씀에 두었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해서 평신도들도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었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

종교개혁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회적 돌봄은 만인 제사장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신앙의 삶에서 남녀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았는데 성경공부와 기도, 상호 격려로 서로를 돌보았다.²³⁾ 이때에 마틴 부처(M. Bucer)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어서도 안 되며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목회 범주를 주장했다. 첫째,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 둘째,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던 자들을 인도하는 일, 셋째, 죄에 빠졌던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 넷째, 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다섯째, 건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일에 정진케 하는 일이다.²⁴⁾ 이처럼 종교개혁시대 이후의 목회적 돌봄은 설교, 성경공부, 영혼구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16세기가 되면서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의 동기, 태도에 관심을 두면서 목회자도 양들에게 섬세하고 긴밀한 반응을 보이며 인격적인 접촉과 교훈 및 상담을 하면서 복

22)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85-86.

23)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82.

24)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89. 백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8.

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었다.²⁵⁾

17세기에는 목회적 돌봄에 대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가 쓴 *개혁교회의 목사*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한 것이 인기가 있어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읽게 되었고 오랜 시간 목회의 기본 교과서처럼 여겨졌다. 이 책에서 그는 목회자의 두 가지 사역을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먼저 목회자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열심히 심방하되 체계적으로 심방하라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목사가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었다.²⁶⁾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가정을 심방하는 것이 중요한 목회적 돌봄 사역이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 목회신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18세기 중엽 클라우스 하름스(K. Harms)가 목회신학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19세기까지 목회신학과 목회자의 사역, 목회적 돌봄을 체계화 시킨 학자들은 대부분 독일 신학자들이었다. 목회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영혼의 병 치료”라는 의미에서 왔다. 이 말은 칼빈이 맨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영혼의 병 치료(Seel Sorge)를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았다. 이런 목회자상은 페스터(F. B. Köster), 존 왓슨(John Watson) 등에 의해 더 발전되었다.²⁷⁾ 따라서 18-19세기의 목회적 돌봄은 영혼의 병 치료, 교인심방,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 교리문답 교육 등이 중심이었다.

4. 20세기의 목회적 돌봄

20세기 초반의 목회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은 19세기 서양에서 급속하게 발전된 두 가지 동향 때문이다. 19세기에는 교회와 교단이 세계 선교에 매우 적극적인 시기였다. 당시 유럽의 교회들은 선교에 매우 열정적이었다. 한편 이 시기의 서양 종교는 사유화와 개인화로 인한 자아의 추구하고 관계성이 대두되었다. 자유주의 신학과 예수를 개인이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복음주의적 신학 중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가가 중요했다. 이처럼 20세기의 교회는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과 대립 가운데 발전되었다. 20세기 초에 왓슨은 *영혼의 돌봄 (The Care of Souls)*이라는 책

25) Seward Hiltner, *목회신학원론 (Preface of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5.

26) Ibid., 55-56.

27) 백동섭, *새 목회학*, 19-20.

을 저술해서 목회적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성립했다.

20세기는 19세기 이전과 다른 체계적이며 독립적인 목회 돌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20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환경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세기의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목회적 돌봄의 중심이 설교, 예배, 교육, 성례전, 치유 등이었던 것이 20세기 들어서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됨으로서 설교가 중심이 된 목회적 돌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 목회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목회적 돌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적 돌봄에 대한 갈등과 대립도 있었다. 복음주의적 목회자들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주의와 해방신학을 중요시 하는 자들은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회구원에 목회의 초점을 두었다.²⁸⁾ 또한 이 시기에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양분되어 더욱 그들 나름대로의 목회 방법에 매진하게 되었다.²⁹⁾

가. 목회적 돌봄의 세 가지 운동

20세기 초에 이르러 목회적 돌봄은 세 가지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엘우드 우스터(Elwood Worcester)에 의한 임마누엘 운동,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적, 과학적 종교심리학적인 목회적 돌봄,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ach)를 대표로 한 사회복음 운동을 통한 목회적 돌봄이다.

먼저 임마누엘 운동은 우스터가 1906년 자신의 사택에서 두 명의 정신과 의사와 함께 신경성 장애와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을 상담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했다. 첫 번째 모임에 198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는 우스터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임마누엘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찰스 거킨은 임마누엘 운동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운동은 히스테리와 우울증에서부터 알코올 중독과 도덕적, 영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능적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적 돌봄 종사자들의 노력과 심리학을 지향하는 의사들의 전문지식을 결합시킨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곧 다른 교

28)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50.

29)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97.

회로 퍼져 나갔는데 의학과 종교 그리고 의사와 목회자 사이의 중요한 연대적 활동으로서 주로 자유주의 교파와 교회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³⁰⁾

두 번째 운동은 우스터의 임마누엘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두드러지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지향적으로 목회적 돌봄 사역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정신분석적 목회 돌봄이나 심리학적 돌봄은 20세기 초 미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관심거리였다.

세 번째 운동은 사회복음 운동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목회적 돌봄도 일대일의 개인적 돌봄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룹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사회복음 운동은 목회신학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고 목회신학 연구에 토대가 되었다.³¹⁾

나. 전문적인 교육

20세기 초에 일어난 세 가지 운동은 20년 뒤부터 힘을 잃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 때 새로운 목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연구되는 것이 전문적인 교육이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침에 초점을 둔 목회적 돌봄으로 전환해서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베이비붐 세대와 연결되어 특히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육운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다.³²⁾

다. 임상훈련

20세기에 가장 뚜렷한 목회적 돌봄의 양상은 안톤 보이슨(Anton T. Boison)에 의한 임상훈련을 통한 목회적 돌봄이다. 보이슨은 목사들에게 임상훈련을 시키자는 제안을 낼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종교적 경험과 어떤 형태의 정신적 착란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이론을 제창하였다.³³⁾ 보이슨의 노력으로 임상목회 교육운동은

30)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64.

31) Hiltner, 목회신학원론, 65.

32) Rice, 영성목회와 영적 지도, 31.

33) Hiltner, 목회신학원론, 65.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거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초기부터 임상목회 교육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 임상목회 교육운동은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죄수들, 노인, 아동, 청소년, 그 밖의 특별히 목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을 위해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사회화 시키는 일반적이고 표준이 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보이슨의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임상목회 훈련을 그 밖의 정신의학적 기관과 교회기관들에게도 적용했다.³⁴⁾

라. 전문화된 목회상담

20세기 말인 1970-80년대의 목회적 돌봄은 개인적인 돌봄과 공동체의 돌봄이 논쟁과 연합을 계속하면서 크게 발전되었다. 목회적 돌봄이 신학분야로 정립되었고 신학교 교육에는 심리상담학이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 이 때가 목회적 돌봄 사역이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 목회자들은 심리상담학을 배워 성도들의 각종 문제와 질병을 상담하며 성도들이 안고 있는 사생활의 문제까지도 상담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상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평신도들이 목회 상담에 동참하게 되었고 부교역자들이나 여전도사들이나 전문 간사들이 협력해서 목회적 돌봄 사역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는 전문적이고 세분화 된 그룹 상담소나 상담적 돌봄이 많았다. 교회에서는 가정 상담이 주류를 이루었고 차츰 청소년 상담, 노인 상담, 환자 상담, 이혼한 자, 사별한 자, 독신자 등을 돌보게 되었고 기독교 단체들은 고아들, 미혼모, 알코올 중독, 폭력, 치매 노인들, 각종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공동체적으로 돌보는 사역이 중심이 되었다.³⁵⁾

이런 전문화, 세분화된 그룹별 목회적 돌봄은 더욱더 번성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각 신학 대학마다 사회교육원을 개설하고 사모들이나 평신도들에게 상담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중대형교회들은 목회적 돌봄이 더욱 전문화, 세분화 되어 교회 내에 법률상담소, 의료선교원, 청소년 전문 사역팀, 노숙자 섬김이 등 전문적인 자문 팀을 두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1970년대를 전후해서 한국에서 시작

34)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65.

35)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84-85.

된 공동체를 통한 목회적 돌봄의 대표적인 기관은 김용기 장로가 세운 가나안 농군학교이다. 복민사상을 중심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훈련하여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훈련하며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의 훈련소가 되었다.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새벽기도와 노동, 돌봄, 섬김의 정신을 가르친 공동체이다.³⁶⁾ 그 외에도 이단으로 흘러버렸지만 신앙촌이 있고 토레이 신부에 의한 예수원, 두레마을, 노숙자들을 위한 다일 공동체, 장애우들의 공동체인 밀알 선교회 등 많은 특성과 전문성에 따른 공동체적 목회 돌봄이 있다.

초대교회부터 20세기까지 목회적 돌봄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과거의 돌봄 사역의 결과를 통해 그것을 거울로 삼아 포스터 모던 시대의 매우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 사역을 확장 발달시키며 전인적 목회 돌봄의 모델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20세기 말에 목회적 돌봄 사역의 발달은 사회, 문화, 환경을 돌보는 일까지 확장되었고 영혼과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학으로 발전했다가 지금은 개인이나 교회 특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목회지도력으로 변화되어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목회적 돌봄의 발전으로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 로리베스 존스(Laurie Beth Johns), 헨리 블랙커비(Henry T. Blackaby), 존 맥스웰(John Maxwell), 지그지글러(Zigziglar), 클린턴(Clinton) 같은 많은 목회지도력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었고 기독교가 부흥되는 나라마다 목회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출판되고 있다.

제 2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

지금까지 설명한 목회 돌봄의 발달에 근거해서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규정해보자. 리처드 백스터는 “오호라! 증생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설교자가 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협과 재앙에 처해있다”³⁷⁾고 목회자, 특히 설교에만 집중하는 목회자들을 책망한다. 이런 백

36)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124.

37) Richard Baxter, *참 목자상 (The Reformed Pastor)*,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스터의 진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의 개념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보다 설교자로서의 역할만 중심에 두고 사역함으로서 한국교회는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문제로 분열을 겪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목사의 목자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목사다운 목회자,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목회의 개념이 무엇이며 목회적 돌봄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전인적 돌봄과 관련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목회적 돌봄의 어원적 개념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의 개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성경의 언어들을 보면 목사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번 나온다. 그러나 여기 목사란 헬라어 'ποιμήν'으로 '목자'를 의미한다. 'ποιμήν'은 신약성경에서 다양한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그 배경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다. 'ποιμήν'은 목자(shepherding), 곧 양을 치는 자이다.

'ποιμήν'의 히브리어 개념은 'Raah'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도 각 지파들이 그들의 가축 떼를 몰고 다니며 끊임없이 방랑생활을 했다.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물가로 인도하며 때로는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무력한 짐승들을 끊임없이 돌보아야 했다. 따라서 목자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다. 목사의 목회적 돌봄이 여기에 있다. 당시의 배경에서 이상적인 목자는 20-500 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다. 70인 역에서 양떼로 칭하는 'ποιμνιον'은 20-500 마리를 한 떼로 보았고 신약 시대에는 한 떼를 100 마리로 보았다(눅 15:4). 이런 양을 치는 목자의 의미는 후에 한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나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을 비유해서 사용되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민족의 유일한 목자로 인정했다. 특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시대나 전쟁 중에는 더욱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자주 나온다(시 23; 28:9; 68:8-9).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시대나 전쟁 중에 여호와를 유일한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한 것은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신실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³⁸⁾

신약시대에서 목자(ποιμήν)는 목동, 목양자란 의미로 ‘방목하다’, ‘돌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다. 이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먹이라’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양무리를 치라’이다.³⁹⁾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은 양들의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다.

목자로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에베소교회에서 삼년 동안 목회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베소교회의 감독들에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고 했다. 사도바울이 자신이 목자로서 양떼들 곧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되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훈계했다. 목자와 양떼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교회,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 할 때 따른다.

이미 기슭한 바와 같이 목자라는 말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목회적 돌봄이란 종교개혁 이후 수세기동안 추상적인 개념들로 발전해 왔다. 목회적 돌봄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연구되다가 후에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어 전문분야로 연구되었다. 목회적 돌봄에서 목회자의 직무와 자세에 뼈대를 놓은 것은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백스터의 참 목자상이다.

목회신학이 독일의 개혁주의 교회에서 발전되면서 ‘Seelsorge’라는 의미로 불렀다. 이 용어는 독일어의 영혼을 의미하는 ‘Seele’과 ‘돌보다’라는 동사 ‘Sorge’를 합친 합성어이다. 이 의미에 의하면 목회적 돌봄은 영혼의 돌봄이며 영혼의 돌봄은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리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⁴⁰⁾ 이는 목회적 돌봄의 1차적인 사역이라 하겠다. 목회적 돌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이 목회적 돌봄이라는 말은 교회훈련, 목회훈련이란 개념으로도 사용되었다.

훈련이란 학교라는 의미로서 목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며 그들의 영혼은 돌

38) 이병철 편, “ποιμήν,” *성서원어신약신학사전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vol. I (서울: 한국성서연구원, 브니엘 출판사, 1995), 756.

39) 정인찬 편, “목자,” *성서대백과사전 (The Wisdom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II (서울: 기독지혜사, 1979), 713.

40) Hiltner, *목회신학원론*, 49-53.

보아 주는 것이다. 에드워드 트루나이젠(Eduard Thurneysen)에 의하면 영혼의 병 치유, 즉 영혼의 돌봄이란 살아있는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영혼만이 아닌 육체까지도 돌보는 것⁴¹⁾이라고 했다.

존 패턴(John Patten)은 목회적 돌봄의 어원적 의미를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뜻에 따라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지배나 통치(domination)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히브리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을 돌보며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유지해야 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목회적 돌봄의 개념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돌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불안정한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곧 목회적 돌봄은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목회적 돌봄의 중요한 의미이다.⁴²⁾

구약 성경에서부터 20세기까지 목회적 돌봄의 어원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개념을 정리하면 목회적 돌봄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목회적 돌봄의 목양적 개념

21세기는 교회와 목양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다. 그 가운데서 목회적 돌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고전적인 개념들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사’라는 용어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성직자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목회적’(being pastoral)이라는 말은 꼭 성직자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평신도가

41) Eduard Thurneysen, *목회학원론 (Die Lehre Von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7), 40-46.

42) John Patten, *목회적 돌봄과 상황 (Pastoral Care in Context)*, 장성식 역 (서울: 은성, 2004), 33-34.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목사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목회적이라 할 수 있다.⁴³⁾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교회연합협의회(COCU)는 성직자들만을 기초로 하는 사역의 개념을 거부하고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행하는 사역도 개인적이면서 단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정의했다.⁴⁴⁾ 옥한흠 역시 교회의 기본 개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⁴⁵⁾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 나타난 각양의 은사들은 서로를 섬기도록 주셨다고 목적을 밝힌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한 자신의 지식적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섬긴다면 이것 또한 목회적 돌봄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성직자로서 목회자와 평신도로서의 목회자의 차이는 평신도는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직자인 목사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며 은사를 개발해서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목회적 돌봄의 개념을 고찰해 보면 목회적 돌봄이란 관심이다. 캐롤 와이즈는 '목회적 돌봄'(pastoral)이란 말에서 '돌봄'(care)이란 관심을 표현하며 '목회적'이란 그 관심의 깊이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았다.⁴⁶⁾ 이런 목회적 돌봄의 개념은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와 4-5세기 목회자들의 주된 개념이기도 하다. 잠언 27장 23절은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한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사랑에서 우러난 관심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보면 양들의 영적상태와 육적상태를 알게 된다. 크리소스톰은 목회적 돌봄이 양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목자는 많은 지혜와 영혼의 상태를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천개의 눈을 필요로 하는 것"⁴⁷⁾이라고 했다.

목회적 돌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된 관계이다. 목회적 돌봄이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개인이나 공동체와 연결해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다.

43) Patten, *목회적 돌봄과 상황*, 22.

44) Ibid., 129.

45)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27.

46) Patten, *목회적 돌봄과 상황*, 28.

47) St. Chrysostom, *On the Priesthood*, 2:4, Carl A. Volz, *초대교회와 목회 (Pastoral Life and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199에서 재인용.

성령 강림이 임한 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호적 돌봄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했다. 케롤 와이즈는 목회적 돌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적 돌봄이 하나의 활동 이상의 기능이며 하나의 이론이나 해석보다 살아있는 관계이며 행위의 문제라기보다 존재의 문제다. 목회적 돌봄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목자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삶의 질로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현을 지향하며 또 그것을 위한 경험의 근거를 제공한다.⁴⁸⁾

와이즈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지글러(Franklin M. Segler),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크리스티 코자드 뉴거(Christie Cozad Neuger) 등 대부분의 목회 신학자들이 증거한다. 이들의 증거대로 목회적 돌봄은 성도들과 바르고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목회적 돌봄은 중재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목회적 돌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 가정에서 모여 신앙의 교재를 나누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돌봄이 있었다(행 2:44-46). 고아들을 돌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과부들을 보살피는 것은 유대인의 의무였다. 찰스 거킨은 목회적 돌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우선적인 돌봄의 기준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라 했다.⁴⁹⁾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옛날보다 더 많은 다양한 돌봄을 필요로 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다. 정신질환자, 귀신들린 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미혼모, 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 실업자들, 병든 자들, 이혼자들, 재혼가정들, 고아들 등 돌보아야 할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일차적인 돌봄의 대상이 된다.

목회적 돌봄은 영적 안내, 영적 지도이다. 하워드 라이스(Howard Rice)에 의하면 영적 안내와 영적 지도는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목회적 돌봄으로 기독교인들간의 계약

48) Wise, 영혼을 돌보는 목자, 27.

49)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념, 77.

교제이다. 계약교제는 기독교적 삶의 핵심으로서 관계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성도들은 누구나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영적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⁵⁰⁾ 영적지도는 일찍이 오리겐(Origen)이 가장 강조한 목회적 돌봄이다. 그는 목회자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단순히 목사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보다 목회자로서 영적안내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오리겐에 있어서 목회적 돌봄인 영적지도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어떤 의미에서 필요불가결한 것, 그것은 그를 가르칠 선생이요, 안내자요, 친구이다...영적 협력자 없이는, 살아있는 모범이 없이는 그리고 완전한 누군가의 사랑의 참여 없이는 도덕적인 향상은 있을 수 없다.⁵¹⁾

사도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목회적 돌봄은 목자가 양들에게 몽학선생이 되는 것이다(갈 3:24-25). 목회자의 영적안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안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안내는 오리겐의 주장대로 그들의 영혼과 신앙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도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성도들이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몽학선생은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관리하되 학교의 길에 동행하며 집에서 공부도 지도하며 인격과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이다.

3. 전인적 돌봄의 개념

목사의 사명인 목회적 돌봄에서 지금까지 목양적인 개념을 원론적인 면에서 살

50) Rice, *영성목회와 영적 지도*, 72-74. 라이스에 의하면 계약교제(covenant friendship)는 신앙이 성숙한 자가 신앙이 어린 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영적 친구가 되어 인도해 주는 관계로 보았다. 도움을 주는 쪽을 지도자(director)로 보고 도움을 받는 쪽을 피지도자(directee)로 보았다. 이는 현대적인 개념의 멘토링과 같은 의미이다. 멘토는 알아서 영향을 끼치며 인도하는 자이고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는 자를 Mentoree 또는 Protege라고 부른다.

51) Hans Von Campenhausen, *Ecclesiastical Authority and Spiritual Power in the Church of the First Three Centuries*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69), 262. Volz, *초대교회와 목회*, 239에서 재인용.

렸다. 이제 목회적 돌봄의 실제적인 면에서 전인적 돌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개혁 이후 전인적 돌봄, 전인목양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이론을 근거로 전인적 목회 돌봄의 기초를 놓은 신학자는 에드워드 트루나이젠이다. 그는 말씀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개신교 목사요 학자로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목회의 본질과 형태를 정리했다. 그는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주축으로 목회신학을 정립한 학자로서 목회자가 효과적인 바른 목양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양의 대상인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²⁾ 그의 주장대로 목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인 인간 곧 성도를 바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셨다(요 10:3 14-15). 목회자가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해이다(창 1:26-27).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초대교부들인 오리겐, 클레멘트(Clement),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육적, 혼적,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⁵³⁾

마틴 루터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으로 되어졌는지를 증시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spirit), 혼(sold), 몸(body)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 됨, 곧 일체적인 것인데 다만 세 가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⁵⁴⁾ 루터의 견해로 보면 인간의 구조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영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이며 육은 영이 믿는 것을 담고 실천하는 그릇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은 영은 아주 귀하고 육은 덜 귀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여기에 대해 트루나이젠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혼, 육체로 만들어 진 것은 둘이 완전한 하나로 합일되었다는 것이다. 영혼은 단순한 육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육도 역시 인간의 본질을 형성하는 부분이지 결코 영혼의 종속물이거나 부속품이거나 기생하는 것이 아니며 영혼을 감싸고 있는 감옥도 아니라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그는 인간의 구원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52) Thurneysen, 목회학원론, 44. Baxter, 참 목사상, 91.

53) 박형용, 교의신학 인치론, vol. 3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51.

54)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vol. III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3), 48.

55) Thurneysen, 목회학원론, 45.

영적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육신의 생활 전체까지 포함된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한다.⁵⁶⁾

칼빈은 인간이해에 있어서 영혼은 불멸의 본질로 고귀한 것이며 창조된 것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물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분하기보다는 한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한 인간 안에 있는 통일성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⁵⁷⁾

이제 전인적 돌봄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트루나이젠의 견해가 정당하게 보인다. 그는 전인적 목회 돌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전인구원, 전인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목회는 인간의 영혼을 돌봐주는 일이다. 그런데 목회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영혼은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마련인 몸과 '영혼'(Seele)과 정신이 하나가 된 인격적인 전인(全人)으로서의 영혼인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목회는 하나님을 위한 전인의 성화를 과제로 삼는 것이다.⁵⁸⁾

장로회 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인 오성춘은 전인적 돌봄, 전인적 인간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전인치유로 보았고 예수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전인구원으로 보았다. 오성춘에 의하면 전인치유, 전인구원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의 특별한 점은 환자의 전인구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감, 환자의 몸을 고쳐 건강하게 하는 것, 환자의 정신적인 평안, 환자의 사회관계 회복, 환자의 영적인 삶의 회복 등 예수님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장애들에서 해방되는 전인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⁵⁹⁾

오성춘이 주장한 예수의 전인치유, 전인구원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56) Thuraneysen, 목회학원론, 77.

5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42-43.

58) Thuraneysen, 목회학원론, 44.

59) 오성춘, 신학 영성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208.

핵심사역으로 전인 돌봄, 전인사역이라 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 환자들의 인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향해 공감하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인 면이다. 그리고 환우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육적인 면이다. 마음과 몸이 건강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은 사회성이며 이것 또한 심리적, 인격적인 면이다. 결국 그 환우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영적인 면이다. 이런 인간의 영적인 면, 심리적(혼적)인 면, 육체적인 면을 함께 돌봐주는 것이 전인적 돌봄이다.

최정성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인간의 구원을 전인적 구원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전인적 구원, 전인적 건강, 전인적 성숙의 인간 이해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다. 첫째는 내면적 차원의 삶이다. 둘째는 대인관계 차원의 삶이다. 셋째는 대사회적 차원의 삶이다. 넷째는 대자연과의 관계된 차원의 삶이다.⁶⁰⁾ 내면적 차원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영적인 면이라 하겠다. 대인관계 차원의 삶은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혼적인 면, 심리적인 면에 해당되며 대 사회적인 차원의 삶은 교회, 국가등 공동체와의 관계로 사회적인 면이며 대 자연과의 관계된 삶은 환경, 자연과의 관계로 육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박윤수는 목회심리 치료의 체계에서 치유의 대상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영적,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 영역의 상호작용이 서로 부적응 한데서 온다고 보았다. 이 세 영역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온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를 이루도록 되었다. 그러나 영의 기능, 정서적 기능, 육체적 기능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 영역이 고통당할 때 나머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육체적 질병이 많은 부분은 정신과 심리적인 면에서 오며 영적인 갈등에서도 온다고 본다. 이것을 전환반응(conversion reacting) 증상이라 한다.⁶¹⁾ 박윤수의 인간이해 역시 영적, 육체적 심리적인 것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 전인적으로 보았다.

결국 전인적 돌봄이란 한 개인의 전인격을 돌보되 목회자가 예수님을 영접시켜 그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것만 아니라 트루나이젠의 주장대로 마음과 육체의 구원을 체험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60) 최정성, *영성목회핸드북* (인천: 예향, 1997), 21.

61) 박윤수, *목회심리치료와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라빠, 1996), 36-38.

같다. 첫째는 성도 개개인의 전 생애를 돌보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 할 수 없는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삼아서 살았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례전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쳤다. 오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회적 돌봄도 마찬가지다. 목사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심방하고 유아세례를 주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혼을 주례하고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 주고 병들 때 심방하여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장례식 주례를 한다. 그러므로 전인적 목회 돌봄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의 돌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영, 혼, 육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며 사회성도 건강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성도의 사역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체 가족의 공동체이다.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는다. 출생, 사춘기, 학업, 질병, 실업, 사고, 결혼, 사별, 사업 등 많은 일들이 있다. 이 개개인의 사역을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을 훈련해서 함께 사역하고 돌보는 것이 전인적 목회 돌봄이다. 이런 면에서 임마누엘 교회는 매우 효과적이다.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 받아 감당하면서 부교역자들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제 3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일군을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고(엡 4:11-13)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엡 4:15).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골 1:12). 결국 전인적 목회 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범사에 그리스도만큼

자란다는 것은 전인격이 그리스도만큼 자란다는 것이고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⁶²⁾

이미 앞에서 전인적 돌봄이란 인간의 영적, 심적, 육적인 면을 돌보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성도의 전인격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두절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단절되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전인적 돌봄의 목적은 세 가지 면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찰스 솔로몬은 인간의 구조는 영, 혼, 몸으로 이해하면서 온전한 구원이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환경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⁶³⁾

위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때, 전인적 목회의 돌봄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 얻고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은 죄책감과 내세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 기도, 훈련, 영적치유 등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하며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성숙시켜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마음의 상처가 많다. 이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인격과 정서가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목회상담에서는 성인아이, 내재적 과거아라고 부른다. 성인아이의 심각한 문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다.⁶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병든 자들을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고후 10:4)으로 보았고 마음의 쓴 뿌리로 보았다. 마음이 병든 자들은 열등

62) '범사'는 헬라어로 'πάντα'로서 'in thing'이나 'in all aspects'로 해석된다. 따라서 범사가 전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성도의 모든 면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 Charles R. Solomon, *풍성한 삶 (Handbook to Happiness)*, 김우생 역 (서울: 나침반, 1981), 16.

64) 최현주, *위장된 분노와 치유* (서울: 규장, 1995), 29-30.

감, 부적당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증오, 적개심,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마음이 거듭나게 해서 건강한 정신과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육체적인 면을 돌보아서 세상과 환경에 잘 적응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 가진 죄성이 인간의 육체를 타락시키고 세상의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을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자세와 방법을 돌보는 것이다. 최정성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성숙해지는 것을 전인 차원에서의 구원으로 보았다.⁶⁵⁾

65) 최정성, *영성목회 핸드북*, 20.

제 3 장

전인적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인적 목회 돌봄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먹이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셨다(출 19:4; 신 1:31-33).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며 돌보셨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성도들을 돌보신다. 여러 성도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전 12:4-7). 따라서 전인적 돌봄 목회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목회적 돌봄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목회적 패러다임을 바로 알고 시대와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1 절 목회적 돌봄의 패러다임

1.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과 사역과 관계되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그 가운데서 전인적 돌봄의 목회와 관계된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가장 잘 묘사한 곳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이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은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을 초월한 목회자들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구원자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첫째 되는 핵심적인 사역이며 이 세상에 임재하신 목적이다(눅 19:10).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이 구원의 사건이다.⁶⁶⁾ 예수는 자신이 구세주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친히 가르치시며 선포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서 구원의 주,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 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유대인이 매우 싫어하며 천대했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며 소외된 갈릴리에서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자라는 목회 패러다임 가지고 사역하셨다.

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시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신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하셨음을 의미한다.⁶⁷⁾

김세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치유, 대속과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적 구원이 우리를 위해 발생했다고 한다.⁶⁸⁾ 그리스도의 전인치유를 통한 돌봄은 공관복음에 잘 나타나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8 장에서는 나병, 백부장 하인, 열병,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9장에서는 증풍병, 혈루병, 두 소경, 병

66)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제자, 1993), 31.

67)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55 (서울: 제자원 바이블넷, 2000), 299. ‘약한 것’을 의미하는 *μαχαριαν*는 원형 *μαχαρια*에서 유래 되었다. *μαχαρια*는 ‘허약’, ‘쇠약’, ‘병약’을 의미하며 ‘고치시니’의 *θεραπεύω*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 아닌 영혼의 치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68)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3), 26.

어리를 고치신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전인치유의 사역을 계속 하셨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질병들은 육체, 정신, 영혼이 병든 것들이며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병들을 치유하셔서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이 치유의 사역을 그의 종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전인치유의 전문가인 이박행은 교회는 성령 충만을 입고 이것이 넘쳐흘러서 세상을 돕고 돌보는 치유사역을 해야 하며 이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⁶⁹⁾

다. 교사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은 교사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최우선적 사역이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단순히 율법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의 교사가 되는 것의 현대적 의미는 코치이다. 그리스도는 훈련자, 교관이이셨다. 그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하셨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훈련하되 모든 것에서 자신이 본을 보이시며 훈련하였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훈련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였다(마 10:15-16). 전인적 돌봄 목회의 패러다임에서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 훈련을 통한 돌봄을 통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선한 목자

그리스도의 돌봄 목회의 패러다임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선한 목자이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포하면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과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상은 유목민의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의 삶의 전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곧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는 양들을 치는 목자의 심정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깊은 관심을

69) 이박행, *전인치유목회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4), 250.

기울이며 양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요 10:3). 목자의 사명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양들을 아는 것이다. 양들의 이름, 건강, 형편과 처지와 가정환경 등 양들의 전인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는 잠언의 교훈이기도 하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 27:23). 그리스도는 양들을 아주 잘 아셨다.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아셨으며 그 양들의 형편과 처지와 질병과 고통을 다 아셨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한다(요 10:4). 백동섭은 목자는 양떼의 선두에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결코 양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⁷⁰⁾ 이것이 선한 목자와 난폭한 목자의 차이이다. 목자는 모든 고난, 위험, 수고를 감내하고 앞서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자이며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총을 쏘며 채찍으로 양의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자같이 앞서서 인도하시던 여호와와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는 양들을 앞서서 인도하셨다. 목자가 양들 앞에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본을 보이며 따라 오게 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품성하게 한다(요 10:10).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자이다. 그리스도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목자이다. 양들의 생명을 돌보며 그 생명을 품성하게 한다. 양들은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실 때 생명이 품성해진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특별한 목적은 이 양들로 하여금 품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했는가?’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인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생’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⁷¹⁾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위해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

넷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요 10:14-15).⁷²⁾ 거짓 목자는 어려움이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이

70) 백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3), 51.

71)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196-197.

72)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65.

대신 희생한다. 이 목자의 사명의 완수가 십자가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선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신다.

다섯째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부지런히 찾는 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양 우리 밖에서 방황하며 죽어져가는 양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이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대로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을 찾아다니시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가졌다(눅 15:4).⁷³⁾ 그리스도의 목회적 돌봄은 믿는 자들, 곧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은 바로 선한 목자이다. 이 목회 사상은 모든 성직자들의 중심 이미지가 되었다.⁷⁴⁾ 따라서 전인적 목회 돌봄의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의 핵심인 선한 목자의 심장과 사상을 가져야 한다.

2. 베드로의 목회 패러다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사역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또한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로서 베드로전후서를 통해 자신의 목회 패러다임을 잘 보여준다. 베드로의 초기 사역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했다. 그 가운데 전인적 목회 돌봄과 관계된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가. 복음 전파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이다. 베드로는 오순절의 역사가 예언의 성취임을 설교했다(행 2:14-36).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 된 자를 치유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다(행 3:11-26).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주와 그리스도라

73) 정진경, *목회자의 정체성과 리더십* (서울: 미드웨스트, 2002), 10.

74) Gerkin, *목회적 돌봄의 개론*, 32.

는 것이다(행 2:36).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적 설교를 통해 삼천 명, 오천 명, 허다한 무리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베드로의 목회 사역의 본질은 바로 복음 전파였다.

나. 제사장

두 번째 베드로의 목회 패러다임은 제사장이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사역자들을 거룩한 제사장(벧전 2:5),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라 했다. 제사장적 목회 사역은 그리스도가 선택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희생한 것과 그 사상을 같이 한다. 오성춘은 제사장적 목회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사장적 목회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지탱, 용서와 수용 등을 강조하는 목회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하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증보하며 위로와 격려의 사명을 담당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목회이다.⁷⁵⁾

베드로의 제사장적 사역의 패러다임에서 '만인 제사장'의 이론이 정립되었다. 만인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축복이다.⁷⁶⁾ 목회자만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 사명과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다. 선한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선한 청지기이다.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해야 한다. 선한 청지기란 'καλοὶ οἰκονομοί'로서 집을 뜻하는 'οἶκος'와 관리를 뜻하는 'νομος'의 합성어이다.⁷⁷⁾ 따라서 선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영적, 육적, 심적인 면을 전인적으로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

75)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34.

76) 이상근, *신약주해공동서신* (대구: 성등사, 1991), 140.

77)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대전*, vol. 127 (서울: 제자원, 2002), 318.

라. 장로

베드로는 목회적 돌봄 사역과 관계해서 사역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다(벧전 5:1-5)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한 장로는 당시 초대교회 감독들과 함께 교회를 돌보는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가 말한 장로의 사명은 양무리를 치는 것이며(벧전 5:2)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다(벧전 5:3). 이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다(요 21:1-15).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이 목양적 돌봄을 자신이 실천하며 동시에 함께 장로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한다.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은 오늘의 목회자들 또한 위임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3. 사도 바울의 목회 패러다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핵심 율법학자로서 늦게 부름 받은 사도이다. 그는 베드로와 다른 목회 패러다임을 가졌다. 여기서는 전인적 목회 돌봄과 연관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 패러다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복음의 빛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의 목회 패러다임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빛진 자 개념이다. 그는 빛진 자가 의무적으로 빛을 갚아야 하는 그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주어진다(78). 그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했는데 칭의, 화목, 양자됨, 새 창조 등이다.(79) 바울은 그가 직접 받은 계시와 복음을 통해 율법과 행위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비유적, 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양떼들을 돌보았다. 그는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78) F. F. Bruce, *바울신학 (Paul)*, 정원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1), 102.

79)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95.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들의 전인격을 치유하며 돌보았다. 그는 복음의 빛진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며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고전 9:16).

나. 믿음의 부모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회 패러다임은 교회와 개개인의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한 사람의 전 인격이 성숙하고 바른 신앙의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군이 되도록 돌보는데 있어서 부모 같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고전 4:15).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말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살전 2:11)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되 부성애, 곧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심장으로 돌보았다. 그의 부성애적 돌봄은 권면, 위로, 경계를 위한 돌봄이다. 권면(παρακαλοῦντες)은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위로(παραμυθοῦμενοι)는 병든 자들이나 그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과 심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즉 고난으로 인해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다. 경계(μαρτυρούμενοι)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 빠져있거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거나 신앙생활에 게으름과 나태한 자들을 바른길로 이끌며 지도하는 것이다.⁸⁰⁾

이처럼 성도들의 전인격을 돌보는 바울의 패러다임은 부성애를 가진 목회자다. 부성애를 지닌 목회자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로 양떼들을 자식 같이 여겨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계하며 말씀을 가르쳐 바른길로 인도한다. 스펀전(C. H. Spurgeon)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부친 관계로 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목회자는 한 교회의 성도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아버지다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아버지로 성숙함과 확고함

80)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23 (서울: 제자원, 2002), 102.

으로 영혼을 지극히 사모하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⁸¹⁾ 목회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는 방황하고 게으르고 슬 취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자들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마가를 전도여행에서 포기한 후에 마가의 회심을 보고 마가를 아들 같이 사랑했다. 목사가 부친관계의 부성애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성애적 목회 패러다임과 함께 모성애적 목회 패러다임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했다.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자기 자녀로 기르는 것은 유모가 아닌 친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브루스(F. F. Bruce)는 2장 11절의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과 같은 맥락의 구문으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으로 보았다.⁸²⁾

NIV와 공동번역은 유모가 아닌 어머니로 번역하였다. NIV와 공동번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심장을 가진 목회적 돌봄은 무엇인가? 어머니다운 지극한 사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어머니의 심장으로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며 목숨까지 주어 사랑한다고 전한다. 전인적 돌봄의 패러다임은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다. 곧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듯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7절에서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했다. ‘기르다’의 *θάλαπνίς*는 ‘따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자녀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다.⁸³⁾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자이다. 곧 자녀의 전인격을 돌보는 최초의 사람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갈라디아교회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어머니의 해산의 고난을 겪고 있음을 말

81) C. H. Spurgeon, *목회자들을 위하여 (An all Round Ministry)*, 박범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291.

82) F. F. Bruce,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5, *데살로니가후서*,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0), 95, 103.

83) 제자원 편,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95.

한다.

다. 지혜로운 건축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목회 패러다임은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신앙이 어리고 신앙의 경력이 짧고 자신이 오래 양육하고 돌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목회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나 많은 은사와 신앙의 체험을 가진 고린도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목회자로 자신을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여 신앙의 터, 기초를 세우는 건축자라고 했다. 바울의 목회사상, 신학사상에는 성도들의 개개인을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으로 보았다(고전 3:16-17; 6-19; 고후 6:16). 또한 그는 신앙생활이란 집을 계속적으로 지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엡 2:21-22). 윤남옥은 인간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지성소로 보았으며 신령한 집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의 전인격이 신령한 집인 것은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해했다.⁸⁴⁾ 바울이 의미하는 건축자 같은 목회적 돌봄은 무엇인가? 건축자는 부서진 집을 수리하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 헬라어 ‘κατάρτισμός’는 ‘καταρτίσω’에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수리하다’, ‘수선하다’, ‘정리하다’, ‘맞추다’,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는다.⁸⁵⁾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사람의 영, 혼, 육을 치유하고 훈련하고 고쳐서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제 2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정신

그레이스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호머 오스틴 켄트(Homer Austin Kent)는 목회자의 잘못된 정신을 비판했다. 목사는 지역사회의 공인으로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84) 윤남옥,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서울: 진흥, 2003), 15.

85) 송충섭 편, *헬라어소사전* (대구: 보문 출판사, 1978), καταρτίσω, 166.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모든 지역사회 조직에 있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거나 그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려고 추구하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라고 했다.⁸⁶⁾ 호머 켄트의 비판대로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는 사역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본질적 정신과 사상이다. 아무리 좋은 패러다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정신과 사상이 잘못되었다면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적 돌봄의 정신과 사상 역시 그리스도와 사도바울의 가르침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성육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박형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역사 위에 가장 크게 기발한 것이며 구속역사 중심이며 신앙 전 체계의 모든 교리의 본질이라고 한다.⁸⁷⁾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자체가 비하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성을 취해 입으신 것은 확실히 비하의 행위였다고 증거한다.⁸⁸⁾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자신의 신분과 섬김의 정신을 말씀하신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하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인적 돌봄 사역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자신을 낮추시는 비하의 정신을 가지고 낮아져야 한다.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일하며 성도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까지도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당시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만큼 낮아지셨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구원 사역이나 돌봄 사역은 효과적일 수 없다.

셔우드 링엔펠터와 마빈 메이어스(Sherwood Lingenfelter, Marvin Mayers)는 그

86) Homer A. Kent, *The Pastor and his Work* (Chicago: Moody Press, 1979), 175-176.

87) 박형용, *박형용 박사 저작 전집*, vol. IV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132.

88) Ibid., 145.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예수께서 무기력한 아이가 되어 오셨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는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숙한 어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분은 전문가로 오시지 않았다. 통치자로 오시지도 않았으며 왕족이나 우월한 문화권에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그 분은 정복당한 속국의 어느 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셨다.

성육신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학습자이셨다는 것이다. 그 분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 분은 평범한 어린이였다. 그 분은 부모에게 말을 배웠으며 또래들로부터 노래를 배우셨다.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 일을 배웠으며 그 당시 모든 젊은이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⁸⁹⁾

그리스도의 비하의 정신은 목회자가 전문가가 되어 성도들을 목사만큼의 전문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의 실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사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과 양들을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무시해 버리는 것에서 많은 목회적 갈등이 온다. 따라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기 비하의 정신에 기초해서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 트루나이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⁹⁰⁾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그리스도와 같이 성도들에게 성육신하고 비하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성도들에게 성육신하는 목회적 돌봄의 정신은 무엇인가? 트루나이젠은 성육신에 바탕을 둔 목회적 돌봄의 최고의 정신은 목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참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 혼, 육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전인을 이해해야 한다. 목회가 수없이 미궁과 갈등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어설피게 또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가 생각하는 인간관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형태의 목회자인지를 말해주리다”⁹¹⁾

89) Sherwood Lingenfelter, *Marvin Meyers, 문화적 갈등과 사역 (Ministering Cross-Culturality)*, 왕태종 역 (서울: 조이 선교회, 1992), 14.

90) Thurneysen, *목회학원론*, 44.

91) Ibid., 55.

라고 말한다.

세도우 링엔펠터와 마빈 메이어스는 목회자의 성육신을 그리스도가 200퍼센트의 완벽한 사람이 되듯 목사는 150퍼센트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50퍼센트의 사람다운 목회자의 정신과 삶을 그들은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시지만 그러한 신분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되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쉽게 잊어버린다(빌 2:6-7).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아이처럼 그들의 문화권에 기꺼이 들어가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배우며 그들이 노는 것처럼 놀고 그들이 공부 하는 것을 공부 하려고 할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⁹²⁾

그들에 의하면 목회자는 자신이 가진 우월한 지식과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강권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먼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이다.

캐롤 와이즈는 목회자의 돌봄의 정신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의 구원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였던 자들을 위해서도 구속 사역을 하시고 자유를 정취하셨다.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과 소외가 고난의 심도를 더한다 해도, 예수님은 그 깊이 속으로 뛰어드셨다. 목회적 돌봄의 의미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아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 편에서 지분 할 작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을 돌보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들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제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구속적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는 한 십자가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의 허망한 제스처에 불과하다.⁹³⁾

92) Lingenfelter, & Mayer, *문화적 갈등과 사역*, 22.

피터 스카지로(Peter Scazzero)와 워렌 버드(Warren Bird)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 역사를 그대로 쫓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타인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육신의 세 가지 원동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동력은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원동력은 자아를 지키는 것, 세 번째 원동력은 두 세계 사이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⁹⁴⁾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열심히 경영하고 그들의 언어, 문화, 습관 모든 것을 배우고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자아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스스로의 문화와 감정, 신앙과 역사, 신념을 확인하고 음미하며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지만 단 한 순간도 하나님ی 아니셨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아,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두 세계 사이에 굳건히 서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성부와 연합한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반면에 고난과 죽음을 맞보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에 속하셨던 셈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머무셨더라면 예수님의 삶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주님께 이 세상이란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주님의 삶에는 고뇌와 고통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로 부터 오해도 받으셨고 외면 당하셨다. 맨 몸으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것이다.⁹⁵⁾ 이것이 예수그리스도의 두 세계 사이에 굳건히 선 성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전인적 돌봄 목회를 추구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스카지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자신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 사이에 매달려야 한다. 주관을 잃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는

93) Carroll A. Wise, 영혼을 돌보는 목자, 24

94) Peter Scazzero and Warren Bird,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290-307.

95) Peter Scazzero,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307.

동시에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살아나고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⁹⁶⁾

스카지로의 성육신에 대한 이론은 21세기의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목회자의 정신임에 틀림이 없다. 목회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위임 받은 양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돌보는 자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정신을 일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주장하고 감독하고 책망하는 자세가 아닌 양들의 본이 되어 양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돌봐야 한다. 목사는 설교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의식과 사역에 습관화 되어버린 상태에서 성도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성육신의 정신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21세기 교회의 요구이다.

2. 한 사람의 철학

그리스도의 목회 철학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철학, 한 사람의 정신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양 일백 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열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와 교세를 가졌던 지 간에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야 한다.

옥한흠은 목회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종의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준비 시킨 후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해 오신 방법이기에 때문에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⁹⁷⁾ 목회자가 목회에 실

96) Ibid., 308.

패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한사람의 목회 정신을 잊어버리고 목회 성공, 교회 부흥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목회자를 찾으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마 25:40).

3. 성령의 사람

목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동시에 교회의 주 곧 머리가 되신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며 돌보시며 이끄신다. 따라서 목회적 돌봄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양들을 돌보기 전에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양들을 돌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는 삼 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였으나 그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하신다(눅 24:49; 행 1:4-5).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이다. 또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벧전 4:11)고 권면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할례당(빌 3:3)이라고 하며 고린도교회를 향하여는 성령의 유익하게 하심과 은사들을 설명한다.

목회자는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서 성령의 은사를 볼 일듯 해야 하며 성령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역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Lloyd Jones)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들 가운데 하나는 과거 두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위대한 체험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⁹⁷⁾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심오한 체험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라 한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 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

97)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7.

98) D. M. Lloyd Jones, *성령론*, 홍정식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93, 95.

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며 이것은 주님의 성육신의 전체 의미와 목적에 커다란 빛을 던져준다고 했다.⁹⁹⁾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마 1:18)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으며(마 3:16)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으며(마 4:1)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으며(마 12:28)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롬 1:4 8:11) 성령을 선포하시며(요 20:22)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분이시다(행 1:5).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동안 성령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사역자이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와 같은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목회자의 경우는 더욱 설명할 것이 없다. 목회자는 성령의 세례,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워드 라이스는 기독교 목사의 첫 번째 되는 목회자상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¹⁰⁰⁾ 캐롤 와이즈는 성령의 임재만이 목사로 하여금 예수께서 제시하신 모델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일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목회 사역은 성령을 통한 은사 사역이라고 했다.¹⁰¹⁾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목회자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전인격을 돌보는 사역자로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는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며 성령과 교통하며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99) D. M. Lloyd Jones, *성령론*, 327.

100) Rice, *영성 목회와 영적 지도*, 25.

101) Wise, *영혼을 돌보는 목자*, 17-19.

제 4 장

한국인의 문화와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방향

성경적이며 초대교회의 목회의 원리였던 전인적 돌봄의 사역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서나 적용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인적 목회 돌봄의 사역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목회 전략이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적이며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가져서 공동체적 돌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살피면서 전인적 목회 돌봄이 한국인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과 원리로 적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인의 사상

1. 한민족 사상

우리나라는 민족의식을 유난히 강조해 온 나라이다.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지역 도시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의 단결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주 사상이 한민족 사상이다. 한민족은 한국인의 고유한 의식이며 사상이다. 한민족이란 보편적으로 '조선 사람', '백의민족', '배달민족'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호칭은 모두 다 우리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대동단결하게 만들고자하는 의도가 있다. 조선 사람이란 고조선의 삼국(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국명이 모두 조선이었기 때문이며 백의민족은 우리 민족이 특별히 흰 옷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의민족 또한 한국인을 단일민족으로 결속시키는 민족적, 주체적인 명칭이며 정직한 민족임을 상징하기도 한다.

배달민족은 백두산을 의미한 백산의 변음으로 된 것으로 본다. 한민족이란 원래 기자 조선의 말왕(末王) 기준(혹은 대장군, 탁)이 남천하여 익산에 도읍하여 국명을 '한'이라고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⁰²⁾ 한민족이란 이처럼 처음

에는 한나라의 국명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사상이 발전되어 오면서 요람지를 칭하거나 민요명이 되기도 했다. 한민족, 배달민족이란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의식을 강하게 주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은 협동과 연합활동을 쉽게 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전은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되어진 무서운 결속력의 힘이었다. 또한 이 민족이 IMF체제가 되었을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 등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과 사상이 가진 힘의 발로이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다. 김득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려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¹⁰³⁾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로서 원래 훈민정음이라고 부르던 것을 현대식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한글은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이런 한글의 우수성과 독특성, 독창성으로 인해 하나 된 민족의 긍지를 크게 느낀다.

2. 홍익사상

한국의 건국이념으로 선포한 홍익인간은 한국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 사상이었다. 이 사상은 각 학교의 개교 이념으로 포함되기도 할 만큼 강제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 홍익사상은 인간의 평등, 평화, 박애정신을 주장한 것으로 김득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홍익사상은 나의 이익을 차지하기에 앞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모든 겨레와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며 사익(私益)보다 공익(公益)을 위하는 것이며 범사에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을 앞세우는 일이다. 이 홍익사상은 한 민족의 어진 품성에서 나온 것으로 남의 인격과 소유를 침해하지 않고 힘의 대결이 아닌 인과 덕으로 인간을 대하는 것이다. 홍익사상은 소수집단이나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四海)의 모든 인류에게 덕과 이익과 화평을 주겠다는 대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¹⁰⁴⁾

이러한 사상이 유교의 교리와 내용을 같이 하면서 발전되고 보편화 되어 왔으나

102) 조준상, *한민족 뿌리사* (경기: 한민족, 2002), 32-33.

103) 김득황, 김도경,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서울: 삶과 꿈, 2003), 143.

104) Ibid., 35.

지금은 이런 사상이 많이 상실되었다. 대도시 일수록 많이 없어졌고 그나마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꼭 홍익사상을 따르겠다는 정신보다는 그저 이런 사상을 알리지는 못하지만 나누고 베푸는 생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3. 하나주의 사상

하나주의는 한국인들이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집단 공동체 사상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투어 중 하나는 바로 '단일민족'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한국인들의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온 말이기도 하다.¹⁰⁵⁾ 하나주의 사상은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라는 개념이다.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나보다는 집단, 가족, 공동체의 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 민족과 가까운 나라 일본과 중국에도 없다. '우리'라는 개념은 집단의식,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주의', '단일주의', '유일사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의식의 하나주의 사상은 한국인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¹⁰⁶⁾

가. 혈연의식

한국인들은 같은 민족, 같은 지방 등 동결성을 강조하며 자주 쓰는 말이 '핏줄'이라는 말이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한 핏줄'임을 강조하면서 혈연의식을 통해 하나 됨을 강조한다. 이 혈연의식은 동족의식으로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한 동맹의식 내지는 동류의식으로 발전되어 하나주의가 형성되었다.

나. 음식문화

한국인의 음식문화인 식탁을 보면 개인별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밥그릇 외에는 대부분 각종 반찬들이 공유하게 되어있다. 찌개, 국, 탕 등은 함께 한 그릇에 두고 각자가 알아서 먹는다. 따라서 친구, 직장 등에서 동일성 같은 정체성, 친밀성을 강조할 때 흔히 '한솥밥'을 먹은 것을 강조한다. 함께 한솥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하나 되고 같아지고 가까워졌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105)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45.

106)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을 2002), 80.

다. 동계와 두레사상

동계는 마을사람들이 하나 됨을 보여주기 위해 끈으로 마을을 묶는 것이다. 이때 끈이 다른 마을까지는 가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을의 내부 결속과 단합을 다지는 것이다.¹⁰⁷⁾ 두레사상은 각 마을에서 농사철에 함께 협력하여 농사를 짓기 위한 조직이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일꾼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두레는 등근 원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하나주의의 모습이다. 그래서 등근 밥상을 두레상이라 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레 먹는다고 했다. 하나주의 사상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이며 폐쇄적인 면도 많았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혈연의식, 하나주의 사상은 같은 편이 아니면 배척하고 배타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었다. 그래서 너 아니면 나라는 편가르기와 색깔이념의 논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하나주의는 이처럼 개개인들에게는 배타주의, 폐쇄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성향이 되게 하면서 공동체는 연합 활동이 되지 않고 '개교회 중심주의'로 발전된다. 자기 교회만을 위한 개교회주의, 자기 교단만을 중시하고 다른 교단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파주의, 파벌주의가 되어 연합과 협력에 오히려 방해로 주기도 한다.¹⁰⁸⁾

제 2 절 한국인의 가족문화

1. 한국인의 가족 개념

한국인의 가족사상은 부부나 부자지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혈족관계를 총망라한 혈연 집단으로 현존하는 가족은 물론 돌아가신 선조를 포함하며 미래의 자손들까지도 포함한다. 한국어의 가족이란 집을 의미하는 '가'(家)와 한 조상을 통해 같은 혈연관계를 갖는 집단을 의미하는 '족'(族)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한국의 가족개념은 핵가족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사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⁰⁹⁾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모계중심사회에 있었던 것이 부계중심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족 혈연 집단은 씨족혈연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족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가족

107)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80.

108) Ibid., 83-84.

109) 엄예선, *건강한 기독교가정*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을 2002), 177.

혈연을 중심한 집단적 공동체 의식은 서로 유무상충하고 상부상조하며 외적의 침입을 공동으로 방어함으로써 혈연적 공동사회를 유지, 번영시키는데 그 존립목적이 있었다.¹¹⁰⁾ 이러한 존립목적은 자연적으로 조상에게 효도를 강요하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며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가족의 대를 이어야하고 혈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가문, 씨족사회의 번성, 번영을 위해 남성 중심, 아들선호사상이 매우 강하게 되었다.

2. 현대 가족의 특성

한 지붕 아래 대가족, 씨족사회를 중시하던 한국의 전통가족개념은 근대화, 산업화,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인해 혼동을 겪어 전통가족개념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었다. 핵가족화는 자녀들의 출산제한인 산아제한운동과 맞물려 저출산이 공식화 되어버렸고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들을 유능하게 키우려는 부모들의 욕심이 앞서서 과잉보호가 되고 더 나아가 이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이다. 목회자는 각 가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진 자들로서 한국의 현대가족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가. 가족간 돌봄의 상실

1960년대 이전 가정은 가족간의 따뜻한 돌봄이 있었다. 비록 경제는 힘들었지만 따뜻한 가족애가 있었고 형제애가 있었고 친족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시대에 가족애는 상실되었고 형제애는 더욱 상실되었다. 재산 상속문제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형제지간에 고발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가족 간에도 경쟁심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확대가족 문화

핵가족화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만들어 내었지만 그러나 한국사회 속에서 가정들은 서구 가정처럼 부부가 중심이 된 완전한 핵가족은 아니다. 전통가족에 비해 현대가족은 개인주의, 부부중심, 여성지위향상, 가족들 간에 민주적 관계 등으로

110) 김득황, *우리민족 우리역사*, 39-40.

발전되었지만 실제로는 핵가족의 성향보다는 변형된 확대가족문화 속에서 가까운 확대가족들과의 강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다. 또한 전통가족은 노부모 중심의 체제였으나 현대의 가족은 자녀들 중심으로 바뀌었다.¹¹¹⁾

다. 가치관의 갈등

현대 가족의 특징은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서구사회가 2-3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를 한국사회는 지난 50여 년 간 치러야 했다. 이런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전통적인 가치관은 약화되고 현대적인 가치관과 자아 지향적, 자기중심적 의식이 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모든 가족원들이 똑같이 수용해서 변화되고 적응해 가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신세대와 외국과의 잦은 교류로 개방적인 사람들은 현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남자와 구세대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다.¹¹²⁾ 이 두 사상과 가치관의 갈등은 매우 커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갈등과 같다. 현대화가 구조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 같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많은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혼이 증가하여 49 퍼센트가 되었고 가출 사건이 증가했다.

가치관의 갈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남성중심의 호주제 폐지이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리 결정을 내렸으며 뒤이어 국회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등 초본이 폐지되고 새로운 양식의 신분등록부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모든 국민이 동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각한 가족범위의 변화,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인한 갈등, 부성원칙의 변화로 인한 갈등 등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¹¹³⁾

3. 현대 가족의 위험들

한국 현대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험들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형제애가 없어지고 혈통가족의 계보가 증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가정의 위

111) 엄예선, *건전한 기독교 가정*, 179.

112) Ibid., 179-180.

113) 이한나, "호주제 폐지로 평등가족 이념실현," *크리스찬 신문*, 2005년 3월 28일자.

기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가정폭력으로 이는 위기를 넘은 비극이다. 요즘 종종 남편을 살해한 주부들의 사건이 기사화되는데 남편을 살해한 여성 10명 중 8명은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라고 했다. 또한 최근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원들이 상담한 이용건수 중 이혼사유 의 가장 큰 이유가 가정폭력이었다. 이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온다.¹¹⁴⁾

이 밖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가정 폭력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부모에게 얹혀사는 썩거루족이 많아졌고 자녀들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겨나고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도박중독이 매우 많아졌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위험은 가족 중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린 자들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우울증환자는 7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정의 위기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상존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의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만한 가족들의 의지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족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가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주고 가족구성원들의 전인격을 치유하며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 3 절 한국인의 종교 문화

한 국가의 종교는 그 국가의 형성과 역사의 흐름과 토양과 문화에 깊은 연관이 되어 발전되어진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복음의 토착화와 토착화 신앙을 주장하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주장과 해방신학 등의 논란으로 매우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한 국가의 전통적인 종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며 중요하다.

이정석은 모든 문화는 각각의 전이해(前理解)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통 종교연구 없이 한국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했다. 만일 한국 토양에서 형성된 전통 종교들의 전이해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혼합주의

114) 권용각, “돌봄의 목회가 절실한 때이다,” 인천기독교신문, 2005년 11월 27일자, 3.

와의 타협으로 발생하는 복음의 오염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¹¹⁵⁾ 따라서 한국의 토양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한국의 고대종교를 살피고 한국인의 신관과 종교성을 살피는 것이 성도들의 전인을 돌보는데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종교의 사상과 종교생활은 한국교회의 초기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한국의 철학적, 종교적 사상과 개념의 틀로 기독교의 복음을 해석하려고 시도했고 이런 이해가 한국교회의 영성과 기본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¹¹⁶⁾

1. 전통적인 신인식

가.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한국민족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던 민족이다. 고대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종교문화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다. 애니미즘은 정령숭배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서는 생명과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일월성신, 산천초목, 기암괴석 등에 정령이 있다고 믿었고 이 정령이 인간의 고통회복을 관장한다고 믿었다.¹¹⁷⁾ 샤머니즘은 한국의 고유 종교문화는 아니었다. 5세기경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 등과 함께 전래되어 한국의 문화에 적응되고 변화되었다. 이것이 점점 무교문화로 발전되면서 샤머니즘은 단군신화와 신라문화로 꽃피운 화랑도로 발전하여 뒤에는 무속으로 발전되었다.¹¹⁸⁾ 무속종교는 무풍(巫風)을 성행하게 했던 12세기에 굿으로 거짓종교와 미신화 되었다.

나. 주재신(主宰神) 하나님

고대 원시시대에 정령숭배를 했던 한민족은 원시사회에서 벗어나 농경사회로 발전되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종류의 정령들을 초월한 절대신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절대신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주재신이다. 이 절대신은 하늘에 계시어 우주의 모든 일을 다스린다고 하여 '한울림' 혹은 '하늘님'이라고 불렀다. 또 세상을 다스리

115)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 성장*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봄 2004), 137.

116) Ibid., 138.

117) 김득황, *우리민족 우리역사*, 19.

118) 우희영, *목회지도자학*, (서울: 심언, 1995), 184-185.

는 절대신이라고 하여 ‘한님’ 이나 ‘하느님’이라 불렀다. 이 ‘하느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최초 주재자이시며 유일신이란 뜻으로 높여서 쓰인 말이다.¹¹⁹⁾

김득황은 우리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해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¹²⁰⁾ 우리 민족의 신인식인 유일하시며 절대적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성경과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히브리민족이 인식한 여호와 하나님과도 같은 분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도 의문이다.

이정석은 한국 종교 언어의 기독교적 적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이 오늘날 소유하고 있는 가장 순수한 종교적 관념은 수입종교와도 전혀 무관하고 조야한 자연숭배와도 극히 거리가 먼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과 ‘님’이라는 말에 합성어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이 존재를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들은 철저히 유일신론 자들이며 이 존재에 둘러지는 속성들과 능력들은 성경의 여호와와 너무나 잘 일치한다.¹²¹⁾

또한 김득황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한말에 미국인 선교사로 일하면서 한국문화를 깊이 연구했고 성서번역에도 종사한 바 있는 게일(Jones S. Gale) 박사와 역시 미국인 선교사이면서 고대조선의 종교의 저자인 클라크(C. A. Clark)박사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신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우리 조상들이 인식한 하느님과 동일한 유일신이고 주재신이며 창조신이라고 보았다고 증거한다.¹²²⁾

이정석도 증거하기를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나 헐버트(H. B. Hulbert)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다.¹²³⁾ 우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천지의 만사를 주재하시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 풍작과 승진 등 모든 길흉을 주재하는 신으로 여겼다.¹²⁴⁾

119) 김득황, *우리민족 우리역사*, 20.

120) Ibid.

121)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성장*, 140.

122) 김득황, *우리민족 우리역사*, 11.

123)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성장*, 140.

2. 대표적인 3대 종교

한국의 고대 종교에는 이미 살펴 본대로 정령을 숭배하고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무교가 있었다. 여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도교, 유교, 불교, 선교 또는 신선교, 유일한 고유종교인 대종교, 자생적인 민족 종교인 천도교, 일본에서 전래된 일본호국종교 창가학회(남묘호렌계교), 천리교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 유·불·선이라 해서 3대 종교가 있는데 유교, 불교, 선교 또는 도교이다.¹²⁵⁾ 이들 종교들의 생성과 교리를 본 논문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다만 전인적 돌봄 목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본질적 교리와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불교

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래되면서 여러 단계의 변모과정을 통과하게 되었고 무교, 도교, 유교와 혼합되었다. 불교의 철학적이며 심리적이었던 것이 하나의 종교로 변모했다. 불교의 본질은 무신론적 인간주의이며 깨달음을 통한 자기구원과 모든 현세적 실체를 부인하는데 있다. 또한 불교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내세 주의적이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악 적이며 현대의 삶은 어느 모로 보나 생활의 삶과 호환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포되었으며 대중 불교의 길을 열어온 것은 정토불교인데 짧은 기도와 적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들은 기도와 시주의 양에 따라 세속적인 욕망과 소원을 부처와 보살이 다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신적, 무속 신앙적이며 한국사회에 반불교적 정신이 일어나게 만들었다.¹²⁶⁾

전 조계종 승려였던 김성화는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일부 선방을 제외하고는 불교가 아니라 불교 형세만 할뿐 부적을 팔고 점을 치는 미신과 무당종교라고 했다.¹²⁷⁾ 이처럼 한국의 불교는 행위중심의 선을 추구하다가 기복신앙, 세속화, 무속화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비판과 외면을 받았다. 이런 불교가 이조시대에 들어 쇠퇴하다가 해방 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가 이미 사람들에게 부정

124) 김득황, *우리민족 우리역사*, 195.

125) Ibid., 197, 199.

126)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 성장*, 150-151.

127) 김성환, *극락의 불나비* (서울: 아가페, 1985), 192.

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는데 계기를 주었다.

나. 유교

유교는 어느 때에 전래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문을 사용하는 동이족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조시대에 들어 유교가 활발하게 퍼져나간다. 유교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교문화가 우리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첫째는 조상숭배이다. 유교는 조상신을 믿는 종교이다. 내세가 있다고 믿고 조상의 '명복'을 빌며 조상을 명당에 모셔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중시하며 조상숭배를 제사로 지낸다.

둘째로 유교의 주역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지게 했다. 주역은 음양의 변화관계로 길흉화복을 타고난 운명으로 간주해버려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¹²⁸⁾

셋째로 유교는 서열문화, 족보문화, 권위주의사상, 체면문화를 만들어 사람들의 자유와 자유정신을 해쳤다. 이런 체면문화, 서열문화, 권위주의는 경쟁적인 분당, 문화적 투쟁 등으로 전락해서 유교 역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형식, 가식적인 무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될 수 있었다.

다. 도교(선교)

도교는 중국에서 전래된 종교로서 중국선교라고도 했다. 도교는 노자가 정리한 것으로 도교는 자연을 신적으로 보는 견해로 무교와 같아서 큰 충돌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의 강력한 영향은 자연의 선악과 신체수련을 통한 불노장생에 대한 신앙으로 '기', '단' 등의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무관들 사이에 유행하였다. 그러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길고도 험난한 자기수양에 정진하는 소위 '도사', '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널리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¹²⁹⁾

128) 우희영, *목회지도자학*, 196.

129)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 성장*, 144, 147.

3. 전통종교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무교와 3대 종교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과연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이정석은 한국의 주요 전통종교는 오랫동안 한국의 국교처럼 또는 대중신앙으로 되어서 한국인의 종교생활을 지배해 오면서 한국 민족 전체의 집단적 종교성에 깊이 파고들어 아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한국인의 의식과 정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¹³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교의 신 이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증거대로 고대 무교를 믿던 자들이 절대적 최고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로 무교, 유교, 불교, 도교가 결과적으로 기복신앙, 내세신앙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면서 또는 6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에 복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축복신앙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고대 종교들은 행위와 의식을 많이 강조했다. 즉 고대의 종교들은 도덕적 윤리적 도리나 교리를 강조하고 종교의 의식을 많이 강조했다. 이러한 종교성이 기독교의 최고의 경건과 거룩한 삶, 도덕성 등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우월성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고대 종교나 지금의 주요종교들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인 사제, 도사, 무인 등이 매우 카리스마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잘 복종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는 목사가 절대적 사제권과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존경을 받게 되었다.

다섯째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에서 다른 종교들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내세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기독교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체험적으로 내세를 증거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박아론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의 열정이나 헌신, 충성 등은 유교의 일편단심 충성심이나 열렬한 기도를 드리는 전통적인 정신 같은 것이 승화된 것으로 보았다.¹³¹⁾ 새벽기도의 열정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초월한 열심이었다. 불교의 염불이나 무교의 기도나 칠성당을

130) 이정석, 138-139.

131) 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 1975).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성장* 147에서 재인용.

섬기는 자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것들은 매우 혼한 일이었다. 이것이 기독교가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의 열정으로 변화되고 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4 절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의식은 위에서 말한 3대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도 유교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¹³²⁾ 한국인의 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식을 다루기보다 전인적 목회 돌봄에 꼭 필요한 의식을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의식과 감정, 정서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특성들을 바로 이해하면 성도들의 개개인과 교회공동체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과 한

정과 한은 한국인의 심성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모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다. 정심정의 본질은 아껴주는 마음이며 대인관계에서 상대와의 친밀감을 결정하는 제 1차적인 관계속성으로 자연발생적인 마음의 발로이다. 정심정은 상대방과 자신을 한 가족 구성원으로 느끼게 한다.

한은 한국인의 가장 심층적인 감정의 구조로 한국인의 정서 체계에 구조를 이루는 한국 문화적 감정요소다. 한은 억울한 감정과 자책의 감정이 혼합된 상태에서 수용과 부정의 복합된 심리가 혼재된 양가감정으로 구성되었다.¹³³⁾

가. 정

정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함께'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인간관계의 비밀이 없고 간격과 허물이 없는 마음이 포근한 관계란 점에서 그 원형은 가족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정 개념은 윤리나 도덕 행위를 뛰어넘는 포용성을 가졌다.

132) 이기춘, *교류분석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1), 83.

133)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심포지엄, 1993), 5.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공적으로나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도 언제나 정을 내세워 공평한 결론과 판단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정은 하나 됨과 가장 친밀함 그리고 한 가족 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정으로 뭉쳐지지 않은 상태는 곧 남이 되고 만다. 그래서 정이 통하는 자들은 큰 잘못도 쉽게 용서하지만 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도 잘 용서치 않고 냉정하게 정죄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행동의 결과보다 그렇게 행동하게 된 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러한 정의 의식과 감정은 대화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족 관계, 친밀관계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흔히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정의 요소인 ‘우리 의식’은 가족적인 마음이며 사랑과 아껴주는 마음이다. 반면에 남은 거리가 멀고 정이 없고 친하지 않은 자가 된다. 또한 대화 중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라는 것이나 “정이 많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네가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니?”라는 표현들은 정이 가져다 주는 친밀감, 관계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 친밀성은 인정, 사정, 동정 등으로 나타나며 정의 관계성은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통하게 된 정의 개념은 우정, 전우애, 동기 의식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제 삼자의 정감정에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심정이 강하다. 싸움을 할 때에는 곧 잘 하는 말이 “말리지마.”하면서 싸움을 준비만 하는 것이다. 말리지 말라는 심리는 한국인의 생활문화 습성 상 말리기 마련인 제 3자를 의식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말려달라는 속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이 의식의 반대적 성향으로 싸움을 하면서 “때려, 때려.”하고 머리를 내미는 것은 먼저 얻어맞음으로써 약자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여 둘러선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¹³⁴⁾ 따라서 한국인의 감수성을 훈련하고 전인적 훈련이나 목회적 돌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육성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은 정심정에 대한 민감성이다. 정심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장기간에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거짓이 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¹³⁵⁾

134)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문화* (서울: 신원문화사, 2000), 13.

135) 최상진,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13-15.

나. 한

한의 감정은 정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치유되어야 할 감정이다. 한은 억울함, 섭섭함, 원통함, 부당함 등에서 오는 것으로 한국인의 성격과 정서체계의 원형이다. 한국인의 심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한의 감정은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의 체제로 정신을 좀먹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쓴 뿌리이다.

한이란 어원적으로 보면 '心'(마음)과 '艮'(머문다)의 합성어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 아픔과 병이 된 것이다.¹³⁶⁾ 이 한의 감정은 크게 세 가지 조건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둘째는 필요한 것이 타인에 비해 현격히 결핍되어 고통을 당할 때, 셋째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했을 때 발생한다. 이 한의 감정은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억울함, 욕구 좌절, 분노, 적개심, 복수심, 원한 등 강력한 감정표현을 가져온다.

이 한의 감정을 가진 성도는 목회자들에게도 큰 고통의 가시가 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자갈밭, 길가 같은 강박한 마음이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한은 개인적 감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민중감정이다. 이것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신명 또는 신바람이다. 신명이나 신바람은 굿이나, 탈춤 같은 집단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³⁷⁾

한 심정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풀 수가 없다. 한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푸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회적으로 수용된 방법이나 승화된 방법으로 전환시켜 표현함으로써 풀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아픔과 억울함의 한을 가진 자들이 두 세 사람 이상 앉아서 자신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한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때 맺힌 한이 가장 잘 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즘 내적치유센터가 많이 생겨났으며 상담실도 많아져서 가능한 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은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주는 면으로 목회의 방향을 잡아 기도, 찬양, 말씀, 상담, 수련회 등을 통해 개인적, 집단적 감정표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36) 최상진, 14.

137) 이기준, *교류분석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110.

2. 체면과 눈치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가운데 정과 한 다음으로 많은 것은 체면을 중시하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문화이다. 유교의 양반 문화가 만들어낸 체면 유지의 자신의 감정을 속이게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체면문화는 재산, 학벌, 가족의 배경, 지위, 권력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자연스러워야 할 인간의 감정표현이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표출되지 못해서 이것이 상처가 되고 한이 되기도 한다. 체면은 사실 얼굴 모양이다. 그래서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문화에서 수치스런 일이 생길 때 “얼굴 깎인다,” “얼굴에 먹칠 한다,” “불 닳이 없다,” “얼굴이 안 선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말로 많이 표현한다. 이는 모두 다 자신의 체면과 관계되어 이용되는 말들이다.¹³⁸⁾ 한국인은 체면이 깎이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워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체면 때문에 권력과 감투싸움이 심하고 체면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돈이 있는 척 하며 체면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산다.

이런 체면과 눈치문화는 교회에서도 적용되어 목사나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목사 얼굴 봐서, 장로 얼굴 봐서 체면 살려주려고 교회에 나와 주는 자들도 남성들 중에는 많다.

3.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감정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다. 이 열등감과 패배의식은 대인공포증, 기피증, 경계 심리로 자리 잡아 간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모멸감을 느끼면 급한 성격에 소리치며 싸우려 한다. 이런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은 토론을 거쳐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반항하고 대적하고 보는 경향이 많다.¹³⁹⁾

우리 민족이 이러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지형학적 위치 때문이다.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의 위세에 눌려 조공을 바치는 아픔이 있었고 남으로는 일본의 침략이 많았다. 그리고 6·25

138) 이기춘, *교류분석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120.

139)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75.

와 내전을 겪었다. 이런 위협과 국가적인 억눌림 속에서 이런 피해의식이 형성되게 되었고 또한 한반도의 77퍼센트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이유도 크다고 할 수 있다.¹⁴⁰⁾ 이 심각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또한 목회적 돌봄을 통해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다.

4. 소극적이며 부정적 의식

한국인의 의식 조사 가운데 나온 통계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들 가운데 70퍼센트가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나 “안돼요”, “못해요”, “싫어요”, “자신 없어요”, “관심 없어요” 등의 말로 먼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뒤에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일군을 임명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어떤 모임이나 일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어떤 일이나 위치에 있기 보다는 남이 나를 알아주고 천거해 주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심성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인은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말로는 “아니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아니요” 라는 대답 속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 한국인의 소극적인 의식은 한번은 거절하고 손 사례를 해야 그것이 예절인 것처럼 생각한다. 결과 속을 달리하는 이 한국인의 의식은 참으로 매우 복잡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한다.

제 5 절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방향

한국인의 문화와 사상과 의식을 정리하면서 이런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를 따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전인적 돌봄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해야 된다. 한국인의 가정적, 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매우 효과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미 각 절의 결론 부분에서 약간씩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인은 아덴 사람들처럼 매우 종교성이 많다(행 17:22). 고대 한국인들은 모든 사물에 신과 생명이 있다고 생각 할 만큼 종교성이 많았고 한국인의 생활 자체가 신앙적이며 무엇인가 신을 열심히 찾는 민족이다. 그 가운데서도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주재신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 종교성이

140) 권문상, 75.

많은 한국인들에게 진실되고 위대한 종교인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참신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잘 돌봄으로도 하나 되게 하는데 유익하다.

둘째로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를 넘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으로 변해져 가는 시대에 있다. 이 상황에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회적 돌봄의 방향을 맞추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로 목회적 돌봄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상담 그리고 수련회 등을 통해 한을 치유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정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묶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해 소그룹의 돌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한국인의 문화, 의식 그리고 사상은 그 뿌리를 가족관계에 두고 있다. 문화의식, 심리상태 등은 가족적인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주로 많이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매우 중시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 중심적 생활과 서구문명의 급속한 유입과 외국여행의 자유화 등으로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이 가족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웃에게 간섭 받지 않고 살고 싶은 폐쇄성, 배타주의가 심해졌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아파트 문화가 주거 문화의 핵심이 되고 잦은 이사로 인해 이웃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는 뚜렷한 고향의 추억이 사라진 시대이다. 이런 가족적 이해 개념이 개인주의, 배타주의로 되어진 시대 경쟁심의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와 관심과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들어 우울증 환자가 700만 명이 된다는 보고가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이웃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며 목회자는 이런 전인적 돌봄의 목회 방향을 설정해서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기춘은 여러 가지 교역의 형태 가운데서 목양의 목회를 인간의 자각과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목회 모형이라 하고 목회 모형이란 인간의 언어와 신앙과 가치가 특수한 공동체의 욕구에 반영되어 신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공개적인 체제를 말한다고 한다.¹⁴¹⁾

제 5 장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의 원리와 그 적용 사례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에서 '전인적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2장에서 이미 설명했다. 전인적이란 영적, 심적, 육적, 가정적, 사회적인 면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전인적 목회 돌봄의 기본이 되는 영적, 심적, 육적인 면의 기능을 살피고 어떻게 전인격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해 갈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제 1 절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의 원리

1. 전인 기능

목회는 양들의 전인격을 돌보는 것이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전제 조건은 양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다(갈 27:23).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도 양들의 이름과 모든 형편을 아주 잘 아셨다(요 10:3, 14).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교육은 사람,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목회 신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목회의 본질을 인간의 이해에 두고 있다. 특별히 트루나이젠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목회학은 회개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목회 대화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본질로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회는 대상인 인간을 참되게 인식하는 데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의 노력도 오늘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성서에 의한 인간 이해는 어떠한 인간 이해와는 대립 관계에 있다. 그런데 목회의 이론과 실제는 전제되어있는 인간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형태

141) 이기춘, *교류분석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120.

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간 이해의 성격이 목회의 본질을 결정해준다.¹⁴²⁾

목회적 돌봄을 위해 인간의 이해가 이처럼 중요한 목회의 본질이지만 본 논문의 주제 안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인적 목회 돌봄을 위한 면과 인간의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해하고자 한다.

전인치유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행열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창 1:26-28).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였다(요 4:24).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존재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은 항상 육신을 입고 있는 영(incarnated spirit)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사람은 영(spirit)으로서 혼(having soul)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고(living in the body)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⁴³⁾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말을 이해하는데에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초대 교부들인 오리겐, 클레멘트, 닛시의 그레고리 등의 주요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육의 구조로 이해했다. 루터는 이 교부들의 이론을 지지하면서 이것을 인간의 본성의 구분이라 하지 않고 인간은 일체적인데 세 가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¹⁴⁴⁾ 칼빈 역시 인간의 본질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한 인간 안에는 인격적 통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⁴⁵⁾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따라 인간은 일체적이며 통전적인 생활과 관계적인 면에서 세 가지 성질(quality)과 세 가지 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전인의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탐 마샬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함의 회복과 같다고 하면서 전인의 기능은 각 영역이 인식하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 연관을 맺는 것으로 보았다.¹⁴⁶⁾

142) Thurneysen, 목회학원론, 57-58.

143) 박행열 편, 전인치유사역 (서울: 나·임, 1993), 25.

144)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vol. II (서울: 연세대 출판부, 1993), 48.

145)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1), 42.

146) Tom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Free Indeed), 예수 전도단 역 (서울: 예수 전도단,

최정성은 영성 목회를 강조하면서 목회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전인성에 대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꼽는다.

앞으로 목회현장에서는 기독교적 영성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 인간, 세계라는 관계적 차원으로까지 성숙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인성의 중심을 둔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전인성' 계발로서의 영성목회를 오늘날 평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 인간의 탐구라는 측면에서 공언할 수 있다고 본다.¹⁴⁷⁾

전인적인 성질, 전인의 기능은 이처럼 관계를 위한 것이다. 전인적 기능의 영역별 관계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로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둘째로 혼의 기능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며 대인관계를 맺는다. 셋째로 몸의 기능은 자연 세상을 의식하고 환경과 관계를 맺는다.¹⁴⁸⁾ 좀 더 나아가 전인격이 세 가지 성질 면에서 각 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적 기능

(1) 직관

찰스 솔로몬은 영의 고유한 기능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직관, 양심 그리고 영교이다.¹⁴⁹⁾ 좀 더 구체적으로 마샬의 설명을 따르면 직관은 어떤 중간적인 정신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모든 즉각적인 의지, 판단 또는 통찰이다. 공부하고 배워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창의적인 통찰이다.¹⁵⁰⁾

1989), 5.

147) 최정성, *영성 목회 핸드북*, 30.

148) 박행렬, *전인치유사역*, 26-29.

149) Solomon, *풍성한 삶*, 17.

150)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19.

(2) 양심

양심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심적인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면의 기능이다. 양심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선악을 분별해 낼 줄 아는 능력이며 또 하나는 선을 추구하려는 힘이다. 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양심의 기본이기 때문에 양심은 영적인 기능이다.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이 바르게 되어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 양심의 판단은 문화와 국가 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서게 된다.

(3) 영교

영교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짐승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최우선이다. 거듭난 후에는 역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제하며 교통한다.

나. 심적 기능

혼의 기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지, 정, 의의 기능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

지적 기능은 지성적이며 생각의 기능이다. 지는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따지며 이해하며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지적기능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 지는 습득하고 배워서 알며 생각하고 판단한다.

(2) 정

정은 느끼는 감정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인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 정이 상처 받을 때 마음이 병이 생기고 고통이 있다.

(3) 의

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며 열망하는 것이며 지적 기능이다. 정적 기능이 결정한 것을 행동하는 결단이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성취감이 약하며 결단이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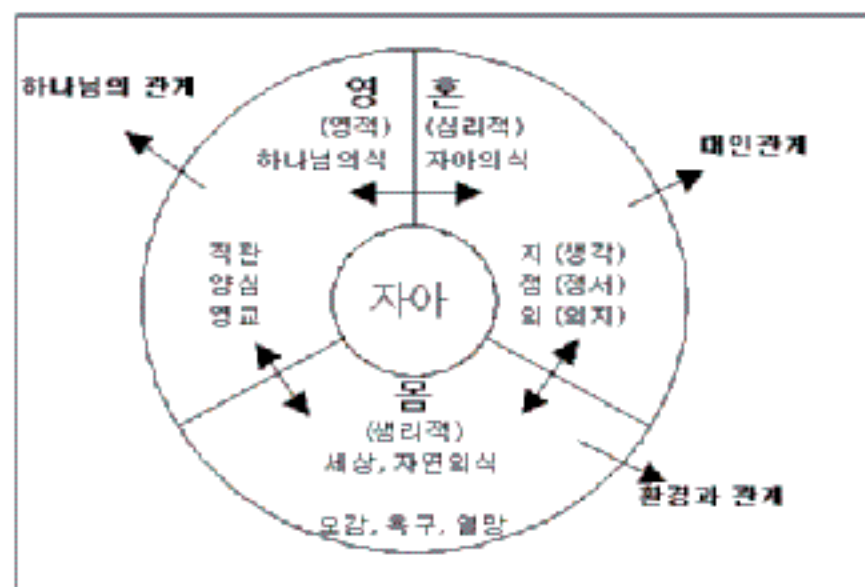
다. 육의 기능

(1) 오감

육은 단순한 인간의 몸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육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을 가지고 듣고, 보고, 만지고, 맛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존재를 위한 것이다.

(2) 열망, 욕구의 총체

인간이 타락함으로서 육은 인간 안에서 죄의 원인이 되었다. 자기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열망, 욕심, 필요를 찾는 욕구의 총체이다.¹⁵¹⁾ 이 전인의 기능을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¹⁵²⁾



<그림 1> 전인 기능

151) Tom Marshall, *깨어진 관계의 회복*, 15.

152) Charles Solomon, *풍성한 삶*, 17.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인은 영, 혼, 몸이 서로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체적이면서 세 가지 면의 성질이 각각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다.

2. 전인적 장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영역의 관계를 조화롭게 잘 맺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영, 혼, 몸이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전인적 장애라 한다. 이 깨어진 관계의 단절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영적 죽음이며 대인관계가 깨어진 것은 인격적, 사회적 죽음이라 할 수 있고 환경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육적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영역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는 나머지 영역에도 차례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⁵³⁾ 이 깨어진 관계를 심리학자들은 질병으로 본다. 오성춘은 이 깨어진 관계의 장애를 치유 받아야 할 전인적 질병으로 정의했다.¹⁵⁴⁾

가. 영의 장애

인간의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영역에 심각한 장애, 질병이 온다. 이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영적인 장애를 돌보는 데 부모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마샬은 그의 다른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역동적이 된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도구적인 것”¹⁵⁵⁾이라고 했다.

영적인 장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고(엡 2:2), 진노가 있고(출 2:2),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시 51:10-12), 결국 죄책감 속에 살게 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153) Solomon, *풍성한 삶*, 16.

154)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321-322.

155) Tom, Marshall, *깨어진 관계의 회복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6), 23.

나. 심적 장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인 장애가 오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심적 장애를 겪게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억압 등이 매우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으로 발전된다. 이 심적 장애의 대표적인 것은 열등감, 불안감, 부적당감, 염세, 두려움, 적개심 등 피해의식과 증오심이다. 이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리고 치유가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다. 몸의 장애

영적, 심적 장애가 옴으로써 육체의 장애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전환증 또는 전환 장애(conversion disorder)라 한다.¹⁵⁶⁾ 전환증으로 오는 육체적 장애는 신경성 위궤양, 발진, 천식, 두드러기, 급성복통, 호흡장애, 탐닉, 만성피곤, 불면증이다.¹⁵⁷⁾

3. 전인적 성장과 발달 과업

가. 전인적 성장의 개념

앞서 밝힌 대로 전인적 목회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해서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전인적 목회 돌봄의 목적을 위해 전인격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은 목회자의 핵심적 사역이다.

전인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전인격이 바르게 잘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은 영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 영의 기능이 바로 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혼과 육의 장애가 제거되고 혼과 몸은 영의 영향에 의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이 원리를 체계화한 찰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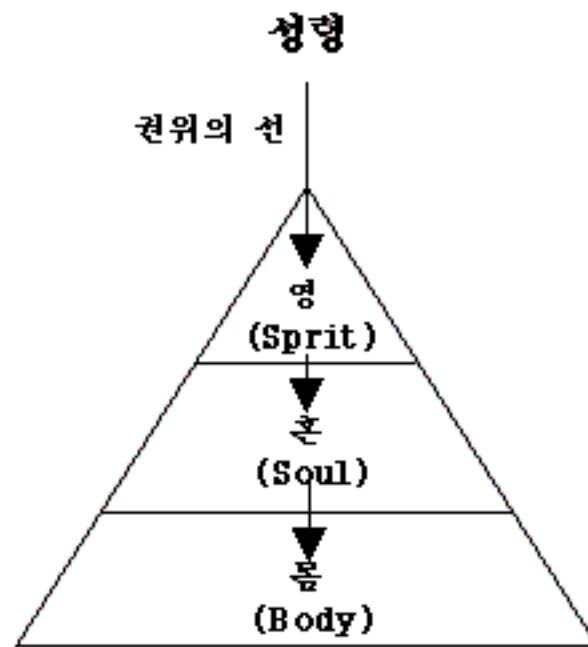
자아가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생활을 지배하

156) 박운수,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기획, 1994), 268.

157) Solomon, *풍성한 삶*, 35.

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무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지배할 능력은 없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끔 되어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¹⁵⁸⁾

마살도 이를 뒷받침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몸을 다스렸고 그의 영이 마음을 다스렸고 성령님이 그의 영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¹⁵⁹⁾



<그림 2> 성령의 다스림

무엇보다 영의 성장을 통해 혼과 몸이 함께 성장한다. 몸을 통해 혼과 영을 성장시킬 수 없고 영이 성장을 통해 혼과 몸이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우선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 성행되는 내적치유 수련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순간에는 정화 감정을 느껴 치유된 것 같지만 일주일도 못 되어서 대부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 영적인 성장이 우선 되지 않고 혼을 통해 치유하려 했기 때문으로 본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증거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

158) Solomon, *풍성한 삶*, 28.

159)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64-65.

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다. 곧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면 육체도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정을 표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보다 성숙해져가는 관계를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뜻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이론도 인간의 전인격이 각 영역별로 관계가 성장해갈 때 먼저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새롭게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마샬, 오성춘, 박행렬 등의 전인적 성장, 전인적 건강과 치유 사역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목회적 돌봄의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삭개오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 그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며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간이 그가 관계하는 모든 면에서 성숙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의 얻게 되는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이며 성숙이며 구원이다. 그런 면에서 다소 생소하나마 ‘전인적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¹⁶⁰⁾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 본대로 전인적 성장의 개념은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혼의 기능과 육의 기능이 함께 성숙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 전인적 성장의 발달 과업

전인적 성장의 발달과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마다 전인적 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5년 된 성도나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된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똑같은 말씀만을 받는 것으로만 그쳐 버리고 개인적인 체계적, 단계적 돌봄이 없다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아 혼자 커야 하는 것과 같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성숙

160) 최정성, 영성 목회 핸드북, 20-21.

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 동안 이런 체계적인 개인적 돌봄이 없었기 때문에 새 가족 정착률이 매우 낮았다.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 이탈할 확률이 66.7퍼센트(98년 한미준 꺾림조사)나 된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일정한 체계적 단계를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이성장의 단계마다 반드시 성취해야할 발달과업이 있는데 이것이 마땅히 충족되지 않을 때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다. 영적 성장의 단계와 발달과업

영적 성장은 인간의 영이 거듭난 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적인 면의 체계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 이 거듭난 자들의 체계적 돌봄을 위한 성경적 모델은 무엇인가?

김요한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때까지 21단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개인적 성장의 모형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으로 살아왔던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오늘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불신의 세상을 떠나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겪은 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운명한 그 어느 날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곧 한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구약적 모형이다.¹⁶¹⁾

명성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것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자의 신앙여정의 문제로 보고 그 여정의 단계, 단계에는 반드시 성취하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의 과업이 있다고 보았다.¹⁶²⁾ 사도 바울의 교리에 의하면 개인의 영적 성장은 선택, 소명, 칭의, 영화(롬 8:28-30)의 과정으로 보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 육에 속한 신앙, 신령에 속한 사람(고전 3:1-4)의 단계로 보았다.

리처드 피스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영적 순례(spiritual pilgrimage)라고 정의하고 영적순례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순례라

161) 김요한, *21단계 구원에서 성숙하자* (서울: 나침반사, 1991), 9.

162) 명성훈, *성령과 함께* (서울: 크레도, 1993), 24.

고 본다.¹⁶³⁾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가지 단계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과제는 개인이 영적인 순례의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결정한다. 둘째 과제는 그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인식한다. 셋째 과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넷째 과제는 위에서 찾아진 방법대로 대처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한다.¹⁶⁴⁾

피스의 정의대로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 단계별 체계적인 돌봄이 성취되어야 한 단계, 한 단계로 발전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하나님 탐구와 깨달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이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제 2단계는 회심이다. 회심은 하나님을 찾던 구도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생활로 성숙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 되는 단계이다.¹⁶⁵⁾ 모든 성도들이 이 경험을 확실하게 붙들게 해야 한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거듭, 거듭 간증한다(행 22:1-24:26:8-18). 회심은 바울의 경우처럼 갑자기 되어질 때가 있는가하면 아주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자들도 많다.

제 3단계는 구원의 확신이다. 신앙생활을 통해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 구원의 확신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후 13:5)라고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이 유일한 구원의 증거요 확신임을 말한다(롬 8:15-16; 고후 5:5; 엡 1:13-14

163) Richard Peace, *Pilgrimage: A Hand Book on Christian Growth*,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Fall 2003.

164) Richard Peace, *소그룹의 전도와 목회*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ummer 2003), 1.

165) Richard Peace,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99-100.

4:30) 요한 역시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성령의 내주로 인정한다(요일 5:5-12).

목회자가 성도들의 개개인의 전인격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돌봄의 내용이 이것이다. 개개인이 영적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이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물 세례는 구원의 확신과 증거를 주는 표이다(벧전 3:21).

제 4단계는 성화와 제자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40년 생활은 애굽의 사상, 습관, 문화, 죄를 다 버리는 훈련의 장이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에 순종치 않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당했다. 목회적 돌봄은 훈련이다. 일반적인 사랑만 쏟고 나면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제 5단계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체험이다. 명성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

홍해를 넘는 것이 유월절 체험이라면 요단강을 넘는 것은 오순절 체험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체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은사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¹⁶⁶⁾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범을 보이며 훈련하셨으나 그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눅 4:48-49; 행 1:4-5:8).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담대하고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 양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양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성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 이어야 한다.

166) 명성훈, *성령과 함께*, 25.

이성호는 전인교육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인교육은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을 길러 내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 보고 전인이 되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가 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선생들의 가르치는 행위가 전인적 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⁶⁷⁾ 이 말은 목회자에게도 동일하다. 전인적 돌봄 목회는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먼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께서 담임목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6단계는 사역훈련이다. 사역훈련은 은사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의 훈련이다. 영성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은사훈련 등의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제 7단계는 파송 재생산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성장의 단계 단계마다 반드시 이루고 넘어가야 할 과업이 있다. 목회적인 용어로는 돌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의 단계가 있다. 성장이 조금 빠르고 느릴 수는 있으나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아이가 태어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고 뛰고 말을 배우는 단계를 누구나 거치듯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단계적 돌봄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연조, 경력만 보고 직분을 맡기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반드시 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체계적인 돌봄이 있어야하고 그 단계, 단계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만큼의 과업을 이루어야 다음 단계로 성숙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성장은 계단과 같고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라. 심적 성장의 단계와 발달과업

심적 성장은 마음과 정신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격의 성장, 성품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여러 목회 신학자들과 목회 상담학자들의 이론대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전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영이 거듭남으로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167) 이성호,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문이랑, 1994), 20.

자로 신분과 소속이 근본적으로 변화 되었으나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거듭난 후 말씀과 기도, 많은 훈련을 통해 차츰, 차츰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가는 것이다. 거듭난 후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성격과 인격, 성품이 변화되고 성숙해 지지 않아 인간관계에 실패한다면 그는 전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신앙이 체계적으로 자라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단계에 까지 자란 성도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서 예수님 같은 인격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도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은 있으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다. 따라서 전인적 돌봄의 목회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 영적인 면만 성숙하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도록 돌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 교회의 목회 사역은 이 부분이 매우 약하고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돌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성장처럼 심적 성장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반드시 성취해야만 할 과업이 있다. 심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은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없고 반드시 한 단계에서 심적 성취감, 발달과업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성장이 가능하다.

프로이드는 그가 정립한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인간의 정신이 병든 것은 어린 시절의 성장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인격 성장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발달과업을 제시했다.¹⁶⁸⁾

제 1단계: 구순기(0-1세) 발달과업: 사랑, 만족, 제 2단계: 항문기(1-3세) 발달과업: 용납, 수용, 제 3단계: 성기기(3-5세) 발달과업: 동일시, 제 4단계: 잠복기(5-13세) 발달과업: 지식, 운동으로 승화, 제 5단계: 사춘기(13세 이상) 발달과업: 나눔

칼 융(Carl Jung)과 에릭 번(Eric Berne), 펙(Park) 등 여러 심리학자들은 조금씩 변형된 이론을 말하지만 같은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돌보아야 할 심적 성장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발달과

168) 박운수,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경성기획, 1994), 112-116.

업은 무엇인가?

제 1단계는 관계 쌓기다. 일반 상담 심리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내린 상담의 정의를 보면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간의 개별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¹⁶⁹⁾이라고 했다. 릭 워렌(Rick Warren)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시는 것은 그 분의 본성이시다. 그 분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신다”¹⁷⁰⁾고 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정신이 병들어 부적을 자가 되어진 것은 관계의 두절 때문이다. 관계는 사랑의 분량이다.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관계 성도와 성도간의 건강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게 된다.

이 관계 쌓기는 목회와 상담의 기초이다. 관계 쌓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여야 한다.¹⁷¹⁾ 도움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하게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까지 발전되지 않으면 돌봄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교회는 서로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 쌓기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한다. 심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의 두절이나 어려움이다. 관계 맺기 또는 관계 쌓기는 멘토링과 지도력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¹⁷²⁾

제 2단계는 대화이다. 관계 쌓기가 성숙해져서 서로를 조금 깊이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일상의 대화에서 좀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대화는 기습인데 상담학의 기초에서는 경청의 기습이라 한다. 그저 평범한 대화 일지라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다. 지승룡은 대화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마음이고 마음을 바꾸는 건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로고스’(Logos)”¹⁷³⁾라고 했다.

트루나이젠은 대화로서의 목회 곧 목회 대화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169) 한국치유상담학회 (편),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초* (서울: 한국치유상담연구원, 1995), 8.

170) Rick Warren, *The Purpose Driven Life* (Quezon: Purpose-Drive Ministries, 2004), 117.

171) 한국치유상담학회,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초*, 18.

172)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1999), 14

173) 지승룡, *선배처럼 살아라* (서울: 규장, 2004), 78.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기까지의 모든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말은 물론 목회 대화에 있어서도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 구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한다.¹⁷⁴⁾

그런데 이 목회 대화에서 목회자가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목회 대화는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조금 듣고 쉽게 판단해서 책망하고 정죄하거나 그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해주고 일방적으로 목회자의 지시에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설교이지 목회 대화가 아니다. 성도들의 인격과 정신, 성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목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목회자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할 목회 대화의 원칙은 상대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깊이 있게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¹⁷⁵⁾

따라서 전인적 목회 돌봄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 교회의 일꾼들(교사, 목사, 구역장, 장로 등)에게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고 진정한 인간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 신뢰성이 바탕이 된 더 나은 성숙을 위한 대화는 멘토(mentor)와 멘토리(mentoree)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하워드 라이스는 영적 지도로서의 영혼 돌봄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깊게 들어주는 지도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는 것이 목회적 돌봄의 기본이고, 이것은 영혼의 돌봄과 영적지도, 그리고 목회 상담의 공통점”¹⁷⁶⁾이라고 했다.

제 3단계는 자아 인식과 해석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 상대방이 안고 있는 아픔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석해주고 자신의 자아와 내면의 상처와 쓴 뿌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 분석상담이론을 정립한 에릭 번(Eric Berne)은 이 단계를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번은 인간의 감정이 병든 것은 인간의 자아 속에 있는 세 가지 자아인 어른자아, 부모자아, 어린이자아가 서로 경계를 넘어 오염되거나 전혀 교류하지 않는 배타 때문이라고 보고 이런 병든 감정과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아 구조 상태를 도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

174) Thrunysen, 목회학 연론, 87.

175) Ibid., 114.

176) Rice, 영성목회와 영성지도, 94.

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자아분석은 구조 분석이라 한다.¹⁷⁷⁾ 이 내담자 개인의 자아구조를 분석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이 행동의 근원,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으로 50퍼센트는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내적치유, 전인치유센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원리는 깊은 묵상, 연상, 어린 시절의 추억, 명상 등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받은 감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감정이 병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가운데서 매우 심각하고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불안이다. 불안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실제적인 불안이 있는가 하면 신경증적 불안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다. 또한 도덕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다. 어떤 불안이든 불안은 모든 감정 질병의 근원이다.

둘째는 욕구 좌절이다.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의 욕구나 융의 원 욕 등으로도 표현된다. 어린 시절에 좌절된 욕구가 어른이 되어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에릭 번은 인간에게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보았는데 자극의 욕구, 구조의 욕구, 자세의 욕구 등이다.¹⁷⁸⁾

셋째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과 감정 속에 있는 과거에 받은 상처를 미실다인(W. Hugh Missildine)은 내재과거아(內在過去兒)라고 부르며,¹⁷⁹⁾ 찰스 셀(Charles Sell)은 이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른다.¹⁸⁰⁾

제 4단계는 토설이다. 토설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마음의 상처의 원인들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털어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호 10:12) 마음의 할례(렘 4:3-4) 성령의 세례(마 13:8) 등으로 표현한다. 이 토설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토설은 대화, 눈물, 웃음, 죄 고백, 역할극 등을 통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177) 박운수, *상담과 심리치료*, 241.

178) Ibid., 231, 234.

179) W. Hugh Missildine, *몸에 뻗 어린 시절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종범, 이석규 역 (서울: 카톨릭교리신학원, 1995), 5.

180) Charles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Unfinished Business Helping Adult Children Resolve Their Past)*,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1996), 13.

제 5단계는 용서다. 토설 후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¹⁸¹⁾

제 6단계는 성장이다. 경건의 시간, 예배, 기도, 영적 교제, 봉사 등을 통해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야 한다. 토설하고 치유된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마 12:43-48).

그러면 이런 심적 돌봄의 사역이 과연 교회에서 가능한 것일까? 사랑의교회 소그룹 모임인 다락방에서는 이 내적 돌봄이 매우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제자훈련을 하는 소그룹 리더훈련을 매우 잘 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심적 성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마. 육적 성장을 위한 돌봄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전인건강의 핵심에서 교회가 능력 부여를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전인건강은 영적 전인건강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전인건강의 여섯 차원을 정의 한다. 목회와 상담은 한 인간의 앞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여섯 분야를 통틀어 전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한다. 첫째, 인간의 마음을 복돋아 주는 일, 둘째, 인간의 몸에 생기를 회복시키는 일, 셋째, 다른 사람과의 친밀 관계를 갱신하고 강화하는 일, 넷째, 자연과 생물권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일, 다섯 째, 개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장, 여섯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일이다.¹⁸²⁾

클라인벨의 정의는 전인적인 모습과 건강을 매우 잘 묘사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에서는 육체의 일을 잘 말쑥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다.

181) 김종구, *왜 그럴까요*, 전인치유연구소 (충남: 크리스천 가정사역센터, 2003), 17.

182)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92), 53, 56.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한 교훈을 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전 3:3)라고 했다.

이처럼 육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며 쾌락을 좇으며 방탕하며 질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육체와의 싸움이 쉽지 않아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호소한다.

그러면 이런 육체의 정욕,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방탕을 좇으려는 욕구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제 1단계는 새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은 십자가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새 언약의 피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이는 에스겔을 통한 언약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겔 36:24-27).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과 정결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구를 이겨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제 2단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전인격의 성장과 치유와 건강에 빠질 수 없는 능력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죄와 병을 치유하시며 건강하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과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육체가 점점 건강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성도들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죄악 된 성품들이 변화되고 육신의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고 다름이 그치고 말이 변화되는 일들이 많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영적 만족과 자유를 누린다.¹⁸³⁾ 임마누엘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와 기도원 치유 수련회 등을 통해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바다.

셋째, 제 3단계는 변화의 삶이다. 피스는 회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의 회심예로 돌아섬의 단계를 지나면 변화의 삶으로 발전되는데 그 변화의 삶은 새로운 공동

183)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144-145.

체 안에서의 삶이라고 한다.¹⁸⁴⁾ 성령의 변화시키는 신비한 체험은 각각 개인의 체험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체험 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조금은 멀리 하면서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넷째, 제 4단계는 헌신 봉사의 단계이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헌신이라 할 수 있다. 회심한 자는 회심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 죄를 버리는 것은 소극적이며 봉사, 헌신은 적극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봉사, 헌신해야 한다.

다섯째, 제 5단계는 승리의 생활이다. 승리 생활이란 요한일서 5장 4절을 근거로 모든 의식하고 있는 죄와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욕구 등에서 순간순간 이기는 생활이다. 이런 생활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죄와 욕구의 유혹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전인적 돌봄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이다.

제 2 절 전인적 돌봄의 사례 교회 연구

1. 원주 세계로교회

원주 세계로 교회는 전인적 돌봄, 전인 치유, 전인 건강, 전인적 축복을 통해 놀랍게 성장한 교회이다. 담임목사인 변충구 목사는 전인의 훈련을 매우 중요한 목회정신으로 여긴다. 약사이며 학사장교로 전역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다. 배달 농군학교를 세우고 배달민족의 정신을 깨우는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정신이 목회의 밑바탕이 되어 세계로교회는 전인치유와 건강, 전인 돌봄과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함으로서 대

184) Peace,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90.

형교회로 성장하였다.

가. 교회 성장의 역사

원주 세계로 교회는 1979년에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서 변충구 목사에 의해 개척 설립되었다. 주위에 집들이 거의 없는 산과 농지가 많은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개척초기 담임목사의 은사 집회가 중심이 되어 밤마다 저녁부흥회가 계속되고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들이 일어서고 마음과 정신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또한 담임목사의 설교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시리즈 설교로서 하늘의 법도를 중심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로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하게 되어 원주시 일산동 358-49번지에 약 300명의 원주성전이 세워져서 본격적인 원주 복음화에 매진하게 되었고 1994년에 충주시 교천 2동 383-10번지에 충주성전이 세워져서 현재 건평 350평의 성전이 건축중에 있다.

그후에 원주시 호저면은 예수 제자훈련학교에서 체계적인 수련회와 치유, 돌봄의 사역이 있었고 2001년 1월 예수 사관학교의 성전을 완공하였다. 예수사관학교는 담임목사인 변충구 목사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전인치유, 전인적 돌봄, 전인적 훈련을 위한 체계로 건축되었다. 지하층은 친교실로 2층은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성막모형을 실제 실물크기로 재현했으며 3층은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곳으로 4-5층은 약국과 숙소동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예수사관학교 성전 밖의 50,000평의 대지 위에는 체계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도를 시각화 한 훈련장으로 되어 있다. 세계로 교회는 이제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전인치유, 전인 돌봄의 훈련을 신청하는 교회에 따라 연중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세계로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였고 세계로 교회의 여름 수련회에 본 교회 성도들, 청년들과 함께 약 10회 참여하였으며 세계로 교회의 담임목사인 변충구 목사를 교회로 초청하여 5-6번의 부흥회를 가졌다. 또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었고 매우 중요한 목회 철학이라고 인정되어 임마누엘교회의 모델로 삼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했다.

나.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변충구 목사의 목회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여주신 목회의 원리를 따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3대 사역을 바탕으로 되어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늘의 법도(욥 38:33)로 체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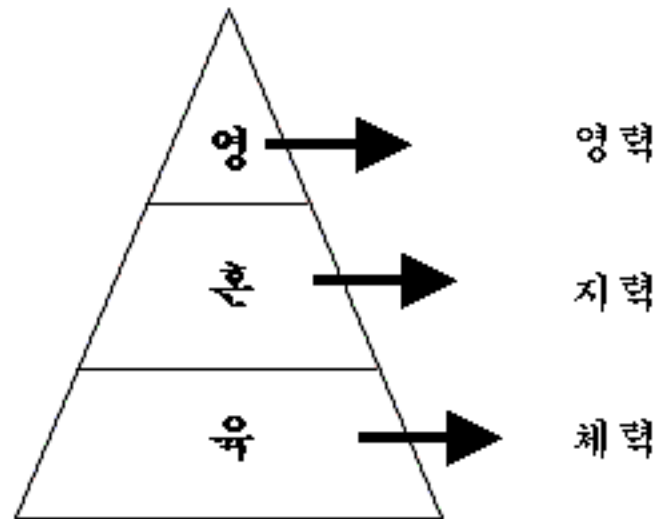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신앙의 결심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마 13:34-35)는 예수님의 탁월한 교육방법인 비유법을 기초하여 본 예수사관학교(JCA: Jesus Cadet Academy) 캠프는 시청각 교육을 위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각종 조각을 제작, 설치하여 자연을 거닐면서 영적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독교 테마공원과 전원교회를 조성하였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는 믿음의 씨앗을 품고 “그가 짊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라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¹⁸⁵⁾ 변 목사의 전인치유목회는 그의 목회사상에서 나온다. 변 목사는 자신을 상의(上醫)라고 생각한다. 변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의사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의 하의(下醫)는 육체를 고치는 사람이고 중의(中醫)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고 상의는 나라를 고치는 의사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나라를 고치는 상의가 되고자 노력한다.

185) 변충구, <http://www.ijca.org/contents.php?mid=menu1&sid=02> 참고 .

다. 전인적 돌봄의 사역

세계로교회는 그 목회철학의 특성상 전인적 돌봄이라는 표현보다 전인적 치유, 전인적 훈련, 전인적 축복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변총구 목사의 치유는 전인 치유이다. 영혼과 육의 치유를 강조하며 그의 축복은 또한 전인 축복이다. 변총구 목사는 설교나 강의 중 자주 전인적 축복인 영혼육의 축복을 <그림 3>과 같이 강조한다



<그림 3> 영혼육의 축복

영력은 하나님을 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은사와 복들을 얻는 것이다. 지력의 복은 지식, 지혜, 사회성, 관계성 등을 의미하며 육적인 복은 건강, 물질, 직장, 가정 등의 복을 의미한다.

이 전인적인 복을 위해 창의력 개발과 가정, 직장 문제까지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전인적 돌봄이란 표현을 했다. 세계로교회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회사역, 예수사관학교사역, 대외사역이다.

(1) 교회 사역

(가) 전인적 돌봄을 위한 예배

세계로교회는 특별히 구별된 예배가 있다. 이는 전통교회와 다른 예배이다.

첫째로 체계화되고 심화된 말씀이다. 변총구 목사는 설교의 핵심을 읊기서 38장 33절의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두고 법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¹⁸⁶⁾ 설교는 칠판을 사용하여 주일오전 예배시에도

186) 변총구 목사가 이해하는 성경의 법도는 하나의 원리, 원칙, 법칙을 의미한다. 성경 안에

칠판에 기록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필기하고 그것을 외우고 생활에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법도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 확신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는 감동이 있는 찬양이다. 매 예배 때마다 뜨거운 찬양이 있다. 다양한 찬양 팀과 각종 악기로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가진다.

셋째로 섬김의 예배이다. 세계로교회의 예배는 장로석이 따로 없다. 장로들이 일반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며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는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넷째는 안수기도다. 예배 후에는 육체적 질병이나 문제를 가진 자들이나 심적 아픔을 가진 자들이 강대상 앞에 물려가 꿇어 앉아 기도한다. 이는 담임목사의 안수 기도를 사모하는 것으로 축도가 끝난 후 바로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한다. 이는 육적 돌봄으로 많은 초대교회와 같은 신유 기적이 일어난다.

(나) 상담

예배를 마친 후 오후시간은 담임목사가 주축이 되어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주로 자녀문제, 심리적 문제, 가정 문제, 진로, 직장문제 등을 가지고 상담이 진행된다.

(다) 교육

반복학습, 설교를 필기한 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교육한다.

(2) 예수사관학교

세계로교회의 예수사관학교는 보통의 기도원이나 수양관과는 그 개념부터가 다르다. 예수사관학교는 중고등부 학생들 이상은 누구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계획되어있다. 이 예수사관학교의 사역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AVE(Audio-Visual Education) 프로그램

AVE 프로그램이란 신앙 성장을 위한 학습활동을 높이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돌판에 기록하여 읽고 마음 판에 새겨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

하늘의 법도가 비밀, 예표, 비유, 예시 등으로 감추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 원리를 세우려는 것이다.

시킴을 위한 시청각 특별 프로그램이다.

AVE 프로그램은 예수사관학교 부지 위에 조성된 다양한 필드 투어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늘의 법도'를 배우며 한 번 교육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시각적 영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체계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네 가지 필드로 되어 있다.¹⁸⁷⁾

본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훈련에 참가신청을 하면 세계로교회에서 훈련 받은 핵심 일꾼들이 교수가 되어 법도에 따라 필드를 돌면서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수정교회의 모습을 방불케 하지만 수정교회의 조형물들은 성경의 내용 중 메타포적 말씀을 그대로 옮겨둔 것이라면 예수사관학교는 상징물과 함께 성경의 법도를 돌에 기록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Victory Field	Vision Field	Glory Field	Holly Hill
승리의 법도 삼간지도 명철의 법도	선의 법도 겸손의 법도 3C의 법칙 3A의 법칙	영적 심장의 법도 영광의 법도	하나님의 이름 지체를 통한 복 소망의 법도 산상수축의 8복

<표 2> 예수사관학교의 프로그램 체계

(나) 각종 수련회

주로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는 예수사관학교의 캠프는 초교파적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관학교 교정에는 말씀과 법도를 새긴 돌 판만 아니라 군 유격훈련장이나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방불케 하는 체력훈련장과 기도실, 기도동산, 야외 예배당, 수영장, 축구, 배구, 농구장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조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체력단련 훈련과 체조, 구보가 실시되고 체력단련과 함께 정신력훈련이 집중된다. 오전에는 법도를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오후시간에는 체력훈련과 정신훈련을 저녁시간에는 찬양과 예배와 뜨거운 기도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적 치유와 영

187) 변충구, <http://www.ijca.org/contents.php?mid=menu7&sid=02> 참고

적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적 돌봄이 있다.

라. 평가

세계로교회의 전인적 돌봄 사역의 결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도들을 정예화 된 일꾼들로 양성한다. 세계로교회의 장로들과 핵심 일꾼들은 교회에서나 예수사관학교 사역에서 담임목사를 통해 배우고 훈련 받은 대로 전인적 돌봄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 핵심 일꾼들은 기존 교회의 부교역자들보다 나은 사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로교회는 교회의 교세와 규모에 비해 부교역자들이 매우 적은 편이다.

둘째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훈련되어 성도들이 확신에 차있고 헌신된 삶이 있으며 구별된 삶이 있다. 세계로교회의 성도들은 일반교회의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 이는 깊이 있는 법도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구별된 삶이 있고 확신이 넘치기 때문이다.

셋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곧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가 있고 심적으로는 지식과 지혜와 사회성이 있다. 육적으로는 체력이 있고 안정된 경제생활도 있다.

넷째는 평신도들도 직장이나 모임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섰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교리가 되지 않는 복이다. 전인적 훈련, 전인적 돌봄의 유익은 그들이 속한 단체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지혜와 자신감을 준다.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담임목사의 비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비대해져서 성인병에 걸린 교회가 아닌 성숙한 교회이다. 현대교회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급성장하여 비대해진 교회가 많다. 비대한 교회란 훈련이 되지 않은 채 성도 수만 많아진 교회이다. 이런 교회는 그 만큼 목회자가 바쁘고 힘들어서 쉽게 지치고 큰 심적 부담을 갖는다. 성도들이 작은 일도 목사를 의지하고 도움 받기를 원하고 심방을 요구함으로써 그 만큼 부교역자를 많이 필요로 한다. 훈련이 안되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일수록 부교역자들의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세계로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 의존적이 아닌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까지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여섯째는 전인적 돌봄이 있는 교회로 영, 육적, 심적인 간증이 많다. 또 뜨거운

기도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간증도 많다.

그러나 이런 매우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성장한 아름다운 전인적 돌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

첫째는 구도자를 위한 조직과 관리가 있어야 한다. 세계로교회는 개인적으로 매우 전도를 잘 하는 성도들이다. 이런 성도들을 관리, 훈련하는 전담부서를 두어 구도자들을 전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는 예수사관학교 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관학교는 말 그대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초신자가 들어와서 훈련 받기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사관학교 전 초, 중, 고 과정에 해당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바나바사역, 알파사역, 열린 모임 등 같은 이론을 적용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던 자나 처음 믿는 자들이나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즉 중간단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 지도자나 간사를 두면 매우 효과적이다.

셋째는 소그룹의 활성화이다. 요즘의 교회는 소그룹을 여러 가지로 정의한다. 셀, 가정교회, 벤처교회 등 이론은 비슷하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교회가 사관학교의 훈련과 더불어 소그룹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서울 목동 제자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는 네비게이트 선교회 간사로 활동한 정삼지 목사에 의해 개척되었다. 목동이라는 새로운 타운의 건설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급성장하여 지금은 장년 출석만 4,000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였으나 이러한 급성장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많은 교회들이 제자교회를 벤치마킹하며 제자교회의 정착양육 원리와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 2003년 셀교회로 전환해서 건강한 전인적 돌봄을 하는 교회이다.

가. 교회 성장의 역사

제자교회는 두 번의 개척이 있었다. 1986년 대학생 15명과 함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3-4개월 뒤 대치동에 교회처소를 마련하여 대학생 중심의 교회를 꿈꾸었지만 대학생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대치동에서의 교회를 정리하고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목동 현대플라자 4층에 1988년 11월 5일 시작되었다. 이때가 두 번째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 개척에 참여한 교회는 장년 8가정과 청년 15명, 예배당 120명이었다. 개척 일 년 만에 장년 160명, 주일학교 149명으로 성장하였고 개척 2년 만에 장년 305명, 주일학교 306명으로 부흥했다. 그 이후로 매년 115퍼센트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만 6년 만인 1994년 장년 550명, 주일학교 505명의 증견교회가 되었다. 1995년 12월 29일부터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1998년 3월 1일 1900여 평의 새 성전 입당예배를 드렸다. 입당한 그 해의 성도는 100퍼센트 성장하여 장년 910명이 되었고 3년 뒤인 2001년 말에는 장년 1,800명, 주일학교 1,300명이 되었다.¹⁸⁸⁾ 교회의 성장으로 2005년 2월에 가까운 교회를 매입하여 건평 1,800평의 제자교회 제 2성전으로 삼았다.

나. 담임목사의 목회 원리

(1) 목회 비전

정삼지 목사의 목회비전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위대한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위대하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이다.
위대한 헌신을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투자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는다.	교회의 사명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고자 하는 교회라면 단지한교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¹⁸⁹⁾

<표 3> 제자교회 목회 비전

188) 정삼지, "21세기 목회 리더십과 교회 성장"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83-85.

189) 제자교회, 제 3화 정착 양육과정 지도자 세미나 (서울: 제자교회, 2001), 11-12.

(2) 목회 철학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교회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된다. 특히 교회 사랑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셋째는 이웃사랑이다. 교회 사랑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3) 목회 전략

첫째는 불신자를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하고, 둘째는 신자를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셋째는 은사대로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넷째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과 성경적인 교회를 재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¹⁹⁰⁾

다. 제자교회의 사역자 운영체계

제자교회는 은사에 따른 사역 배치가 매우 잘된 교회이다. 이미 다른 전체 교회의 조직 또한 매우 체계적이며 잘 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조직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인적 목회 돌봄 차원에서의 사역 원리와 운영체계만을 연구하고자 한다.

담임목사인 정삼지 목사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이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그의 교민은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 서론에 나와 있다.

개인 경험이지만 교회 다닌 지 14년 만에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왜 교회에는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속 양육과 훈련을 받았다. 그런 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개척 초기부터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양육을 시도했다.¹⁹¹⁾

각 단계별 양육, 훈련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제자교회의 양육, 정착, 훈련의 체계는 매우 효과적이며 훌륭하다.

190) 정삼지, "21세기 목회 리더십과 교회 성장," 91.

191) 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제자, 2000), 4.

(1) 바나바 사역

새 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나바를 소개하고 친근히 사귄 수 있는 자들을 소개한다. 바나바 사역은 3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역의 결과는 정착의 극대화, 풍성한 교제 그리고 신속한 사역이다.

(2) 새 교인반

새 교인반은 주로 목회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매달 셋째 주에 새 가족 반에서 실시된다. 교회소개와 담임목사 소개 그리고 교회 전반과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시작을 알린다. 결과로는 목회비전공유와 소속감 공유 그리고 제자훈련 과정으로의 동기부여가 된다.

(3) 확신반

확신반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확신반을 수료한 자들의 결과는 생명력 있고 복음역사와 구원의 확신과 세대의 감격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좋은 출발이 있다.

(4) 성장반

성장반은 부교역자들이 담당하며 14주 과정으로 되어 다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확인시키고 구원 받은 자의 신분과 수준, 죄의 처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상한 마음의 치료와 자존감, 변화와 성숙, 공동체 훈련, 교회, 예배, 영적전쟁, 나눔과 섬김, 드리는 삶, 사역찾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장반을 마치면 개인 신앙이 정립되고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며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

(5) 제자반

제자반은 30주 과정으로 역시 부교역자들이 인도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철학과 교회 비전에 헌신하게 되고 교회와 평신도를 세우고 사역자로 양성하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6) 사역자반

사역자반은 16주 과정으로 교회와 목회비전 중심의 평신도 사역자가 배출되며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의 기술을 배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자로서 무장시킨다.¹⁹²⁾

라. 셀 사역

제자교회는 2000년부터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로 전환했다가 다시 2003년에 셀교회로 전환하여 현재 250개의 셀을 가진 교회로 급성장했다. 셀도 교회 속에 작은 교회로서 가정교회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성도들의 전인을 돌보는 유익이 있다. 셀 리더는 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양한다.

마. 예배와 기도회

제자교회의 예배와 기도회는 매우 감동적이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다. 첫째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대로 감동적이고 뜨거운 찬양이 있다.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두고 찬양을 준비함으로써 감동적인 찬양이 있다.

둘째로 기도회다.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6년간 일 년의 삼분의 이를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열정을 심었다. 초창기 금요기도회의 열정이 뜨거웠고 체험과 많은 간증들이 있다.

셋째는 설교이다. 담임목사의 설교는 본문에 충실한 강해 설교와 쉬운 내용으로 새 가족들도 쉽게 설교를 이해하고 은혜를 받도록 한다. 또한 생활에 잘 적용 할 수 있는 말씀이며 성도들에게 위로, 용기,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데 초점을 두었다.

넷째로 은혜 있고 영성 있는 예배를 위해 예배의 갱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갱신되지 않은 예배에 습관화 되고 타성에 젖기 쉽다. 그래서 예배는 늘 새롭게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주일오후예배는 외부 강사를 많이 초청하여 전문적인 말씀이나 간증을 듣게 한다.

192) 정심지, 제 3화 정착 양육 지도자 과정 세미나, 6-7.

여섯째는 매우 감동적인 세례식이 있다. 세례식에 앞서 구원 간증문 낭독이 있고 세례 후 축하 시간을 함께 가진다. 세례를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날로 기억되도록 영적 감동을 연출한다.

바. 평가

제자교회의 체계화된 전인적 돌봄의 평가에 있어서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새 가족이나 이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자들이나 매우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누림이 확고하다. 둘째는 설교와 단계별 양육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의 안정과 인격을 돌봄으로서 정착률 97퍼센트의 놀라운 결과를 가졌다.¹⁹³⁾ 셋째는 대형교회이면서도 바나바 사역과 셀 사역으로 인해 가정적인 분위기의 사랑을 느끼며 공동체의 동질감을 가지게 된다. 넷째는 목회자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헌신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 담임목회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돌봄을 통해 성도들 개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스스로 사역자 반에 동참하게 함으로서 목회자나 당회의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여섯째는 성도가 수적으로만 많아져 비대해진 교회, 비만증에 걸린 교회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곱째는 감동이 있는 예배와 세례 그리고 체계적인 돌봄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영성이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함으로써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함으로써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수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 보완점

전인적 돌봄의 체계적인 돌봄을 위해 육적인 건강과 평안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한다. 육적 치유와 돌봄을 위한 기도, 예배 후에 안수 기도나 치유세미나 등을 통해 육적인 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본다.

193) 정삼지, *확신 있는 제자* (서울: 제자, 2000), 4.

제 6 장

임마누엘교회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과 21세기 효과적인 목회 전략

지금까지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의 이론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 이론에 근거한 임마누엘교회의 실제적인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정리하고, 본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21세기 효과적인 목회 돌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임마누엘 교회의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

1. 임마누엘교회의 성장 역사

가. 설립과정

임마누엘교회는 1977년 2월 17일 성결교 여전도사 김만하 씨에 의해 감리교회를 다니던 2-3명의 여집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서울 연희동에 소재한 연희교회에서 농어촌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역을 물색하던 중 강화에 장로교가 거의 없음을 알고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초대교역자는 김만하 여전도사였다. 김만하 여전도사가 6개월 만에 사임하고 8년 동안 다섯 명의 목회자가 바뀌었고 본 연구자는 여섯 번째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

2-3명의 60대 여집사들은 한 번도 장로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전통적인 감리교 신자들이었다. 본 연구자가 1985년 5월 13일에 부임할 당시 성도들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전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약 50명 정도가 회집했던 교회였는데 전임 목회자와의 갈등문제로 성도들 중 대여섯 가정은 불교로 개종을 했다. 그들은 당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일꾼들이었다.

이들이 불교사찰인 해운사로 옮기는 것은 우리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들에 있어서도 큰 충격이었다. 또한 그 해운사라는 절의 주지승은 옛날 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하다가 주지가 된 자였다. 이런 영적인 방해와 대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다. 그리고 약 30퍼센트의 성도들은 감리교회로 옮겼고 약 30퍼센트는 교회를 포기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매우 악화되어 본 교회는 돈만 강요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에 편만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다.

나. 지역적 상황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강화도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해 있다가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강화군은 13개의 면에 약 7만 명의 인구가 있었으나 해마다 줄어 지금은 약 6만 명의 인구가 있다. 본 교회가 속한 강화 본도인 강화읍은 약 2만 3천명의 인구가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강화의 가장 변두리인 지난날 선착장이 있었던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 개척 당시 마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방해를 해서 48번 국도를 건너 주먹이 전혀 없는 마을 밖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구체적인 지역적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강화는 섬지역이면서 옛날 왕정시대에 정치적 인물들이 많이 귀향을 살던 곳이다. 강화는 귀향살이 하던 버림받은 섬으로 여겨졌으며 그만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다. 안평대군, 홍선대원군, 연산군, 철종 등 왕족들과 정치적 패배자들이 유배되었다.¹⁹⁴⁾ 또한 6·25를 겪으면서 북한의 개성시, 연평군 등에서 피난 나온 자들도 많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부의 세력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로 강화는 폐쇄적 배타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대부분의 섬지역의 특성이 그렇겠지만 특히 강화는 여러 가지 외세의 침입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다. 운양호사건, 병인양요, 병자호란, 신미양요 등이 있었고 한일합방을 위한 강화도조약이 맺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런 큰 외세의 침략뿐 아니라 일본 상선의 수많은 침입으로 약탈을 많이 당했다.¹⁹⁵⁾ 이런 외세의 크고 작은 침략을 많이 받은 강화도는 외부

194) 이석주, 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 강화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1994), 31-32.

195) Ibid., 34-48.

인에게 특별히 배타적이어서 전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외부인이 강화에 들어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셋째로 강화는 여성의 역할이 더 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여인들을 뽑으면 바로 강화여성들이다. 강화에는 이런 말이 있다. “강화 여자들은 엄동설한에 알몸으로 뛰어도 백리를 간다.”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강한 반면 많은 남자들은 도박과 술 취함, 게으름에 빠져있었다.

넷째로 강화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 많은 곳이었다. 부임 당시 교회 주변 마을에는 알코올중독자, 중풍병자, 정신질환자 등이 매우 많았다. 그 이유인즉 강화는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했다. 많은 가정의 부부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자녀 낳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특별히 강화 성심병원 원장과의 대담에 의하면 강화는 옛날에 근친상간, 근친결혼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외부에서 결혼을 해서 강화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친결혼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과 각종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아주 많았다. 이런 자들이 임마누엘교회 두 번째 전도 대상자들이었다.

다. 종교적 상황

(1) 샤머니즘의 성향

강화군민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먼저 강화는 단군의 성지이다. 강화 마리산 정상에는 해마다 전국체전 때 성화를 체화하는 참성단이 있다. 이 참성단은 단군과 그 아들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마리산 아래는 한얼교 신전이 있고 교육원이 있다. 단군을 섬기고 단군교와 한얼교, 단전 호흡사, 무당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다. 참성단은 그 후에도 고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린 곳이다.¹⁹⁶⁾

둘째로 강화는 미신이 매우 강한 곳이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강화는 무당이 매우 많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미신의 우상을 만들어 두었다. 본 연구자가 집집마다 돌아보면서 축호전도를 할 때 우상의 물건

196) 이석주, 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51-52.

들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 특별히 임마누엘교회 주변에는 무당들이 많았다.

셋째로 강화는 불교의 중심지였다. 강화에 유명한 사찰이 세 곳 있다. 단군의 신화를 가진 전등사, 보문사, 선원사이다. 선원사는 불교의 가장 큰 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곳이다.¹⁹⁷⁾

(2) 개신교의 상황

첫째, 강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간에 교회는 오직 감리교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감리교 외에 다른 교단의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이며 배신, 불순종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강화사람들의 의식이 그렇다.

둘째로 해방신학, 사회구원에 중점을 두었다.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들과 교회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 상황에 따라 개인구원보다는 해방신학에 따른 운동과 사회구원운동이 있었다. 부임당시 개인전도나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가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임마누엘교회 전도팀이 전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이나 개인구원에 앞장선 교회들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강화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통일, 사회문제에 대한 설교에 중점을 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에 앞장 선 경우도 있었다.

셋째는 교회의 쇠퇴이다.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해 가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놓여준 교회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없고 연세가 든 성도들이 많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한 두 교회의 성장도 새 가족의 성장이 아닌 수평이동의 성장이다. 교회의 쇠퇴가 한국교회의 전체적이 현상이지만 강화도에 속한 교회들이 쇠퇴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도화 된 교회”¹⁹⁸⁾라고 했다. 스나이더의 말처럼 이 지역 교회는 대부분 불신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다름과 분쟁이 있었다. 이런 현실이 신앙이

197) 이석주, 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53-54.

19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4), 11.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타 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넷째는 교육과 목회 패러다임의 부재이다. 강화는 문화와 정보가 늦는 것이 큰 문제였지만 교회 역시 생기를 잃고 있었다. 당시에 강화에 속한 교회들은 제자훈련이나 전도훈련, 교육 프로그램, 가정 학교 등을 실시하는 교회가 전무했다. 단지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방법에 따라 주일에 예배하고 심방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회들마다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성인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일학교는 매우 성장이 안 된 상태이다.

라. 성장기의 사역

본 연구자가 임마누엘교회에 부임해서 교회가 안정하게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은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주일학교 사역이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건평 80평과 사택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으나 성도들은 다 떠나고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오직 주일학교 아이들만 2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다년간 봉사하고 유년 주일학교 전도사로 4년 동안 목회했던 경험을 살려 주일학교 부흥에 목회의 온 힘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유치부에서 초등학생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초대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역의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아이들이었다. 당시 교사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담임목사의 체제로 주일학교를 운영해서 후에 유치부 예배는 따로 드리게 하고 또 몇 년 뒤에는 유년부와 초등부를 분리하면서 220명의 재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교회 부임 초기에는 주일학교 부흥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는 지역 주민 종교 실태조사였다. 교회에 부임해서 2년이 지나서야 약 20-30명의 장년 성도가 출석하게 되었다. 이들을 통해 마을 전체의 가정별로 주된 종교 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전도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종교 실태 조사를 통해 불교인, 천주교인, 미신을 섬기는 자, 처녀 때 교회를 다녔다가 결혼 후 신앙을 잃어버린 자,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자,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자 등등 이전에 교회와 관련이 있었던 자들을 우선적으로 전도하고 부지런히 심방해서 그들을 일군으로 세웠다.

셋째는 사회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교회의 환경은 매우 어려웠지만 지역 사회의 장애자들 모임이나 특히 치매 노인들과 정신박약아 소년소녀 자정들을 수용한 시설에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가서 도움을 주었다. 당시에는 한 개의 여전도회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역이 최전방에 위치한 것 때문에 주위에 군부대가 많아 둔 부대 위문을 자주하고 군부대 예배를 인도했다. 그로 인해 매 주일 부대 내에 교회가 없는 해병대 군인들이 많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넷째는 수련회와 간증 집회에 중점을 두었다.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에 대한 배척이 매우 심한 때에 일찍부터 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부 수련회에 힘을 들였고 연예인이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가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낯설지 않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힘써서 마을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과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었다.

2. 전인적 돌봄 목회로의 전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기존 교회의 모습대로 매달 제직회를 하고 세 개의 여전도회와 두 개의 남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구역도 10개가 넘었으며 성가대가 조직되어 예배를 돕게 되었다. 이런 교회의 조직은 전통적인 장로교의 조직과 사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자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제자훈련과 전통교회의 조직구조가 상충되어 교회가 중심을 잃게 되고 갈등과 혼동을 겪게 되었다. 아예 전통 조직 체제로 운영하던가 아니면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처럼 조직을 유기체로 전환해야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 기존 전통교회의 조직체제 대신 유기적인 체제로 그리고 전인적 돌봄 목회의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가. 전환의 동기

임마누엘교회는 제자훈련이 기초된 교회이면서 역동적인 예배와 성령의 은사와 세례와 기름 부으심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나 교회의 조직이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 남·여전도회에서 이런 저런 불평, 불만들이 많았다. 교회의 행사 때마다

구역에서 돈을 모으고 또 남여전도회에서 회비나 찬조금을 거두는 것 등 이중적이라는 불평들이 많았다. 또한 성가대는 특전 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싫어하며 연습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이것을 하나의 조직,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야 할 심각한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에는 셀교회나 자연적 교회성장, 벤처교회, 가정교회,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던 때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최영기가 쓴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중국 신학교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중국 광야교회의 조직체계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갈등과 동기들에 의해 교회의 조직을 단일화 하고 전인격을 돌보는 목회로 전환하고자 기도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 전환의 근거

교회의 조직을 전인적 돌봄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당회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성도들의 습관에 젖은 기존 전통의 조직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사임을 해야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 당회원들과 성도들을 가르치며 고정관념, 전통적 구조를 버리고 의식을 전환하고 사고를 전환하는데 노력했다. 성경에는 단일화된 조직이 있었다.

구약시대의 사회 행정적 구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모세(출 18:21-22)였다. 예수님의 조직체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12제자, 70문도, 120명의 보조, 그리고 성도들이었다. 사도바울은 교회 안에 <표 7>과 같이 두 가지 타입의 직분을 가르친다(고후 3:6-11).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는 대부분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효과적인 조직보다는 비효과적인 조직에 중심을 두었다. 당회는 감독하고 권위적이어서 각 부서에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이 될 때가 많다. 이 비효율적인 조직은 교회를 정체화시킨다. 따라서 21세기 교회는 이 비효율적인 조직보다 효과적인 유기체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임마누엘교회는 비효과적인 조직을 버리고 목회적 전인 돌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했다.

비효율적인 직분	효율적인 직분
죽게 하는 직분	살게 하는 직분
육의 직분	영의 직분
정육의 직분	의의 직분
명예의 직분	사역의 직분
소모적 직분	생산적 직분
율법의 직분	복음의 직분
회의 중심 직분	전도중심의 직분
행사 중심 직분	양육중심의 직분
없어질 직분	길이 있는 직분
권위적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등	교사, 전도자, 리더 등
프로그램 위주 직분	사람 중심 직분

<표 4> 두 가지 유형의 직분

다. 전환의 결단

(1) 비효과적인 부서 폐지

1999년 12월 19일 주일은 임마누엘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날이었다. 당회에서 교회의 조직을 전인적 돌봄을 위한 조직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의했다. 이 날의 결의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2000년을 시작하면서 비효과적인 조직을 폐지했다.

먼저는 이름뿐인 남·여전도회를 폐지했다. 당시에 두개의 남전도회와 세 개의 여전도회가 연령별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도가 주 사역이 아닌 친목단체화되고 말았으며 약간의 편당과 완력도 있었다. 이는 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따라서 이 전도회를 과감히 폐지했다. 또한 청년부도 각종 부로 조직되어 있는 모든 부를 없앴다.

둘째로 성가대를 폐지하고 주일 오전 성가대의 찬양시간에 각 부서나 팀들이 돌아가면서 2-3개월에 한 번씩 찬양토록 했다. 성가대 대신 원하는 자들로 중창팀을 만

들어 분기별이나 교회 특별한 행사 때 찬양으로 봉사하게 했고 각 목장이나 부서별 교사들이 특송을 하게했다. 남·여전도회를 폐지했기 때문에 임원회나 월례회나 자체 행사가 없어져서 교회 전체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성가대나 청년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직 교회의 조직이 전도, 양육, 돌봄으로 일원화 되었다.

셋째로 당회나 제직회, 공동의회 같은 장로교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은 명백히 두 되 공동의회는 꼭 필요할 때만 실시하고 제직회도 일 년에 한두 번 예·결산 심의 때만 한다. 당회도 일 년에 두세 번만 모이고 교회 전체가 담임목사의 철학에 따른 전도, 양육, 치유, 교육, 훈련에 동참하게 했다. 이러한 비효과적인 부서를 폐지하고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위해 일하도록 했다.

(2) 구역조직의 개편

교회의 소그룹 모임인 구역예배는 전통적인 구역예배의 형태를 버리고 가정교회의 모임으로 전환했다. 먼저는 구역의 명칭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라고 부르던 것을 구역 대신 목장으로 하고 각 목장은 자신들의 믿음에 따른 고유 이름을 짓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약 30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다. 구역장은 목자로 부르고 기존의 권찰은 돕는 자로 했다. 구역장과 목자의 위치는 같지만 그 사역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구역장은 총회에서 발간한 구역공과를 가지고 예배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고 공과를 가르친다. 그러나 목자는 작은 목사이다. 그 목장을 책임진 목사이다. 처음 목자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수료한 자로 했다. 지금도 제자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목자는 단 한명도 없다. 제자훈련을 통해 목자를 만들고 파송했다. 따라서 목자는 목사의 목회철학을 알고 목사의 비전을 가졌다. 목자는 구역장 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자이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이다.

(3) 교구 및 대교구

구역을 목장제도로 바꾸고 구역장 대신 목자를 두면서 목사 혼자 수십 명의 목자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벅찼다. 그래서 교구와 대교구 제도를 두었다. 목장의 가족은 5-10명이다. 이런 5-10개의 목장을 묶어 교구장을 두었다. 교구장은 자신이 담당할 목

자들을 열심히 돌본다. 교구장은 목자로서 경험이 많고 더 많은 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현재 5명의 교구장이 있다. 이들은 목사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다. 모든 보고는 목자들이 교구장에게 하고 교구장들이 보고를 모아서 대교구장 격인 교구장에게 주고 그 교구장이 교구장 모임을 주도하고 보고한다. 목자들은 담임목사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는다. 목사는 교구장들을 철저히 돌보고 신앙,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전인격을 돌본다.

교구장들은 목사에게 사랑을 받고 배우고 본 바대로 목자들을 돌본다.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 자녀, 부모, 심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상담도 담당한다. 만일 교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담이나 문제들은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목자들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이지만 교구장들은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 교구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전인격을 돌보는 것이 목사의 최고의 사역이다.

(4) 예배의 갱신

돌봄의 예배를 위한 예배의 전환, 예배의 갱신이 있다. 기존의 예배 형식은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틀에 박힌 예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성도들은 단순히 주일 오전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성도의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께 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따분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예배에 생명력을 살리고 하나님께는 진실한 큰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예배의 전환에 힘썼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로 힘썼다.

3. 임마누엘교회의 목회 철학 정립

가. 목회 철학

교회가 시작 단계에서 자립하고 조직교회가 될 때까지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지 못했다. 어떻게든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성장되는 것이 우선이어서 목회가 체계

적이지를 못했다. 이로 인한 귀한 일꾼들이 떠나는 아픔도 있었다. 이런 성장에 따른 아픔을 겪으면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목회 철학이 필요함을 느껴 전인적 돌봄 목회를 위한 철학을 정립하게 되었다.

임마누엘교회의 목회 철학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그 모델을 두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임마누엘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다.

(1) 복음 전파

복음전파는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삶의 목적이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부임 당시 강화지역의 교회들은 개인적으로만 조금씩 전도할 뿐 교회가 체계적으로 전도부서나 전도팀이나 조직을 만들어 전도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교회에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모와 함께 때로는 각각 다른 곳으로 부지런히 전도를 다녔다. 이전에 우리교회에 다녔거나 타 교회에 다니다 중단한 자들이 첫 번째 전도대상자였다. 이런 교회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자들을 거의 매주 한 번씩은 방문을 했다. 그리고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매 주일 오후 전도를 다녔으며 청년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청년들을 데리고 마을 전체에 전도를 다녔다.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화요일에 전도팀을 운영해서 전도하며 여러 가지 전도방법을 훈련하고 전도를 생활화했다. 이제는 담임목사나 사모가 직접 전도하기보다 전도자를 훈련하고 전도팀을 운영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2) 전인치유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 받고 충격을 받았던 책이 찰스 솔로몬의 **풍성한 삶**이다. 이 책에서 솔로몬 박사는 영, 혼, 육의 전인치유를 매우 강조하며 영, 혼, 육을 치유하는 영적치유를 성도들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외과 수술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영적치유, 영적수술은 십자가의 수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¹⁹⁹⁾ 이 내용에 충격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병든

자들을 많이 치유하셨던 것을 근거로 전인치유에 목회의 관심을 두었다.

이 사역을 위해 육체적 치유를 위해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구했고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 약 7년 동안 상담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영적 치유를 위해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많이 간구했다.

이 지역 상황은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귀신들린 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중풍병자, 도박중독자, 불륜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사모와 함께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환자들의 가정을 심방하기도 했다. 이런 수고로 인해 많은 영적 병든 자, 정신이상자, 육체적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도 했다. 초창기 교회는 복음전파와 이 치유의 능력으로 성장했다. 지금도 점점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영, 혼, 육의 전인치유는 아주 중요한 철학으로 삼고 있다.

(3) 교육과 제자훈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두 가지는 교육과 훈련이다.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른들이 금방 부흥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유치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강화에 있는 어떤 교회도 겨울성경학교나 겨울수련회가 없었을 때 임마누엘교회는 겨울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했다. 이로서 임마누엘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났다.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문화의 밤, 영어 등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정신을 새롭게 했다.

강화에 부임한 당시 대도시의 교회들은 이제 막 교회마다 제자훈련의 바람이 시작되려고 할 때였다. 대학생선교회(CCC), 죠이선교회, 네비게이토, 대학생성경읽기(UBFI), 기독교학생회(IVF), 예수전도단 등의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일으킨 소그룹제자훈련이 기성교회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단체들에는 대학 청년들이 몰려가면서 기존 교회의 대학부 및 청년부는 죽어갔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곳은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나 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교회의 부임과 동시에

199) Charles R Solomon, *풍성한 삶*, 99-101.

여러 단체의 교제를 참고하여 제자훈련 교제를 지역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훈련하기 시작했다. 본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자들을 한 반으로 모으고 학생들을 한반으로 만들어서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23기의 제자들을 배출했다.

이처럼 임마누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철학에 근거를 두고 복음전파, 교육훈련, 전인치유에 관심을 두고 사역해 왔고 앞으로도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다.

나. 목회 비전

완전한 구원이란 죄에 빠진 인간의 전인격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자훈련과 말씀과 기도 운동 그리고 전교인 치유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 혼, 육 전인격이 거듭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로 인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4. 전인적 목회 돌봄의 적용

임마누엘교회가 전인적 돌봄 목회로 전환한 후 오직 전도, 양육에서부터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인적 돌봄 목회에 집중하게 되었다. 일원화 된 유기체적 조직이 이를 가능케 하고 효과적이게 했다.

가. 개인적 돌봄

본 연구자와 사모는 1990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치유상담을 연구했다. 그 결과 교회 사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했다. 개인적인 전인적 돌봄은 주로 영적, 심적인 면에 관심을 둔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심적,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떠난다. 그 결과 정신질환과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적 돌봄은 먼저 일대일의 양육이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나 주로 교구장들이 교회에 새로 등록된 새 가족들

을 약 5주 동안 돌본다. 교구장들 나름대로 교육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한 양육 원리에 따라 그들의 영적신앙의 기초를 다진다. 그리고 교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되어준다. 이것을 바나바사역이라고도 부른다.

교구장들이나 목자들의 일대일 양육이 끝나면 목장모임에 참여하고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거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은 목사나 사모가 주로 개인 상담을 통해 돌본다. 그 동안 교회에서 많은 치유가 있었다.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치유되지 못한 우울증환자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기도로 통해 치유되었다.

일대일 양육과 돌봄 가운데 핵심적인 기초는 구원, 거듭남의 확신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지지 못해 불안해하며 두려워한다. 개개인별로 체험이 있으나 그것도 너무 주관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해서 파도와 같이 흔들리며 불안하다. 따라서 새 가족이 등록하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확증을 심어주고 계속적으로 확신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한 개인의 돌봄을 통해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관계도 격려한다. 개인적인 돌봄은 목사만의 사역이 아닌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사역이다.

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심방

임마누엘교회의 심방은 분명한 목적과 돌봄이 있는 심방이다. 전인적 돌봄 목회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심방의 원리를 따랐다. 일년에 두 번 대심방을 하고 환우들을 심방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전인적 목회로 전환한 후에는 대심방을 폐지했다. 전도, 정착, 양육, 제자훈련, 전인치유의 사역이 체계화되어 운영되는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마누엘교회는 전인적 돌봄 심방, 전인치유 심방을 한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나 가정문제가 있는 자들이나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어두움의 영에 매인 자들이 있을 때 해당 목자와 교구장들과 함께 심방을 해서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정도의 심방이 아닌 전인치유, 전인 돌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고, 상담도 한다. 이러한 돌봄을 통해 영, 혼, 육이 병들고 약해진 자들이 많이 치유되었다.

전인적 돌봄의 심방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던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번씩은 규칙적으로 심방한다. 목회자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나 작은 문제나 질병들은 교구장을 중심으로 전인적 돌봄의 심방이 이루어진다.

다. 소그룹을 통한 돌봄

임마누엘교회가 전인적 목회 돌봄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바로 소그룹인 목장이다. 현대의 목회 방법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교회마다 여러 종류의 소그룹이 있다. 임마누엘교회도 교회 나뉠대로 생명력 있고 특색 있는 소그룹을 운영한다. 소그룹은 교회의 중심이다. 이 소그룹의 핵심은 또한 전인적 돌봄이다. 임마누엘교회의 소그룹인 목장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이다. 목자는 그 목장의 목사이며 신앙의 어머니이며 치유자이다. 목자는 기존의 구역장이 아니다. 목장의 예배도 구역 예배와는 조금 다르다. 임마누엘의 목장은 나뉠대로의 특성을 가진다.

(1)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임마누엘교회의 소그룹인 목장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이다. 싱가포르 신앙공동체 침례교회 목사인 로렌스 콩(Lawrence Khong) 목사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가진 교회와 소그룹교회로 구분한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나뉠대로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그룹을 가진 교회와 소그룹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소그룹을 가진 교회는 그 소그룹인 셀을 교회의 여러 부서 가운데 한 부서로 여긴다. 그러나 셀교회는 그 소그룹 자체가 교회이다. 소그룹 외에는 다른 부서가 없기 때문에 부서를 선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셀을 통해 이루어진다. 셀교회는 그 셀 모임을 통해 모든 회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한다.²⁰⁰⁾

임마누엘교회 역시 목장은 바로 교회이다. 목장 외에 다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목장을 통해 영적, 심리적, 육체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는다.

200)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1), 69-71.

(2) 목자는 작은 목사

대부분의 교회에 수많은 소그룹이 있지만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생명력이 없고 쇠퇴하는 소그룹을 가진 실패한 교회도 아주 많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다. 담임목사가 자신의 목회지를 보호하려는 의식과 목회의 권위 때문에 목회자의 고유권한을 목자들에게 과감히 위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목회자가 직접 돌보고 간섭하고 결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목회자가 신비로운 존재로 존경 받으려고 한다. 이런 목사를 가진 교회의 소그룹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소그룹의 생명은 소그룹 리더로 목회자로 훈련해서 목사의 사역을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여기의 목적을 두고 실행한다. 로렌스 콩 목사는 “모든 성도는 목회자”²⁰¹⁾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한다고 말한다. 임마누엘교회는 목자들을 훈련하면서 그들은 목사요, 목회자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한다. 그리고 목자의 고유 권위와 사역을 위임했다. 이전에 목사가 들었던 칭찬과 감사의 말을 이제는 목자들이 듣는다. 이전에 목사가 받았던 사랑과 존경을 목자들이 받고 있다. 이전에 목사에게 오던 감사의 선물도 목자들에게 간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덜 존경하거나 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경하며 사랑한다.

교회가 이종 조직을 가졌을 때는 남·여전도회에서 원망, 불평, 불만, 비난, 비판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목자를 작은 목사로 임명하고 사역을 전폭 위임하고 난후에는 전혀 원망, 불평이나 비난 비방이 없어졌다. 목사의 사역 위임은 가장 힘든 결단이다. 그러나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소그룹의 생명력은 없어진다. 임마누엘교회는 목자들과 교구장들을 매우 존경하며 귀하게 여긴다. 목사는 이들에게 큰 사랑과 칭찬과 감사를 계속한다.

(3) 목장의 중요한 사역은 전인적 돌봄

목장의 얼굴을 마주한 깊이 있는 대화는 놀라운 심적 치유와 유익이 있다. 목장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내적정화(catharsis)가 일어나면서 치유함을 느낀다. 따라서 목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목자가 전통적이 구역장들처럼 공과 책을 들고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식

201)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설교회*, 100-101.

구들의 대화나 아픔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많이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구역장과 목자의 차이이다. 신앙적, 영적, 심리적, 육체적, 아픔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사랑으로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때 특별한 상담의 기술을 모를지라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임마누엘교회의 목장 사역의 특징은 예배가 중심이 아닌 전인적 돌봄이 중심이다. 그리고 전인적 돌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르치기 전에 들어주는 것이다. 리처드 피스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그룹은 대화의 길이 발전된다. 둘째 인생에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자신의 깊은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견해고 발전된다. 넷째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돕고 격려한다. 다섯째 가족 같은 친밀함을 갖는다.²⁰²⁾

(4) 전인적 돌봄의 목표

임마누엘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그룹목장을 통한 전인적 돌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 목장 가족들의 영, 혼, 육의 돌봄이다. 목장모임 순서에서 보여진 것처럼 목장모임은 작은 교회요, 예배이다. 그러나 목자는 전통적인 구역장처럼 혼자서 사회보고 설교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목사가 아닌 돌보는 자, 운동경기의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설교의 교제나 구역공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구역에서 예배형식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주일예배의 반복인 것 같고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많아지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고 치유와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다.

따라서 목자는 지난 주일 오전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게 한다. 각자가 돌아가면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다 보면 서로 서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았으나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각각 달라서 서로 서로 더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눈 뒤에 일주일동안의 생활을 나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다면 유익이 무

202) Richard Peace, *소그룹전도와 목회*, 22.

엇인지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눈다. 생활을 나눈 다음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아픔들이 있으면 함께 나눈다. 그리고 다함께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그 가운데 특별히 큰 어려움이나 긴급한 일이 발생한 목장 식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신양공동체 침례교회(FCBC)처럼 예언적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지역적 문화와 성도들의 성향 때문에 자칫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비판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장은 전인 돌봄과 전인치유에 큰 목표를 둔다.

둘째는 결석자 관리이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담임목사가 전체 성도들의 결석자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목사의 고유사역을 목자들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목자들은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목장모임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을 그 주에 반드시 심방해서 돌본다. 전화심방도 하지만 주로 직접 방문을 한다. 그리고 주보도 발송한다. 주보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위로의 글을 적어서 그 주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발송한다.

셋째로 목장가족 돌봄이다. 목자는 목장식구와 목장모임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자는 작은 목사로서 사역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목장가족들과 가정문제를 돌보고 각 가정을 심방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제가 필요한 자들은 교회에 보고해서 구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며 심방한다. 상담이 필요한 자들은 상담을 한다. 목자는 자주 목장가정식구들을 돌보며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목사의 사랑을 느끼며 가족의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 어지간한 시험도 잘 승리하며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매우 적다. 실제로 임마누엘교회는 교회의 구조를 전인적 돌봄의 구조로 전환한 후 목사로 인한 갈등이나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가정은 거의 없다.

넷째로 전도이다. 20세기 말에 발표된 전도의 방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관계중심 전도이다. 오스카 톰슨(W. Oscar Thompson, Jr.)이 쓴 *관계중심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와 라이트 포드(Leighton Ford)의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Good News is for Sharing)*와 최영기의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와 이상만의 *오이코스 전도법* 등이 있다. 특별히 리처드 피스의 *소그룹 전도와 목회*의 강의로 많은 영감과 도전을 받았다. 피스 교수의 강의로 교회성장의 핵심은 전

도이며 전도의 가장 좋은 원리는 소그룹을 통한 것이다. 이는 로렌스 콩 목사가 주장한 신앙공동체 침례교회의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²⁰³⁾ 소그룹의 생명은 전도다. 임마누엘교회의 목장은 전도에 최고의 관심을 둔다. 교회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초대되어 나오는 것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주일 오전예배에 참석시켜 등록을 하게 해도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교회를 떠나고 만다. 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목장모임에 초청되어 그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을 받고 교회의 문화와 예배를 맛보고 이 절각을 많이 해소된 후에 교회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이처럼 목장에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 교회에 등록하기 때문에 정착률이 매우 높다. 임마누엘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해 전도된 자들이다. 목장은 일 년에 한두 번 목장별로 새 가족 초청 잔치를 한다. 먹을 것과 선물을 준비하고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고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새 가족을 초청한다. 이전에 전체교회에서 하던 이웃초청주일을 목장에 위임한 것이다. 목장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태이다. 목장 모임 때마다 각자가 자신의 전도대상자 명단을 내어 놓고 모든 목장식구들이 함께 기도한다.

다섯째는 사역자 발굴 및 훈련이다. 담임목사로 성도들과 깊은 교제나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일군을 발견하고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목자나 교구장들은 목장에서 많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가정형편과 사회적이 평판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군을 발굴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목자와 교구장들은 예비 목자와 교구장을 발굴해서 훈련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육이 되었을 때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제자훈련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목자는 또 다른 목자를 생산하고 교구장은 또 다른 교구장을 생산한다.

라. 전인치유 수련회를 통한 돌봄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실시할 때 목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고백이 성도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부흥회, 금식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은 잘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예날 성품이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금식기도, 제자훈

203)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71.

련을 실시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목회자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임마누엘교회 역시 2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 왔지만 성도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상처와 가정적인 상처가 많아서 내적인 치유가 필요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 상처 때문에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로와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의 모난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 조차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와 견고한 진 때문이다. 전인 치유 수련회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쓴 뿌리, 견고한 진을 뽑아버리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마. 예배를 통한 돌봄

임마누엘교회의 예배는 매우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있다. 정통 장로교회의 예배순서와 예배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드러진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에서는 이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의 예배는 특징이 있다.

첫째로 오전예배 시에도 찬양으로 시작한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예배는 성도들이 묵상기도 하거나 가만히 기다렸다가 목사의 강대상 종소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다. 임마누엘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예배 1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린다. 준비찬양이 아닌 예배로서의 찬양이다. 예배의 부름으로서의 찬양이다. 찬양 중에 자연스럽게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둘째로 목회기도를 대신해 자신들의 아픔, 문제를 위해 통성기도를 드린다.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고 감동과 은혜의 눈물로 간구한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다. 이 간구의 시간을 통해 일주일동안의 삶에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것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한다.

셋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전인격을 돌보는 말씀이다. 임마누엘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선포이다. 이 선포를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둔다. 율법적이거나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보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설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설교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돌봄의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다. 예배 후 목사와 상담을 약속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다. 전인적 돌봄의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이때가 아주 행복하고 보람되는 때이다. 설교의 방법도 전통적인 삼대지 형식이 아닌 이야기식, 대화식 설교이다.

바. 기도회를 통한 돌봄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목회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임마누엘교회의 기도회는 좋은 소문이 나 있다. 금요기도회는 오후 8시30분에 시작해서 10시까지 공식적인 기도회로 인도하고 10시 이후에는 자유스럽게 기도하게 한다. 공식적인 기도회는 주로 담임목사가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는 자들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회를 통해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교회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된다.

사. 훈련을 통한 돌봄

교회에서의 훈련도 전인적 돌봄의 중요한 수단이다. 기도회, 예배, 상담, 수련회 등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감정을 치유해가는 돌봄이라면 훈련을 통한 돌봄은 부정적인 면들을 제거시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들은 강화시키는 연단이다. 약한 믿음과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돌봄이다.

(1) 제자훈련을 통한 전인적 돌봄

임마누엘교회는 20년 전부터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10명까지를 한 클래스로 해서 40주를 배우고 매주 한과씩 훈련한다. 처음에는 IVP, CCC, 죠이선교회, 예수전도단, 네비게이토 등 여러 기관의 교제와 책으로 된 몇몇 출판사들의 교제를 참고해서 임마누엘교회의 환경에 맞는 교제를 만들었다. 20년 동안 훈련하면서 약 5번의 교제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용했다. 훈련의 원칙은 점검이다. 숙제 점검과 일주일동안 지난주

배운 대로 생활했는지 생활점검이 있다. 성경공부반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은 전적의학을 배우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깨닫게 한다. 1-10과까지는 영적인 면을 돌봄을 위한 거듭남의 원리와 확신을 훈련한다. 11-20과까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와 믿음의 원리를 가르친다. 21-30과까지는 심적인 돌봄으로 성령에 대한 것과 승리생활에 대해서, 31-40과까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면을 가르친다. 약 일년 동안의 제자훈련은 각 기수대로 가족 같은 친밀함을 가진다.

성도들이 제자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가운데 변화가 되며 제자훈련 후 전인적 꼭 상담이 필요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하기도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한 돌봄으로서 전인적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다. 제자훈련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장 많은 내적인 치유와 정화가 일어난다.

(2) 사역자 훈련

사역자 훈련은 30과로 된 후속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훈련과 소그룹 인도법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교사로 목사로 봉사하면서 교구장이나 부장 등의 사역을 감당해야할 자들을 훈련한다. 사역자반 훈련을 마친 일꾼들은 부목사나 여전도사와 같은 역량을 가진다. 사역자반 훈련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꾼들로 성장한다.

(3) 목자훈련을 통한 돌봄

임마누엘교회의 소그룹인 목장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렸다. 목자들은 일반 직장을 가진 자들도 있고 주부로 있는 자들도 있다. 목자가 쓰러지거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목장은 병이 들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도태되기도 한다. 아무리 소그룹사역이 잘 된 교회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목사는 목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노력한다. 임마누엘교회는 담임목사님이 목자들만 사랑하고 목자들만 좋아한다. 목사

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만큼 목자들을 사랑하고 돌본다. 담임목사는 목자들의 신앙과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직장의 문제까지도 챙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며 목자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의 이런 관심과 반면에 목자를 시기하는 자들도 있고 목자를 모함해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방해도 있다. 때문에 목사는 목자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며 돌보며 훈련한다.

첫째로 목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에 모인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들은 화요일 오전에 모이고 직장을 가진 자들은 수요일 저녁예배 후에 모인다. 목자들 모임은 각 목장의 상황을 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그 모임에서는 목자들의 은혜와 사역과 삶을 나눈다. 주일 아침 설교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나눈다. 또한 목자를 하면서 힘든 일은 나누고 가정의 어려움까지도 나눈다. 목자가 한사람씩 앞에 나가 발표를 할 때 목사가 일일이 점검한다. 은혜와 생활을 나누고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목자들이 매 주일 여러 명씩 있다. 은혜나누기와 생활 나누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목자가 있다면 모든 목자들이 일어나 둘러서서 함께 기도해준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주일설교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고 문제와 아픔을 가진 자들의 승리를 위해 참고 될 만한 성경구절을 소개해 준다.

둘째는 목자수련회이다. 목자 수련회는 꼭 일년에 두 번, 봄, 가을에 한다. 목자수련회는 전인치유수련회와 전혀 다르다. 전인치유 수련회는 그야말로 마음의 견고한 진과 쓴 뿌리와 상처를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목자 수련회는 목자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모임이다. 봄에는 1박 2일로 산이나 바닷가에서 쉬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위로를 받는다. 목장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핵심 일꾼들로서 교회에서 육적, 심적 돌봄의 배려로 하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감동과 결심을 한다. 그리고 오래된 선배목자들과 후배목자들 간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자연적인 교육이 된다.

(4) 전도팀 모임을 통한 돌봄

전도팀 모임과 훈련은 임마누엘교회의 심장이며 성장 동력이다. 전도팀은 화요일

오후에 모인다. 전도팀은 제자훈련을 통해 목회자의 비전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헌신한 자들이다. 이들은 전도를 위해 좋은 직장들을 포기하고 동참한 자들이다. 교회에서 전도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비치해 두고 마음껏 사용하게 한다. 전도팀은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며 전도대상자들의 정보를 나눈다. 전도팀은 목자 모임과 같이 반드시 목사가 인도한다. 일 년에 몇 번씩 전도세미나에도 참여하며 전도 왕을 초청하여 간증을 듣기도 한다.

5. 전인적 돌봄의 효과

전인적 돌봄 사역은 예수님의 목회원리로서 가장 아름다운 목회, 효과적인 목회 원리이다. 전인적 돌봄 사역의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며 놀라운 변화와 결과가 있다. 따라서 목회적 돌봄의 효과가 전인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가. 영적인 면

전인적 돌봄의 효과성은 영적인 면과 심적인 면, 그리고 육적인 면에 나타나는데 5장에서 밝힌 원리대로 전인을 체계적으로 돌본 결과를 영적인 면에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다. 제자훈련과 양육,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에 나타난 첫째 되는 효과는 구원의 확신이다. 성도들을 신앙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돌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된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모든 성숙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구원의 확신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며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한다.

둘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돌봄은 성도들의 신앙을 체계적이며 빠르게 성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헌신하며 봉사하게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를 돌보며 희생한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전도팀의 일원으로 수고한다.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단계에까지 성숙한다.

나. 심적인 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성도들은 인격과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다. 유치한 마음과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한 고린도교회와 같은 아픔이 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땅을 짓는다. 사도바울은 이들의 이런 아픔과 갈등을 가지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함 때문이라고 한다(고전 3:1-3). 전인적 돌봄의 목회는 건강한 인격을 갖게 한다.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사모와 다른 일꾼들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담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광야 교회시대에도 원망, 불평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 뱀에 물려 죽기도 했다. 야고보 감독은 예루살렘교회를 향하여 말의 해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교한다(약 3:6-8). 그러나 목회자가 아버지의 심정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전인격을 돌보며 동역자들을 통해 돌볼 때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정죄가 없어졌다. 자신 안에 쓴 뿌리가 뽑혀지고 마음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고 내적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정죄,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졌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도우려고 노력한다. 늘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 하고 목회자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으나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가정과 개인에 조그마한 일에도 담임목사가 심방을 해야 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어야 만족해하던 성도들이 어지간한 일은 스스로 말씀들을 찾고 기도하면서 점점 예수님께 나아간다. 또한 건강한 정서와 인격을 가짐으로써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간증들을 한다.

다. 육적인 면

전인적 돌봄 목회의 유익 가운데 육적인 효과는 육체의 건강과 안정이다. 요즈음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많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는 자들도 많다. 육적인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환우들을 돌보면서 오전, 오후 예배 후어나 기도회 후의 안수기도와 전인치유 수양회, 전인적 돌봄의 심방 등으로 육체의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많았다. 예수께서 초대 교회 안에 일으키셨던 신유와 축사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됨을 확신한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설립될 때 부흥하는 교회들은 초창기에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비록 완전한 치유가 아닐지라도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 가정적인 면

가정적인 면의 유익은 가정의 회복과 하나됨과 화목이다. 즉, 건강한 가정이다. 첫째는 부부관계의 회복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아픔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가정에서 가족관계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약 49퍼센트의 가정이 이혼하고 있다. 이런 가정환경 가운데에 임마누엘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정의 위기가 심각한 가정들이 많았다. 이미 이혼을 한 가정부터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 직전에 있는 자들도 있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가정도 있었다. 구타나 다툼은 물론 배우자의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난 가정도 많았다. 이런 일들로 인해 눈물로 아프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인적 돌봄 목회를 통해 이런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었다. 이미 헤어졌던 가정이 다시 한 가정이 되는 기적이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었으며 지금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임마누엘교회는 전인적 돌봄의 목회를 시작하고 난 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껏 이혼한 가정은 없다.

이처럼 전인적 돌봄의 목회가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서로가 갈등을 겪을 때도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며 또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를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절망감과 함께 갈등이 왔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것이 서로를 가르치려 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여겨져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인적 돌봄의 목회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깨

달게 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보게 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치유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마누엘교회는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로 소문 나있다.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 서로서로가 제자훈련 받기를 권하며 전인 치유 수양회에 꼭 참석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이웃교회 성도들까지 제자훈련에 참석하려는 자들이 많다. 한 개인의 성숙은 가정의 회복이며 성숙이다.

둘째는 자녀들의 회복이다. 가정의 회복은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관계의 회복도 크다. 전인적 돌봄의 사역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부모들은 요즈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듣는다고 간증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해 줄때 보다 부모가 싸우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 줄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²⁰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가 되면서 세대차이의 갈등을 잘 극복한다.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많은 부분 아버지들의 문제이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착각 속에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것쯤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기우려 주고 이해해 주며 놀아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아버지들이 전인적 돌봄 사역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과 심리와 상태를 이해하게 됨으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된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부모의 문제로 가출을 하거나 자살한 아이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셋째는 가족공동체의 화목이다. 임마누엘교회는 인구 23,000명의 작은 농어촌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시부모나 시댁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 시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갈등이 많은 구조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 사역은 많은 부분 이런 갈등이 해소되었다. 서로 일방적인 요구와 기대 가운데 살다가 갈등이 많이 오지만 전인적 돌봄을 통해 이해와 헌신과 섬김이 체험되고 훈련됨으로서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 연구자는 전인적 돌봄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로서 설교나 강의 중 건강한 가

204) 최영기, *성도의 속마음* (서울: 규장, 2005), 10.

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의 갈등이 드러나면 직접 교육하고 돌본다. 아주 드물게 목회자가 교회 일이 아닌 성도들의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까지 간섭하고 교육한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으나 대부분 순종해서 따르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가족 공동체의 화목함이 회복되어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하다는 간증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런 가족의 화목은 곧 교회의 평안이 되고 이런 아픈 가정이 치유되고 행복하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자랑함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도 매우 유익하다.

마. 감격이 있는 예배

2005년 10월 3일 한 대학생이 교회인터넷 카페에 간증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즉 지방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본 교회에 출석하고 두 번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임마누엘교회처럼 감동과 감격,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간증의 글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리플을 달아 그들도 다 그렇게 느끼며 감사한다고 했다. 이런 간증은 임마누엘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간증이다.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며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다. 임마누엘교회는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장 경계한다. 매 주일의 예배가 역동적이며 감격이 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으며 전인격을 위로하고 돌보는 소망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주일예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린다.

이런 전인적 돌봄의 예배를 통해 감격이 있는 예배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 타성에 젖은 예배에서는 은혜의 감동이 적다. 그러나 돌봄의 예배에는 큰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 그 은혜로 인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둘째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 A. W. 토저(A. W. Tozer)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참예배가 아니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가짜예배가 많다는 것이다.²⁰⁵⁾ 예배의

205) A. W. Tozer, *예배인가 쇼인가!*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57.

생명력은 신령과 진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임마누엘교회의 예배는 매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자 힘쓴다. 성령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의 주제가 많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기도한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다. 따라서 고린도교회처럼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고 전도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많다.

셋째로 내적 치유이다.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면 많은 성도들이 내적치유를 많이 경험한다. 눈물의 찬양, 간절한 기도, 돌봄의 설교를 통해 내적치유가 일어나 진정한 행복감과 평안을 누린다. 이런 현상들이 예배시마다 일어나 메마르고 냉랭하고 딱딱해진 마음들에 은혜와 열정이 솟아났다. 감사가 나오고 미워했던 자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넷째로 자원하는 희생이다.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랑과 희생이 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타인의 일들을 자신의 일, 자기 가족의 일처럼 돌보며 사랑한다. 결혼식, 장례식, 우울증 환자들, 홀로된 노인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의 가정을 위해 몸으로 일하며 도와준다. 이것은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로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행한다. 그래서 돌봄의 목회가 있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진다. 이런 성도들 개개인을 돌보는 희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자들이 많다. 임마누엘교회는 농어촌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물질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스스로 헌물한 것들이다. 헌금 또한 어느 교회보다 많이 한다. 목사의 개인적인 돌봄을 통해 인간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격 있는 예배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스스로 봉사와 희생에 힘쓰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리려고 한다. 따라서 임마누엘교회는 자신들의 가정적인 사명인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평신도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회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려고 계획하는 자들이 많다.

바. 평신도 사역자 배출

흔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서 사랑을 받아 본 자들만이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전인적 돌봄을 맛보며 성숙한 자들은 목회자를 닮은 전인적 돌봄의 사역자들이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돌봄을 통해 준비된 사역자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었다.

(1) 전도자

첫째는 전인적 돌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은 성령님의 사역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증인의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 임마누엘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중심 전도를 위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웃들을 전도하고 있다.

둘째는 주일학교 부장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전도팀이 만들어져 매주 토요일 학교 앞과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한다. 또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새 소식반 훈련을 받고 아이들 전도를 위한 새 소식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어린이 전도팀 역시 목회자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면 아이들의 부모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삼는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에게 전도카드를 매주 발송해 주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관계를 맺고 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한다.

(2) 목자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을 통한 배출된 사역자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꾼들이 목자들이다. 목자들은 양육, 훈련의 돌봄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다. 목자는 임마누엘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그룹이다. 이들은 작은 목사들로서 목장에서 전도, 양육, 예배 등을 담당한다. 목장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주에 주일예배에 불참한 자들이나 목장예배에 결석한 자들을 반드시 심방하고 말씀을 전하며 관리한다. 목자들은 목장 가족들에게 멘토와 같고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다.

(3) 교구장

교구장들은 임마누엘교회의 가장 앞선 사역자들이다. 한명의 교구장은 5-10개의 목장을 관리한다. 교구장은 목자 중에서 선택한다. 교구장은 기존 교회의 부목사나 여전도사의 사역정도를 담당한다. 교구장들을 최우선의 돌봄의 대상이다. 목회자는 교구장들에게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돌본다. 그들의 신앙만 아니라 인격, 삶, 가정형편까지도 살피며 온전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힘쓴다. 교구장이 쓰러지면 목자가 쓰러지고 목자가 실패하면 목장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4) 주교 부장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의 유익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학교 부장이다. 임마누엘교회도 여타교회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교육전도사들을 배치했다. 몇 년 동안 교육전도사들을 두고 주일학교를 섬기게 했지만 전혀 성장이 없었다. 이후 주일학교는 부장중심체제로 바꾸었다. 부장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법을 가르치고 행정적인 것을 가르쳐서 교역자의 사역을 위임했다. 따라서 부장들은 교육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각 부서에서 오전예배 설교를 담당하고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결과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해서 유치부 64명, 유년부 80명, 초등부 71명의 재적을 가지고 있다. 부장들을 교구장들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며 훈련한다.

(5) 각 부서 사역팀

임마누엘교회는 소형교회를 벗어나 중형교회로의 도약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특별한 관리직원이나 사무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 주일 식당봉사, 청소, 차량운행, 찬양사역, 주보인쇄, 방송실 등 모든 교회 사역들이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인적 돌봄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스스로 봉사하고 있다.

사.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돌봄 목회의 성경적 모델은 데살로니가교회였다. 데살로

니가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달 정도 밖에 목양하지 못했지만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난 본이 되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서 사도들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아름다운 소문이 멀리 퍼지게 한 교회였다(살전 1:2-8). 임마누엘교회는 교회의 구조를 전인적 돌봄의 목회구조로 전환하면서 이 데살로니가교회를 모델로 삼아 사역한 결과 데살로니가교회 같은 모델교회가 되었다.

첫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이다.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은 확실히 다르다.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고 아주 열심이며 착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가지지 않은 자들이거나 간에 임마누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이 믿음의 소문대로 임마누엘 성도들은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헌신, 삶 등에서 매우 착하고 열심이며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어야 하고 교회를 다니려면 저런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임마누엘교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이다.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열정이 있다.

둘째로 임마누엘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이다. 임마누엘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 여타교회처럼 전인적 돌봄의 목회로 전환하기 전에는 험담, 비난, 비판, 원망, 불평이 많았던 교회였으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돌봄으로 목회로 전환한 후 이런 원망, 불평, 비난, 험담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비난도 사라졌다. 성도들은 교회 성도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일인 듯 돌보며 봉사함으로서 임마누엘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 잘 훈련되고 교육 된 교회 평범한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성도들, 차원이 다른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체계적이 돌봄의 결과이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과 같은 효과이다(행 2:47).

셋째는 지역사회의 희망이다. 교회가 전인적 돌봄을 하기 전에는 목사와 사모가 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다.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만 이 지역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고민과 갈등과 아픔들을 상담할 만한 기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가정문제,

자녀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신앙문제 등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목사와 사모를 통해 교회가 이 모든 문제들의 상담소가 되어야 했다. 처음에는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전인적 돌봄의 목회로 전환됨으로서 훈련 받은 여러 일꾼들, 특별히 교구장, 부장, 목자들은 이웃 사람들의 좋은 상담자가 되고 돕는 자도 되어준다. 불신자들까지도 임마누엘교회의 일꾼들을 찾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신앙의 갈등 등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일차적으로 앞선 일꾼들이 도움을 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와 갈등들은 목사와 사모의 도움을 받는다. 본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이전에 신앙을 가졌다가 실족한 자들이 많이 상담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교회는 지역사회를 돕는 희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교회의 일꾼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아. 가족 같은 공동체

임마누엘교회는 주일학교 제적 270명, 청장년부 제적 230명 정도의 중소형교회이다. 교회의 안정성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의 시기이다. 그러나 임마누엘교회는 모두가 가족 같이 여기는 아름다움이 있다. 첫째로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는 헌신이 있다. 요즈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전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비웃던 것이 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해 준다. 성도들 개개인이나 가정의 대소사의 일들은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돌보아 준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전인적 돌봄의 목회 철학에 순종해서 서로를 돌보는 기쁨이 있다. 이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사도 바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성도들은 결혼식, 장례식, 회갑, 칠순, 아이들 돌, 집들이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환우들을 심방한다.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도 있다.

둘째는 자긍심이다. 임마누엘교회를 섬기면서 전인적 돌봄의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매우 행복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것이다. 지역사회의 대부분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기의 교회나 목회자를 칭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임마누엘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하며 목사를 자랑하며 일꾼들을 자랑스

럽게 여기며 이야기 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판, 비난, 정치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 교회의 덕과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목회자는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장로들과 일꾼들을 칭찬하며 자랑한다. 이런 면에서 임마누엘교회는 천국 같은 행복한 공동체이다.

셋째로 유기적인 연합과 섬김이다. 교회는 조직체라기보다는 유기체이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조직 체계는 유기체보다 조직체의 성격이 강하다. 장로, 권사, 각부의 장들은 감독하며 결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각 부와 교회를 통제한다. 이런 조직체는 대체로 생명력이 없다.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는 유기적이며 서로 연합되어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임마누엘교회는 특별히 행정적인 면이 아니면 당회원들이나 권사들이 감독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부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한다.

교회의 주일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석을 강단 앞이나 옆에 따로 만들어 두지만 임마누엘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없다. 장로들도 성도들과 똑같이 일반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한 식당에서도 목회자, 당회원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두 줄을 서서 성도들과 동일하게 행동한다. 전인적 돌봄의 목회의 열매는 행정적 권위자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며 연합하는 일에 힘쓴다.

자. 비전 공유와 재생산

교회의 조직체계가 단일화되어서 전도, 치유, 양육, 훈련을 통한 돌봄에 목적을 둔 목회는 오직 재생산과 비전에 모든 역량을 투자한다. 목장, 교구는 연말 당회에서 행정적 심사를 거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목장이나 교구를 분가시켜야 할 때가 되면 목자를 파송해서 분가시켜 목장의 재생산을 실시한다. 반대로 목장이 생명력이 없고 성장의 소망이 없을 때에는 언제나 통합하거나 재조정한다. 이러한 재생산의 원리에 따라 목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장들과 교구들을 돌보며 또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수고한다. 임마누엘교회의 비전은 공산권과 회교권의 선교이다. 이미 십년 전에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 많은 현지 일꾼들을 배출했다. 그

리고 앞으로는 회교권 선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교회는 모든 헌신예배를 폐지하고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오직 선교헌신 예배만을 드린다. 이러한 비전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있다.

제 2 절 21세기 효과적인 목회전략

21세기의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전인적 돌봄의 목회이다. 이미 언급한 싱가포르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 담임목사인 로렌스 콩은 돌봄, 경영, 지도력이라는 세 가지 목사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돌봄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목사직의 세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나는 우선으로 돌봄이 기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신앙공동체 침례교회의 교인들과 교역자들은 내가 교인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단호하며 징계 할 때도 내가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 떼를 사랑하고 먹이는 목자는 교인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²⁰⁶⁾

지글러와 캐롤 와이즈는 목양적 돌봄은 교역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교역과 목회의 핵심 자체라고 했다.²⁰⁷⁾ 그러나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전인적 목회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초대교회의 주된 목회사역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들을 돌보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부모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다. 그는 직접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돌봄의 사역을 감당했다. 21세기 전인적 돌봄의 사역은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진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목양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돌봄의 목회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목회적 돌봄을 정리하면 21세기

206) Khong, *신사도적 셀 교회*, 79-80.

207) Wise, *목회학개론*, 26.

가장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전인적 돌봄이다. 목회사역은 성도들의 영, 혼, 육, 사회성, 가정적인 면을 돌보는 사역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는 성도들의 전인적인 면을 돌보기보다는 교회의 성장, 대형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형교회에 대한 욕심이나 목회 성공병적 사상을 버리고 영혼, 육체, 가정을 세심하게 돌보는 전인적 목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철저한 개별적인 돌봄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목회 본질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눅 15:3-7). 옥한흠은 한사람의 철학을 그의 목회 본질로 삼았다.²⁰⁸⁾ 목회는 한사람의 전인격을 탄생에서 죽음까지 돌보는 것이다. 개인적 돌봄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하워드 라이스이다. 그는 개인적 돌봄의 중요성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사회는 영적관계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가 아닌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양육하는 장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인생의 정감이나 도덕적 안내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기관,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기관이 되려고 노력할 때,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는 교회의 새로운 부흥으로 앞장 설 수 있다. 사람들이 이교와 뉴에이지 혹은 사교에 끌려가는 굶주림은 우리 시대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굶주림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찾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다.²⁰⁹⁾

지글러도 목회적 돌봄을 개인적인 돌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개인적 돌봄이며 이는 역사의 증거라고 했다.

영혼의 돌봄은 교회 목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목회적 돌봄은 목

208)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7. 평신도를 깨운다, 세미나.

209) Rice, *영성목회와 영성기도*, 43-44.

사 직무에 기초적인 기능이다. 목사에 있어서 목회의 어떤 부분도 개개인의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한 목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기독교 목회의 참된 본질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목사의 목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상적으로 설교와 영혼의 돌봄은 목사의 두 가지 중요한 직무이다.²¹⁰⁾

그는 계속적으로 설명하기를 영혼의 돌봄은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선 하나님과 서로를 대한 관계에서 성장한 개인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이 아담스는 목회자의 개별적 돌봄 사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회 상담이라고 보았다.²¹¹⁾

셋째는 체계적인 돌봄이다.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육체의 성장이나 심적인 성장이나 성장의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각 성장의 단계와 과정에는 그에 따른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이다. 한사람이 거듭나 성숙하게 자라고 재생산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돌봄과 지도와 세워감이 있어야 한다. 한 개인을 체계적으로 돌봐야하는 이론을 잘 정립한 학자는 이기춘이다. 그는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인간 발달 이론에 근거한 여덟 단계의 생애주기이론을 체계적인 전인적 목회 돌봄으로 보았다. 에릭슨이 말한 인간 발달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전 과정을 후성설적(Epigenetic)으로 이해하면서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전인 목회를 위한 또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다. 여기서 전인 목회란 인간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인 동시에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복음으로 일관성 있게 돌본다는 것이다.²¹²⁾

에릭슨의 성장단계를 신앙의 발달단계로 연결시켜 연구한 파울러(Taues W. Power)는 신앙의 발달단계는 7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에 따른 과업을 설명한다.

210) Franklin M. Segler, *목회학개론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이정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219.

211) Jay Z. Adams, *Shepherding God's Flock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105.

212) 이기춘, *한국적 목회 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91), 240.

이처럼 전인적 돌봄은 개인적, 체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흘러 경륜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반드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할 과업을 이루도록 할 때 진정한 성숙된 일군이 탄생된다.

1. 21세기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의 패러다임

4장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종교성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1세기 한국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인적 돌봄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부성과 모성의 목회상

한국인의 정서가 '정'과 '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는 의식을 가졌다. 정과 한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다. 누구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받게 되면 정을 깊이 느끼게 되어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희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를 갈며 한을 심는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가슴에 한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따뜻한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아버지의 사랑인 부성과 어머니의 사랑인 모성의 목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팽배하여 한국의 현실 속에서 가부장적인 권위로 성도들 위에 신비한 존재로 군림하며 사역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정적 가부장적인 목회상은 사회에서 일어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성차별 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목회상 때문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매우 많다. 가부장적인 목회상은 설교에서도 나타나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가 많아서 성도들이 자신을 때리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21세기의 목회상은 변화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사랑과 희생의 목회자상을 가져야 한다.

부성과 모성을 가진 목회자상은 어느 하나가 제외되거나 약해져 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 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목회사역에 나타나야 한다.

(1) 부성적 기능과 돌봄

이기춘은 부성과 모성의 목회의 기능과 영역을 구분해서 정립했다. 첫째, 설교가의 복음선포 역할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목회자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대로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둘째, 예언자적 사회참여 기능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부조리와 왜곡된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해야 한다. 셋째, 행정가적 교회행정의 기능이다. 이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회중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보다 질 좋은 목회봉사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기독교 교육적 기능이다. 기독교 교육은 삶의 준거 기반을 제공하고 인간의 발달단계에 나타나게 되는 제반 조건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대처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다.²¹³⁾

부성적 기능의 돌봄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이기춘과 조금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목회자가 부성적인 기능을 가지는 가운데 사회참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와 교단마다 그 신학적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보다 중요한 것은 부성적 기능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개인적인 돌봄에서 더욱 유익하다.

스필전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보고 아버지로서의 목회자상을 몇 가지로 설명했다. 아버지는 견실하고 확립된 인간이 되어야 하고 은유함이 충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한다.²¹⁴⁾

21세기 세계교회를 선도하고 있는 G12 창시자인 콜롬비아 보고타 HCI 교회의 세자르카스텔라노스 목사와 세계적 셀 목회 지도자인 싱가포르 FCBC 로렌스 콩 목사 등이 주 강사로 참석한 G12 국제 셀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이들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213)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191-192.

214) C. H. Spurgeon, *목회자들을 위하여 (An All Round Ministry)*, 박범룡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285-289.

심정으로 목회할 때 부흥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로렌스 콩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이라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목회자들이 영적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해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목회자들이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라고 역설했다.²¹⁵⁾

21세기의 대안적 목회 패러다임은 부성, 부성애를 가진 것임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로렌스 콩목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 한다.

(2) 모성적 기능과 돌봄

모성적 기능과 돌봄의 첫째는 상담가로서의 목회상담이다. 목회상담은 한 인간의 고통과 절규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이다. 로저스의 권고대로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공감의 생기기 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다. 둘째,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기능이다. 인간의 죄와 자책과 갈등에 치유를 촉발하고 용서와 화해로 원형적 회복을 성취케 하는 것이다. 셋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다. 넷째, 양육자로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²¹⁶⁾

나. 만인 제사장

부성과 모성의 목회상을 가지고 성도들 개개인을 돌보는 목회전략은 담임목사 혼자만의 사역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유능하고 부지런한 목회자라도 몇 십 명 또

215) Lawrence Khong,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할 때 부흥," 국민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26.

216)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191-192.

는 겨우 백 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쉽게 지쳐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교회의 체계와 조직들을 한 가지 목적과 목표에 일원화해서 훈련받고 성숙해진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와 같은 원리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것을 위해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담임목사인 빌 하이벨스(Bill Hybels)는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이며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임을 매우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아름다운 구도로 시작되어 모든 성도가 전방위 사역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몇 백 년 동안 교회는 다시 구약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고 말한다.²¹⁷⁾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성직자라고 외치면서 평신도들을 성직자로 훈련해야 됨을 강조한다.

장학일은 밴드목회를 주장하면서 교인이 교인을 돌보게 하는 목양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교회는 훈련된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이 자라서 다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곳”²¹⁸⁾이라는 돈 브라우닝(Don Browning)의 말을 인용하면서 목회자가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직접 교인들을 돌보는 ‘회중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만인 제사장 역할을 역설하면서 평신도 신학이란 이론을 정립했다. 그의 평신도 신학 이론은 평신도 신학이란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을 없애고 온 백성이 사역자가 되는 만인 제사장신학 이라면서 성직자뿐 아니라 모든 신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다는데 근거한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2류 시민이라는 의미에서의 평신도 관을 과감히 폐지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²¹⁹⁾

21세기 가장 효과적인 전인적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은 평신도를 목회자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목회자의 사역과 권위를 과감히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사와 동일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제자훈련과 셀교회의

217) Bill Hybels, *섬김의 혁명 (The Volunteer Revolution)*,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11.

218) 장학일, *교회의 체계를 바꾸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25.

219) Paul Stevens, “평신도는 이류 아닌 일류...만인 제사장 역할 해야,” *국민일보*, 2005년 11월 16일자, 31.

본질이기도 하다. 평신도는 목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양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요 목회자다. 따라서 평신도를 능력 있고 효과적인 사역자, 목회자로 훈련하는 것은 목사의 정신과 패러다임에 달려있다.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평신도는 효과적인 일군이 될 수도 있고 우둔한 양이 될 수도 있다.

최상태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결코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구별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평신도들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평신도는 교회의 핵심이며 모여 있는 교회(에클레시아)와 흩어져 있는 교회(디아스포라) 사이를 연결시켜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하여 복음과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가교이다.²²⁰⁾

오성춘은 오늘날의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만인제사장직을 교역의 신학적 기초로 받아들이고 만인제사장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교회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생동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²²¹⁾

이처럼 21세기에는 성도들의 직업이 전문화 되고 그에 따른 목회자에 대한 요구도 많기 때문에 목회자 혼자 유능하고 부지런해서 양들을 다 돌 볼 수 없다. 결국 목회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리를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 그리스도의 가르친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성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제자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신비한 능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역을 독점하고 칭찬과 영광을 혼자 받으려는 욕심과 옹졸함을 깨뜨리고 과감히 목자의 사역을 충성된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수고한대로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자상이며 21세기 목회의 본질이다. 어떤 면에서 양은 양의 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보다 효과적인 때가 많다.

220) 최상재,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 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7.

221)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382.

다. 영성

21세기의 목회자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목회 패러다임은 영성이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 정보사회이며 종교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와 신비주의 등 혼합종교의 양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사람들은 더욱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며 굶주려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교회부흥 세미나, 교회성장 세미나가 매우 많았고 그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목회의 원리를 배우고 교회 부흥과 성장의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배웠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어느 시대보다 좋고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 성장 연구소도 아주 많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체하고 쇠퇴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목회를 방법론과 프로그램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방법과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패러다임에 달렸다.

목회자의 패러다임 가운데 한국적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은 영성 목회이다. 최정성은 영성 목회를 교회와 교인의 전인성 실현을 위한 관계 중심적이며 내적인 모성형 목회로 보고 이 목회 원리가 종교, 문화에 전통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 가치를 더해준다고 보았다.²²²⁾

하워드 라이스는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리더십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보고 기독교 목사의 첫 번째 패러다임은 영성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설교, 가르침, 방언, 치유, 전도에 나타났다고 보았다.²²³⁾ 라이스의 견해에서 영성 목회는 성령의 목회이다.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충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21세기 영성이 목마른 시대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중심이 된 목양이어야 한다. 말세에 남녀종들과 노인,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양창삼은 교회도 이미 경쟁시대에 돌입해서 교회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되었다고 보고 21세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지만 경쟁력이 없는 교회는 도태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교회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성이 교회 전체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한다.²²⁴⁾

222) 최정성, *영성목회 핸드북*, 106.

223) Rice, *영성목회와 영성지도*, 25.

224) 양창삼, *목회자 당신은 인류인간* (서울: 한국강해학교출판부, 2002), 123.

2. 전인적 돌봄을 위한 실제(방법)

모든 교회가 이미 제시된 21세기 전인적 돌봄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도들의 개개인과 공동체를 돌보는 실제적인 원리가 있다. 각 교회별로 만들어진 새가족반 교재나 양육 교재가 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고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개인적 돌봄의 실제

(1) 멘토링

멘토링은 장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방법이었다. 견습생들은 수년에 걸쳐 숙련공 곁에서 관련된 기술만 아니라 그 세계와 관련된 모든 생활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 멘토링의 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이다.²²⁵⁾ 멘토링은 친구관계와 같은 것으로 교사, 코치, 친구들과처럼 비공식 적인 관계를 통해 알고있는 사람들이다.²²⁶⁾ 멘토링은 관계이다. 멘토는 인생의 경험자요, 신앙의 경험자요, 선배로서 멘토링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코치며 선생이며 지도자와 같다. 특별히 전인적 돌봄의 정신을 가진 멘토는 이미 살펴본 대로 영혼의 목자며 부모와 같다. 영적인 멘토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여정을 시작한 새 가족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어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멘토는 개인적이거나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멘토보다 두세 명의 멘토를 가진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

(2) 알파

알파는 전도와 양육 그리고 성숙을 위한 돌봄의 원리를 가진 체계적으로 준비된 사역원리다. 알파는 처음 새 신자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가 지금은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10주 동안 실제적으로 기독교

225) Bobb Biehl, *멘토링 (Mentoring)* (서울: 디모데, 1998), 13.

226) Keith R. Anderson & Ri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김종호 역 (7쇄; 서울: IVP, 2003), 105.

신앙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알파의 특징은 철저한 일대일양육이며 전인적 복음 전파이다.

니키 검블(Nicky Gumble)은 전인적 복음전파를 말씀 중심의 복음전파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과 사회활동과 사회적 봉사라고 보았다.²²⁷⁾ 알파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사도바울이 증거한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초점은 '각 사람'이다. 29절에서 '각 사람'을 세 번씩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알파의 목적이다. 알파는 각각의 사람들을 목자의 자세로 보살피는 것이다. 빌 하이벨스와 돈 커슨스는 설교만으로는 성도들을 영향력 있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수 없고 그 사람과 1미터 거리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영감을 받을 때 영향력 있는 일군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니키 검블은 알파의 일대일 돌봄의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이 일대일 양육 시스템은 아마도 알파의 가장 중요한 면일 것이다. 내 경우,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을 때,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었던 분께 정말 많은 신세를 졌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고 기독교 신앙을 내게 설명해주고 충고와 도움과 우정을 주기위해 자기의 시간을 희생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었다. 사실 내가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보살핌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²²⁸⁾

알파는 일대일 전인적 돌봄의 방법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제 21세기는 전인적 돌봄이 목회의 핵심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3) 바나바사역

일대일 개인별 전인적 돌봄의 다른 원리중 하나는 바나바사역이다. 바나바사역은 지금 여러 교회들에서 잘 시도되고 있다. 바나바사역이란, 새 신자 및 불신자들을 훈련된 기존 일꾼들이 사랑과 돌봄으로 섬겨 짧은 시일 안에 교회의 가족으로 친숙하게

227) Nicky Gumble, *알파시작하기 (Telling Others)*, 이인수 역 (서울: 서로사랑, 2005), 37.

228) Ibid., 93-94.

되며 효과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나바사역들은 유모처럼, 신앙의 어머니처럼 교회 처음 나온 자들을 대해준다. 처음 온 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도와준다. 바나바사역은 기존 신자와 새 신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보사역이며 사랑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이며 교회 소속감을 갖게 하는 안내정착사역이다.²²⁹⁾

일대일 양육과 정착을 위한 돌봄 사역은 개 교회와 지역의 맞게 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재를 만들고 일꾼들을 훈련하며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원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돼 많은 효율적인 결과를 얻었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유익하고 쉽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돌봄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급속하게 교회를 수적으로 부흥시키려는 욕심과 성급함에서 벗어나 한 사람을 철저히 보아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영향력이 숫자만 모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나. 가정 대 가정의 돌봄

현대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건강한 가정, 먼저 믿은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가정, 역기능 가정, 새로운 가정을 돌보게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돌봄은 성도들의 한사람을 돌보는 일대일의 돌봄이 가정의 돌봄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들이란 비슷한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시절의 아픔을 가졌던 가정의 유사한 아픔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위로하여 친근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다. 특히, 남편들의 직장이나 취미가 같아서 공통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서 한 가정과 어울리고 친해지는 것은 일대일 돌봄 보다 더 효과적이다. 제자훈련을 받고 목회자의 지도로 일꾼이 된 가정들이나 사역의 경험자들은 가정과 가정이 어울려 함께 성장해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 대 가정의 돌봄은 약간의 약점도 있다. 두 가정만이 너무 친하게 지내면 교제의 폭이 좁아지고 한 가정만 의지하게 되어 그 가정 때문에 조금이나마 상처를 받게 되면 도울 수가 없다. 따라서 어느 단계부터는 가정과 가정은 돌보되 계

229) 정삼지, *정착 양육 세미나*, 31.

속 같은 수준의 여러 가정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소그룹을 통한 돌봄

친밀한 소수가 모이는 소그룹모임은 가정 친교형태의 모임으로 다른 많은 자료들에서는 돌봄 그룹, 셀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²³⁰⁾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 진 에드워드(Geen Edwards), 최영기 등은 가정교회라고 부른다. 장학일은 소그룹을 밴드목회라고 한다. 이 소그룹은 한국에서 구역모임, 속회 등으로 활성화 되었던 것이 국제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발전되어 20세기 말에 셀교회, 셀그룹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국제적으로 셀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가장 적합한 소그룹 모임은 새들백교회의 소그룹이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가정교회모임이라고 본다.

(1) 전인적 소그룹

자연적 교회성장 이론을 정립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tz)는 교회성장의 질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전인적 소그룹을 꼽았다. 소그룹은 질적 특성과 양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성장을 가져왔다. 소그룹이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면이 되려면 소그룹은 단순히 성경공부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만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처해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질문들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전인적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그룹에 속해 있거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이어야 한다.²³¹⁾

이는 매우 중요한 소그룹의 핵심적 특성이다. 소그룹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

230) Mike and Susam Dowgiewicz, *새 밀레니엄 교회 (Restoring the Early church)*, 이성희 역 (인천: 바울, 1999), 342.

231) Christian A. Schwart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민, 정진우, 오태균 역 (서울: NCD, 2002), 32.

해 말씀, 기고, 교제는 하나의 도구이다. 이런 것을 도구로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 갈등들, 아픔들, 고통들을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면서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주어야 한다. 소그룹을 강조하고 정착을 강조한 사역자들은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최소한 여섯 사람 이상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정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그룹은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돌봄의 최선의 도구이며 방법이다.

최영기는 기존교회의 구역모임과 소그룹인 가정교회를 비교하면서 구역모임은 친교중심이며 가정교회는 예배, 성경공부, 제자훈련,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가 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가정교회의 최선의 역할은 내적 치유라고 한다. “목장모임은 말씀에 대한 지적인 토론을 벌이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 받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는 장소입니다.”²³²⁾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돌보는 소그룹은 매우효과적인 그룹이다. 이러한 전인적 소그룹의 대표적인 모델은 새들백교회의 소그룹이다. 새들백교회 역시 소그룹의 생명력은 성경을 토의하고 설교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성숙과 변화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전인적 치유가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하며 내적치유, 영적치유, 가정의 치유, 질병의 치유를 위한 시작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들어내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²³³⁾ 새들백교회의 소그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제-진실한 관계로 발전시킨다. 둘째는 훈련-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셋째는 사역-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신 대로 섬긴다. 넷째는 전도-당신의 삶의 사명을 나눈다. 다섯째는 예배-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²³⁴⁾

새들백교회의 전인적 돌봄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리더 중심의 소그룹이 아닌 구성원 중심의 소그룹이다. 리더중심의 그룹은 구성원들의 문제와 이야기를 듣고 리더가 혼자서 일일이 대답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구성원 중심의 그룹은 리더는 가능한 침묵하고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먼저 경험한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 간증하며 격려하는 것이다.²³⁵⁾

232)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22-23.

233) 국제제자훈련원, *집에서 집으로 (Hut to Hut)* (새들백교회 소그룹 세미나 강의안(미간행), 2005), 71.

234) Ibid., 15.

235) 국제제자훈련원 편, *집에서 집으로*, 40.

둘째로 하위그룹이다. 소그룹의 하위그룹이란 리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기치 못한 기회를 따라 12명 정도의 소그룹 구성원들이 다함께 기도하고 다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통하는 자들이나 경험을 가진 자들이 2-3명씩 또는 4-5명씩 각 방으로 흩어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셋째는 소그룹 리더나 공동체 리더들 가운데 70퍼센트는 돌보는 사역이다.²³⁶⁾

이처럼 소그룹의 전인적 돌봄은 전인적 치유, 건강, 전인적 성장을 위한 돌봄이어야 한다.

(2) 전문화된 사역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다양한 전문성과 취미,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을 중심으로 취미그룹이나 각 방면의 선교회나 전문적의 사역팀을 만들어 그들의 시간과 여건이 되는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상담이나 만남, 교제를 통해 돌봄을 할 수 있다.

(3) 훈련을 통한 돌봄

전인적 돌봄을 지향하는 교회는 담임목회자와 같은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따라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제자훈련이 있어야 하고 기도와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 전인적 돌봄이란 목회자가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만 쏟고 말씀만 먹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약한 것들은 훈련을 통해 강하게 하고 장점은 강화시키고 약점들은 소거시키는 훈련과 지력, 담력, 영력을 키우는 훈련이 중요하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훈련 책임자이며 소그룹 담당자인 빌 도나휴(Bill Donahue)는 목회자의 돌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돌볼 수 있는 소그룹의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²³⁷⁾ 때문에 목사를 닮은 리더들, 신앙적 부모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 건축가이다.²³⁸⁾ 지혜로운 건

236) 국제제자훈련원 편, *집에서 집으로*, 83-84.

237) Bill Dona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15.

축가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군으로 훈련하며 돌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영적 갓난아이들 틈에 끼여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구도자를 신자로, 소비자를 기여자로, 교인을 사역자로, 청중을 군대로 바꿀 수 있고 훈련과정을 개발해야 한다.²³⁸⁾

라. 예배를 통한 돌봄

전인적 돌봄의 실제 가운데 예배는 영적 체험과 말씀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21세기의 사람들과 성도들은 불완전한 시대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에 목말라 한다. 이러한 공허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깊이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치유, 위로, 용기, 소망, 믿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고넬료의 가정에서의 모임처럼 말씀을 듣는 중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마. 기도회와 수련회를 통한 돌봄

교회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다. 일 년 중 몇 차례 특별 기도회를 가지기도 한다. 이 기도회에서는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한 돌봄의 기도회가 될 수 있고 삼인조 기도운동 같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들이 되게 할 수 있다. 또한 기도회 중 목회자의 안수기도는 많은 문제 해결과 치유를 가져오며 성도들에게 확신을 준다.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코스 사역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6주가 지난 후 주말 수양회를 갖는다.²⁴⁰⁾ 이 주말 수양회에서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인적 돌봄은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선택한 교회들은 일 년에 한 두 번씩 개최하는 부흥회 대신 방학을 이용한 전인 치유 수양회나 공휴일을 통해 일일 치유 수양

238) Harold J. Westing, *재성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Create and Celebrate your Church's Uniqueness)*, 오진탁 역 (서울: 디모데, 1996), 67.

239)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5), 59.

240) Nicky Gumble, *알파코스 운영방법*, 조병철, 엄정섭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24.

회를 갖는 것을 중요시 한다. 21세기의 목회는 이처럼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많은 시대에 맞춰 전인적 돌봄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3. 21세기 성도들의 욕구와 돌봄의 중요성

21세기는 산업사회, 지식사회, 정보사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이며 전문화, 세분화된 시대이다. 이런 환경에 따라 가정도 핵가족화 되고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사회적 환경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친숙해지기 어렵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가능한 간섭 받지 않고 조용히 다니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정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서에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족애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인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과 쾌락, 술 취함, 도박, 게임, 성, 마약 등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이런 환경이 더욱 교회로 하여금 목회적 돌봄을 중요하게 한다. 칼 조지(Carl F. George)는 이 시대의 지도적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여덟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접촉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둘째, 남녀노소의 모든 성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기대하며 교회에 온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한다. 넷째, 급격한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계발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남녀가 협력관계를 맺어 사역하게 하라. 여섯째, 동기부여를 자본화 하라. 일곱째, 사랑을 중요시 하는 조직구조를 보여 주어야 한다. 여덟째, 자신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²⁴¹⁾

위의 성도들의 요구와 욕구를 보아도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목회의 최우선 점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을 중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섬김을 중요시 하고 있다. 따라서 칼 조지는 21세기야말로 인간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²⁴²⁾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지만 인간의 심성의 본성인 사랑하고 사랑받고 심고 인정

241) Carl F. George,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22-28.

242) George, *메타교회*, 23.

과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는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중심을 둔 전인적 돌봄의 목회는 목회의 본질이며 최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결 론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목회자에게 위임해 주셨다. 따라서 목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의 양떼들을 그리스도의 심정과 원리를 따라 돌보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목회적 돌봄은 양들을 이해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효과적인 돌봄이어야 한다. 자치 지나친 인간접촉의 돌봄이 지나친 간섭이 되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많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과 환경에 맞는 돌봄의 사역을 연구하고 전인적 돌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특별히 21세기 급변하는 불완전한 시대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시대에 무엇보다 인간적인 돌봄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21세기에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의 전인격을 돌보아야 될 것인지를 다루어 보았다. 특별히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가장 알맞은 전인적 돌봄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전인적 돌봄 목회의 개념과 발달을 초대교회부터 20세기까지 다루었다. 초대교회의 돌봄은 개인별로, 가정에서, 회당에서 주로 돌봄 사역이 있었다. 종교개혁 이전의 목회적 돌봄은 교회가 시작 된 시기에는 성령이 남녀종들에게 부어짐으로 여성들의 사역이 두드러졌다. 4세기가 되면서 목회적 돌봄은 조직화되었고 감독은 일반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정도로 강력해졌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기에는 목회적 돌봄이 거의 사라지고 성직자의 권위만이 강해지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의 돌봄 사역은 말씀과 만인 제사장 이론에 근거한 사역의 다양화였다. 20세기의

목회적 돌봄은 상담 심리학의 이론에 근거한 목회상담 치유가 중심이 되었다. 전인적 목회 돌봄의 개념은 목자가 양을 치고 먹이는 것으로 양들의 영적, 심적, 육적, 가정적, 사회적인 면을 돌보아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전인적 목회 돌봄의 패러다임을 다루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목회 돌봄 패러다임은 구원자, 치유자, 교사, 선한 목자이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구원하고 훈련하였다. 베드로의 목회 패러다임은 복음전파자, 제사장, 선한 청지기, 장로 등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진 자, 믿음의 부모, 지혜로운 건축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전인적 목회 돌봄의 정신은 양들을 위해 낮아지는 성육신과 종, 한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전인적 목회 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인의 정서와 특징은 정과 한, 체면과 눈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다. 또한 가족과 가문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이런 정서에 맞게 교회에서 가족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게 하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장에서는 전인적 목회 사역의 원리와 그 적용 사례를 다루었다. 인간의 구조인 전인(영, 혼, 육)의 기능을 살피고 전인의 성장에 따른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발달 과업을 다루었다.

6장에서는 임마누엘교회의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과 21세기 효과적인 목회 전략을 다루었다. 임마누엘교회의 목회 비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인격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목회철학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대로 복음전파, 전인치유, 교육과 제자훈련이다. 이러한 목회 철학을 중심한 전인적 목회 돌봄 사역은 영적, 심적, 육적인 면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어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었다.

21세기의 효과적인 목회전략은 세 가지로 전인적 돌봄, 개인적 돌봄, 체계적인 돌봄이며 21세기 목회 패러다임은 부성과 모성애에 기초한 목회자여야 하며 모든 평신도들을 목회자로 훈련하여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임마누엘교회의 목회현장을 중심으로 전인적 목회 돌봄을

살펴보았다. 21세기에 들어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는 많은 목회의 방법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 부흥은 넘쳐나는 여러 가지 성장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교회 성장의 원리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교회 성장 연구소가 많아지고 많은 이론들이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쇠퇴해 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목회자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목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라 칭했다(벧전 5:4).

21세기의 효과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목회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인적 목회 돌봄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다. 앞서 성장해 가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증명한대로 목회자는 아버지의 심장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되 성령의 능력으로 돌보아야 한다. 또한 성도들을 양육, 성장, 훈련 시켜 목회자와 같은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목회의 사역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전인적 목회 돌봄을 위해 소그룹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멘토, 알파리더, 바나바, 새 가족 도우미, 공동체 리더 등의 일군으로 세워져야 한다. 결국 모든 공동체의 모임은 사람의 전인격을 돌보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야 한다.

임마누엘교회는 여러 가지 면이 부족하지만 7년 전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전인적 돌봄에 전심전력했으며 사역은 일원화 했다. 그 결과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지역 사회에 소문 난 좋은 교회가 되어 양적, 질적으로 부흥 성장했다.

본 주제의 연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양들에 대해 깊이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트루나이젠이 주장한대로 목회 돌봄의 본질은 양들을 이해하는 것, 곧 인간 이해인데 지면관계와 본 논문의 연구범위의 제한으로 인간 이해를 다루지 못했다. 이 부분은 목회자라면 누구나 계속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21세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전인적 돌봄의 목회를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양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강준민, *뿌리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서울: 두란노, 1999.
- 국제 제자 훈련원 편, *집에서 집으로 (Hut to Hut)*, 새들백교회 소그룹 세미나 강의안(미간행), 2005.
-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을 2002.
- 권용각, "돌봄의 목회가 절실할 때이다." *인천 기독교신문*, 2005년 12월 27일자.
- 권혁기,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산다*, 서울: 콤란출판사, 2001.
- 김군진, *기독교조직신학*, vol. III,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3.
- 김득황, 김도경, *우리민족 우리역사*, 서울: 삶과 꿈, 2003.
- 김병상,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서울: 진흥, 2002.
- 김성곤, *라스트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경기: NCD, 2004.
- 김성화, *극락의 불나비*, 서울: 아가페, 1985.
- 김세운,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제자, 1993.
- 김요한, *21단계 구원에서 성숙까지*, 서울: 나침반사, 1991.
- 김원호,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김찬중, *구역장 핸드북*, 서울: 콤란출판사, 2004.
- 김한옥, *셀 목회의 유형과 핵심*, 경기: 실천신학연구소, 2005.
- 류영모, *G12 셀 리더십*, 서울: 서로사랑, 1994.
- _____,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 서울: 서울서적, 1993.
- 명성훈, *성령과 함께*, 서울: 크레도, 1993.
-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 1999.
- 박광철, *신나는 교회 생활*, 서울: 두란노, 1999.
- 박근원, *오늘의 목사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박동현 외, *성경과 목회*, 서울: 한국성서학, 1994.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한출판사, 2004.
- 박윤성. *수영로교회 소그룹 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 박윤수. *목회 심리치유와 치유상담의 실제*. 서울: 라빠, 1996.
- _____.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기획, 1994.
- _____. *상담과 심리치료*. 서울: 경성기획, 1994.
- 박재열.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경기: 잠언, 1997.
- 박형렬. *권인치유사역*. 서울: 라·임, 1993.
- 박형용. *교의신학 인치론, Vol. 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서원, 1992.
- 소강석.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서울: 콤파출판사, 2003.
- 송춘섭 편역. *헬라어 소사전 (Pocket Greek-korean Lexicon)*. 대구: 보문출판사, 1977.
- 양창삼. *목회자 당신은 인류인간*.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출판사, 2002.
- 엄예선. *권전한 기독교 가정*.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을 2000.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 _____. *신학 영성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4.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재판: 서울: 두란노, 1998.
- 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도: 국적지원단, 2004.
- 우희영. *목회지도자학*. 서울: 심언, 1995.
-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안, 2005.
- 윤남옥.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집 세우기*. 서울: 진흥, 2003.
- 윤명길. *예수님의 교회*. 경기: 로고스서원, 2004.
- 이강민. *교인들이 바라는 디지털 목회자상 50가지*. 서울: 작은행복, 2000.
- 이규태. *한국 언어 생활문화*. 서울: 신원문화사, 2000.
- 이기춘. *교류분석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_____.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부출판부, 1991.

- 이덕주, 조이제, *강화기독교 100년사*, 강화: 강화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 역사 편찬위원회, 1994
- 이동휘, *창동교회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7.
- 이만재,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서울: 규장, 1997.
- 이박형, *권인치유 이야기*, 서울: 흥성사, 2004
- 이상섭,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서울: 콤파스 출판사, 2004
- 이성준,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문이랑, 1994
- 이용호, *목회와 현장*,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6.
- 이운호, *제자포스 공동체 이야기*,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 이정석, *공동체의 영적 성장*,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을 2002
- 이종윤 편,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서울: 엠마오, 198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1.
- 이하나, "호주제 폐지로 평등국가 이념 실현," *크리스천신문*, 2005년 3월 28일자.
- 임석종,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3.
- 장학일, *달라져야 한다*,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1.
- _____, *밴드로 들어가라*,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 _____, *교회의 체질을 바꾸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전기창,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서울: 그리심, 2001.
- 전진경, *목회의 정체성과 리더십*, 서울: 미드웨스트, 2002
- 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제자, 2000.
- _____, *확신 있는 제자*, 서울: 제자, 2001.
- _____, "21세기 목회 리더십과 교회성장,"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정진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새 가족반*, 경기: NCD, 2000.
- 정필도, "목사는 자기를 보고 목회를 해야," *국민일보*, 2005년 6월 22일자.
- 제자원 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21, 서울: 제자원, 2001.
- _____,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vol. 123,

서울: 제자원, 2001.

조용기, *삼박자 구원*, 서울: 영산출판사, 1981.

조준상, *한민족 뿌리사*, 경기: 한민족, 2002.

주성훈, *셀 교회 경험을 통한교회회복의 실체*, 경기: NCD, 2000.

최상태, *이것이 가정 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9.

_____,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서울: 규장, 2005.

최정성, *영성목회 핸드북*, 인천: 예향, 1997.

한국치유상담학회 편,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초*, 서울: 한국치유상담연구원, 1995.

2 번역 서적

Hiltner, Seward, *목회신학원론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Anderson, Keith R. & Randy D. Reese, *영적 멘토링 (Spiritual Mentoring)*, 김종호 역, IVP, 2003.

Banks, Robert & Julia,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The Frog in the Kettle)*,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_____, *성장하는 교회의 9가지 습관.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Churches)*,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Baxter, Richard, *참 목자상 (The Reformed Pastor)*,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Biehl, Bobb, *멘토링 (Mentoring)*, 김성응 역, 서울: 디모데, 1997.

Bruce, F. F., *바울신학 (Paul)*, 정원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_____, *데살로니가 전후서*, WBC 성경주석 45,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0.

Castellanos, Cesar, *성공의 사다리 (The Ladder of Success)*, 김동조 역, 서울:

제네시스 21, 2004.

- Christie, Cozad Neuger, *목회의 새 패러다임 (The Arts of Ministry)*, 정석환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2.
- Clinebell, Howard, *목회상담신론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7.
- _____, *전인건강 (Well Being)*, 이종현, 오성춘 역,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2000.
- Cosgrove, Francis M, *제자의 삶*, 서울: 네비케이토 출판사, 1998.
- Corn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편집부 편역, 경기: NCD, 2003.
- _____, *셀그룹 폭발 (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 _____, *지투엘브 이야기 (G12)*, 정진우, 홍원팔 역, 서울: NCD, 2000.
- Cunningham, Loren and Rogers, Janice, *네 신을 벗어나라 (Winning, God's Way)*,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5.
- Dona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이야기 (The Willow Creek Guide to Leading Life 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6.
- Dowgiewicz, Mike and Susan, *새 밀레니엄 교회 (Restoring the Early Church)*, 홍원학 역, 인천: 바울, 1999.
- Edwards, Gene, *가정집 모임은 어떻게 (How to Meet in Homes)*, 이영복 역, 경기: 대장간, 2003.
- Evans, Eifion, *1904 웨일즈 대부흥 (The Welsh Revival of 1904)*,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 Finnell, David, *셀교회 (A Simple Guide to Active Cell Life)*,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 Gerkin, Charles V, *목회적 돌봄의 개론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유영권 역, 서울: 은성, 1998.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완주 역, 서울: 오산출판사, 1997.
- Getz Gene A, and Joe L, Wall *효과적인 교회 성장전략 (Effective Church Growth*

- Strategies*). 김현희 역. 서울: 디모데, 2001.
- Gibbs, Eddie. *미래목회의 9가지 트렌드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 Green, Michael. *초대교회의 전도 (Evangelism: Now and Then)*.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_____.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After Alpha)*.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Gumble, Nicky. *알파코스 운영법 (How to Run the Alpha Course)*.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3.
- _____. *알파 시작하기 (Telling Others)*. 알파코리아 역. 서울: 서로사랑, 2005.
- Harlow, R. E. *성경의 교회 (The Church of the Book)*. 한상식 역. 서울: 엠마오, 1980.
- Harshall, Tom.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Healing from the Inside Out)*. 이상신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4
- Hinkle, John E. *영혼을 돌보는 목자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이기승 역. 서울: 세복, 1998.
- Houston, James M. *멘토링 받는 삶 (The Mentored List)*. 권영석 역. 서울: IVP, 2004
- Hurren, Doug.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Leader Shift)*. 김기영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8.
- Hybels, Bill. *섬김의 혁명. (The Volunteer Revolution)*.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 _____. & Lynne. *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울: 두란노, 1997.
- Jenson, R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성장 (Dynamics of Church Growth)* 송병달 역. 서울: 순출판사, 1994
- Jones, D. H. Lloyd. *성령론*. 홍정식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0.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 교회 (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 한국강해설교출판부, 2001.
- _____,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할 때 부흥," 국민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 Klug, Ron. *성장하는 기쁨 (Growing in Joy)*. 조은혜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2.
- Lingentelner, Sherwood, and Marvin Mayers. *문화적 사역과 갈등 (Ministering Cross-Culturally)*. 왕태종 역. 서울: 죠이 선교회, 1992.
- London, H. B. and Neil B. Wiseman. *목사 (They Call Me Pastor)*.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2.
- Lutzer, Erwin W. *목사가 목사에게 (Pastor to Pastor)*.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사, 1989.
- Marshall, Tom. *자유케 된 자아 (Free indeed)*. 예수전도단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85.
- _____, *깨어진 관계의 회복 (Right Relationships)*. 채두병 역. 서울: 예수전도단, 1996.
- Missildine, W. Hugh. *몸에 밴 어린 시절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종범, 이석규 역. 서울: 카톨릭 출판사, 1995.
- Murphy, Troy, and Kym Anderson. *성장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Programming with Purpose)*. 이상준 역. 서울: 두란노, 2004.
- Murray, Andrew.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 (The Believer's Secret of the Haster's in Dwelling)*.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4.
- Neighbour, Ralph W. *새로운 삶의 실현 (In the Kingdom of Your Journey)*.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 Nicholas, Ron, Barker Steve, Johnson Judy, Malone Rob, & Whallon Doug.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Goods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 학생회 출판부, 1995.
- Patton, John. *목회적 돌봄과 상황 (Pastoral Care in Context)*. 서울: 은성출판사, 2004.
- Peace, Richard. *소그룹 전도와 목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여름 20 03.

- Peace, Richard *Pilgrimage: A Hand Book on Christian Growth*,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Fall 2003.
- Pyle, Hugh F. *지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Return to God Now)*. 정동수 역, 인천: 예향, 2005.
- Rainer, Thom S. *교회성장교과서 (The Book of Church Growth)*.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2004.
- Randall, Robert L.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What People Expect from Church)*. 이근행 역, 서울: 진흥, 1996.
- Rice, Howard *영성목회와 영적 지도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 최대형 역, 서울: 은성, 2003.
- Saucy, Robert L.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The Church in God's Program)*. 김기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Scazzero, Peter L, and Warren Bird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The Emotionally Healthy Church)*. 최종훈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 Schwart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오태균 역, 서울: NCD, 2003.
- Scott, Martin *부흥의 씨 (Sowing Seeds for Revival)*. 권경남 역, 서울: 은혜출판사, 2004.
- Segler, Franklin H. *목회학개론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이정희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Sell, Charles.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Unfinished Business Helping Adult Children Resolve Their Past)*.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1996.
- Seyoon, Kim *바울 신학과 새 관점 (Paul and the New Perspective)*. 정옥배 역, 서울: 두란노, 2002.
- Spurgeon, C. H. *목회자들을 위하여 (An All Round Ministry)*.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Stanton, Gerald *신앙의 기초 (Christian Foundations)*. 황영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Stevens, R.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지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 _____, "평신도는 이류 아닌 일류...만인 제사장 역할 해야." 국민일보, 2005년 11월 16일자.
- Stott, Jeon H. W. *성령세례와 충만 (Baptism and Fullness)*, 김현회 역, 서울: IVP, 2005.
- Tenny, Tommy. *다윗의 장막 (God's Favorite House)*, 이상준 역, 서울: 토기장이, 2004
- Thompson, Oscar W. *관계중심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사, 1984
- Thruneysen, Eduard *목회학원론 (Die Lehre Vonder Sedsorge)*, 박근원 역, 서울: 성서 교제간행사, 1997.
- Tozer, Andrew. *예배인가 쇼인가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몽복 역, 서울: 규장, 2004
- Volz, Carl A. *초대교회와 목회 (Pastoral Life and Practice in the Early Church)*,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 Wagner, E. Glenn and Glen, S. Martin. *목사의 심장 (Your Pastor's Heart)*, 진응희 역, 서울: 규장, 2003.
- Walvoord, John F. *성령 (The Holy Spirit)*,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Wanger, Peter C. *교회성장을 위한지도력 (Leading Your Church Growth)*, 서울: 광림, 1984
- _____, *건강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9가지 요인들. (The Healthy Church)*, 홍용표 역, 서울: 서고사랑, 1997.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 Westing, Harold J. *개성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Create and Celebrate Your Church's Uniqueness)*, 오진학 역, 서울: 디모데, 1996.
- Wise, Carroll, A. *목회학개론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이기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2.

3. 외국서적

Adams, Jay E. *Shepherding God's Flock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90.

_____. *How to Help People Change*. Grand Rapids: Zondervan, 1996.

Hybels, Bill. *Building Contagious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2001.

Kent, Homer A. *The Pastor and His work*. Chicago: Moody Press, 1979.

Logan, Robert E. *Beyond church Growt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1989.

Peace, Richard. *Spiritual Journaling*. Colorado: Novpress, 1998.

_____.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1999.

_____. *Pilgrimage: A Handbook on Christian Growth*.

Solomon, Charles R. *Handbook to Acceptance*.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82.

Warren, Rick. *The Purpose Driven Life*. Quezon: Purpose-Drive Ministries, 2004.

Vita of
Eun Chul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Immanuel Church, Inche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December 30, 1956
 Marital Status: Married to Junghee Bae in November 7, 1981 with two children, Hanna, Jookyung.
 Home Address: #Na-303 Gabgonri Kanghwæup
 Kanghwagun, Incheon,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Hapdong)
 Ordained: October 18, 1988

Education

B. A. Calvin University, Seoul, Korea, 1984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6

Ministerial Experience

198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Immanuel Church
 1996 to present Lecturer of China Reformed Seminary
 1981 to 1985 Educational Director of Yonhee Church